



조 선 어

김인성정경합대학출판사



ㅣ 기 너 더 러 미 비 시 이 지 치 키 터 췌 히

ㅡ 그 느 드 르 므 브 스 으 으 초 크 트 프 흐

*double* ㅑ 규 슈 튜 류 무 류 슈 유 쥬 쥬 류 류 쥬 류

ㅓ 구 누 두 투 무 부 수 우 주 추 무 투 후

ㅕ 교 뇨 도 로 모 보 쇼 요 쥬 효 묘 투 쥬 효

ㅗ 고 노 도 로 모 보 쇼 오 조 초 묘 투 쥬 효

ㅋ 저 녀 더 러 며 버 셔 여 저 처 췌 더 췌 히

ㄱ 거 녀 더 러 며 버 셔 어 저 처 췌 터 췌 히

ㅑ 가 나 다 라 마 바 샤 야 자 차 카 라 파 하

ㅓ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라 파 하

ㅓ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조선어

(류 학생용)

1

초판

김원성종합대학출판사  
1968—평양





차 례

클라와 발음..... 5

제 1 과, 우리 나라.....16

제 2 과, 우리 기차 달린다.....20

제 3 과, 천리마 .....26

제 4 과, 네 절.....32

제 5 과, 세상에 부럼없이라.....39

제 6 과, 두 아동단원.....47

제 7 과, 우리 집.....59

제 8 과, 미제는 승냥이.....70

제 9 과, 담요에 깃든 이야기.....80

제 10 과, 풍년가을.....90

제 11 과, 조국의 바다 ..... 100

제 12 과, 평양..... 110

제 13 과, 조국의 사과 ..... 119

제 14 과, 조선 인민군 ..... 128

제 15 과, 대의원..... 139

제 16 과, 김일성종합대학..... 150

제 17 과, 이 총을 혁명동지들에게!..... 158

제 18 과, 김일성원수의 어린시절 ..... 172

제 19 과, 만경대..... 183

제 20 과,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 196

부록..... 213

김일성장군의 노래

1.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솔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허허히 비치주는 기록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2. 만주빈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철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3. 로동자 대중에겐 해방의 은인  
 민주의 창조선엔 위대한 태양  
 이심개정강우에 모두다 뭉쳐  
 부조선 방방곡곡 새봄이 온다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글자와 발음

1. 조선말의 자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기복) (나름) (다음) (리음) (미음) (비음) (시음) (스)  
 (그) (느) (드) (르) (므) (브) (스)

ㅇ ㅈ ㅊ ㅋ ㆁ ㅍ ㅎ  
 (이음) (지음) (치음) (키음) (리음) (피음) (히음) (흐)  
 (으) (즈) (즈) (크) (트) (프) (프)

ㅍ ㅊ ㅅ ㅁ ㅂ ㅅ

(된기음) (된다음) (된비음) (된시음) (된지음) (된프)  
 (프) (프) (프) (프) (프)

ㅈ ㅊ ㅋ ㆁ ㅍ ㅎ  
 (야) (야) (야) (야) (야) (야) (야)

ㅈ ㅊ ㅋ ㆁ ㅍ ㅎ  
 (야) (야) (야) (야) (야) (야) (야)



# 세 제 개 과 저 거 기

(외) (위) (의) (와) (위) (왜) (왜) (왜)

2. 조선말의 발음

1) 모음자의 발음

가 나 다 라

[a] [o] [o] [u] [w] [ɨ]

# 기 거 개 세

[e] [e] [ø] [y]

기 거 개 세

[i] [i] [io] [iu] [ie] [ie] [wɨ]

# 제 세 개 저 과

[ue] [ue] [ue] [ue]

련 습

가	나	다	라
기	거	개	세
제	세	개	저
과	저	거	기

가 나 다 라  
 기 거 개 세  
 제 세 개 저  
 과 저 거 기  
 기 거 개 세  
 제 세 개 저  
 과 저 거 기  
 기 거 개 세  
 제 세 개 저  
 과 저 거 기

가 나 다 라  
 기 거 개 세  
 제 세 개 저  
 과 저 거 기

가 나 다 라  
 기 거 개 세  
 제 세 개 저  
 과 저 거 기

가 나 다 라  
 기 거 개 세  
 제 세 개 저  
 과 저 거 기

가 나 다 라  
 기 거 개 세  
 제 세 개 저  
 과 저 거 기

아이, 여우, 오이, 우유.



아<sup>1</sup>야<sup>2</sup>야<sup>3</sup>야<sup>4</sup> 오<sup>1</sup>우<sup>2</sup>우<sup>3</sup>우<sup>4</sup> 예<sup>1</sup>예<sup>2</sup>예<sup>3</sup>예<sup>4</sup> 위<sup>1</sup>위<sup>2</sup>위<sup>3</sup>위<sup>4</sup>  
 아<sup>1</sup>야<sup>2</sup>야<sup>3</sup>야<sup>4</sup> 오<sup>1</sup>우<sup>2</sup>우<sup>3</sup>우<sup>4</sup> 예<sup>1</sup>예<sup>2</sup>예<sup>3</sup>예<sup>4</sup> 위<sup>1</sup>위<sup>2</sup>위<sup>3</sup>위<sup>4</sup>

아<sup>1</sup>야<sup>2</sup>야<sup>3</sup>야<sup>4</sup> 오<sup>1</sup>우<sup>2</sup>우<sup>3</sup>우<sup>4</sup> 예<sup>1</sup>예<sup>2</sup>예<sup>3</sup>예<sup>4</sup> 위<sup>1</sup>위<sup>2</sup>위<sup>3</sup>위<sup>4</sup>

2) 자음자의 발음

가<sup>1</sup>나<sup>2</sup>다<sup>3</sup>라<sup>4</sup>마<sup>5</sup>바<sup>6</sup>사<sup>7</sup>  
 (k) (n) (t) (m) (p) (s)

오<sup>1</sup>우<sup>2</sup>우<sup>3</sup>우<sup>4</sup> 예<sup>1</sup>예<sup>2</sup>예<sup>3</sup>예<sup>4</sup> 위<sup>1</sup>위<sup>2</sup>위<sup>3</sup>위<sup>4</sup>  
 [o] [u] [y<sup>o</sup>] [y<sup>u</sup>] [i<sup>o</sup>] [i<sup>u</sup>] [k] [p] [k]

나<sup>1</sup>다<sup>2</sup>다<sup>3</sup>다<sup>4</sup> 라<sup>1</sup>마<sup>2</sup>마<sup>3</sup>마<sup>4</sup> 사<sup>1</sup>바<sup>2</sup>바<sup>3</sup>바<sup>4</sup> 사<sup>1</sup>  
 (k) (t) (p) (s) (p)

음운

가<sup>1</sup>나<sup>2</sup>다<sup>3</sup>라<sup>4</sup>마<sup>5</sup>바<sup>6</sup>사<sup>7</sup>  
 나<sup>1</sup>다<sup>2</sup>다<sup>3</sup>다<sup>4</sup> 라<sup>1</sup>마<sup>2</sup>마<sup>3</sup>마<sup>4</sup> 사<sup>1</sup>  
 나<sup>1</sup>다<sup>2</sup>다<sup>3</sup>다<sup>4</sup> 라<sup>1</sup>마<sup>2</sup>마<sup>3</sup>마<sup>4</sup> 사<sup>1</sup>  
 가<sup>1</sup>나<sup>2</sup>다<sup>3</sup>라<sup>4</sup>마<sup>5</sup>바<sup>6</sup>사<sup>7</sup>  
 나<sup>1</sup>다<sup>2</sup>다<sup>3</sup>다<sup>4</sup> 라<sup>1</sup>마<sup>2</sup>마<sup>3</sup>마<sup>4</sup> 사<sup>1</sup>  
 가<sup>1</sup>나<sup>2</sup>다<sup>3</sup>라<sup>4</sup>마<sup>5</sup>바<sup>6</sup>사<sup>7</sup>







쨌-쨌  
쨌-쨌

# 쨌

ㄱ-가구, 거기, 고기, 그, 기계, 아가, 여기.  
 ㄴ-나, 너, 누구, 누나, 오누이.  
 ㄷ-가다, 구두, 개다, 도구, 어디, 오다.  
 ㄹ-거리, 나라, 노루, 노래, 다리, 오리, 우리, 율리.  
 ㅁ-거미, 고무, 나무, 다리미, 마디, 마루, 머리, 모루, 모이, 무기, 무우, 미래, 어머니, 이마.  
 ㅂ-나비, 바다, 버드나무, 벼, 보따, 보위, 부모, 비, 비누, 비료, 배.  
 ㅅ-가시, 교과서, 기사, 기수, 도시, 마시다, 서리, 소, 쇼나무, 소리, 수도, 시, 세계, 세수, 대야, 의사.  
 ㅇ-고지, 기자, 기지, 모자, 무지개, 바지, 사자, 자, 자기, 자다, 자리, 자모, 자주, 자위, 저, 저기, 주다, 주사, 주소, 지구, 지도, 지리, 지우개, 아버지, 의지.  
 ㅈ-고추, 기차, 기초, 부채, 차, 차단, 차미, 차이, 주채, 치다, 치마, 체계.  
 ㅋ-코, 꼬끼리, 크다, 키.

ㄷ-기타, 나타나다, 타다, 토대; 투지, 외투.  
 ㅌ-모포, 파, 파다, 파도, 포도, 포수, 푸르다, 피, 피다, 피리, 우포.  
 ㅎ-구호, 기후, 사회주의, 하나, 하루, 허리, 히, 호미, 해, 화보, 화가, 회의  
 ㅍ-도끼, 토끼, 까다, 까치, 꼬다, 꼬리, 꼬마, 끼다.  
 ㅍ-따다, 또, 떠, 떠다.  
 ㅍ-고뿌, 나쁘다, 빠르다, 빠지다, 빠스, 빠, 뿌리, 오빠.  
 ㅍ-짜우다, 쫄지, 쫄다, 쓰다, 쫄.  
 ㅍ-짜다, 쫄이다, 쫄다.

X X

고기-거기, 고리-거리,  
 대-데  
 머리-머리, 모기-무기  
 서리-소리  
 포포-포포, 파도-포도  
 도끼-토끼, 가다-까다  
 고리-표리, 기다-끼다  
 지다-찌다-치다, 자다-짜다-차다  
 시-찌, 가지-까지-까치  
 당-땡-탕

4) 받침있는 글자와 그 발음  
 하+ㄱ=학 재+ㅇ=쟁 (학쟁)



여 + ㄴ = 연      궤 + ㄱ = 궤      (연 궤)  
 하 + ㄱ = 학      스 + ㅅ = 습      (학 습)  
 자 + ㅇ = 장

련 습

- 조국, 국가, 무력, 력사, 위력, 세력, 토지개혁, 개척, 조직, 제국주의, 폭로, 유적대, 북쪽, 국기, 국제, 국제, 프락프르, 책, 기속사, 대학, 교탁.
- 천리마, 조선, 인민, 인민군대, 군관, 전사, 민족, 군사, 원수, 반제, 반미, 자본가, 전루, 백두산, 전기기관차, 단어, 신문, 산, 눈, 손, 근로자, 전차.
- 틀다, 신다, 굳다.
- 빨찌산, 전설, 길, 달리다, 별, 달,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교실, 연필, 만년필, 칼, 킴관, 하늘, 즐겁다, 울리다.
- 원수님, 마음, 힘, 힘차다, 사람, 누님, 봄, 여름, 밤, 봄, 봄, 여름, 구름, 군함, 금, 임무, 념원, 기쁨, 침략.
- 자립, 계급, 파업, 사업, 독립, 탄압, 압박, 억압, 집, 학습, 복습, 삼, 톱, 텃다, 좁다, 아름답다.

· 뜻[뜻], 웃[웃], 비웃[비웃], 밋[밋], 낮[낮], 웃다[웃다].

· 정치, 경제, 창립, 희망, 행복, 동지, 동무, 자랑, 영광, 영광, 혁명, 당, 수령, 항일무장투쟁, 유일

사상, 투쟁, 총, 창, 승려, 영광, 자동차, 승용차, 땅크, 비행기, 태양, 공장, 농촌, 자력갱생, 혁명정신, 조상화, 천리마동상, 공산주의, 손풍금, 형제, 방, 책상, 걸상, 전등.

— 낮[낮], 밋다[밋다].

— 빛나다[빛나다], 쫓다[쫓다], 밋[밋], 꽃[꽃].

— 부엌[부엌], 남병[남병], 동녕[동녕].

— 밋[밋], 밋[밋], 같다[같다], 말다[말다].

— 높[높], 앉[앉], 열[열], 높다[높다], 툇다[툇다].

— 툇다[툇다], 놓다[노다], 넣다[너다].



제 1 과

우리 나라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우리 나라

산에는 금은보화  
바다에는 물고기

넓고 푸른 들에는  
오곡이 물결치네

아름다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 우리 나라

모두다 일하고  
모두다 공부하네

오각별 공화국기  
푸른하늘 높이 날러네

아름다운 우리 나라  
진리만 우리 나라

백두산의 혁명정신  
가슴속에 살아있고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  
은세상에 빛나네

발음

- △좋은(조은)
- △넓고(널꼬)
- △물고기(물꼬기)
- △물결(물결)
- △혁명(혁명)
- △빛나네(빔나네)

단어

- |                  |          |
|------------------|----------|
| 나라               | 일하다      |
| 이름있다→아름다운        | 공부하다     |
| 산                | 오각별      |
| 물고기(물꼬기)→물고기(물우) | 물결치다     |
| 들                | 하늘       |
| 금                | 노이(←놀다)  |
| 은                | 날다→날러다   |
| 보화               | 백두산      |
| 비단               | 혁명(혁명)   |
| 물고기              | 정신       |
| 넓다(널따)→널꼬(널꼬)    | 가슴       |
| 푸르다→푸른           | 가슴속에     |
| 들                | 살다       |
| 오곡               | 있다       |
| 물결(물결)           | 살아있다     |
| 물결치다             | 사상       |
| 사회주의             | 세상       |
| 모두               | 은세상      |
| 다                | 빛나다(빔나다) |

단어만들기

- △물고기→물+고기
- △물결, 바람결
-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국주의, 애국주의, 애국주의, 애국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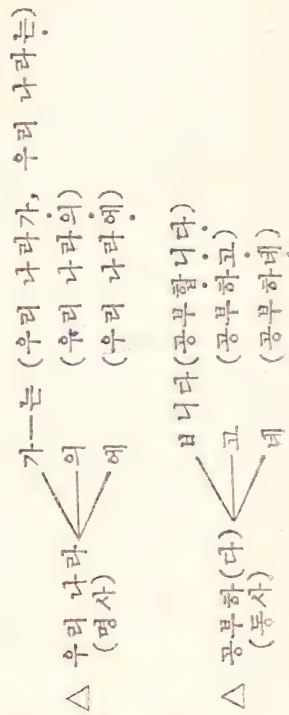


- △ 일하다, 공부하다, 혁명하다.
- △ 혁명정신, 혁명사상.
- △ 온채상, 온나라, 온세계.
- △ 살아있다(살다+있다), 물결치다(물결+치다).

회 화

-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과서와 학습장입니다.
-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연필과 지우개입니다.
- 이것은 연필입니까?  
--이것은 연필이 아니고 만년필입니다.
-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차와 칼입니다.
-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칠판과 칠판지우개입니다.
- 이것은 책상이고 이것은 결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문입니다.
- 이것은 무엇입니까?  
--출입문입니다.  
--전등입니다.

형태비표



어미표준

수 사

1	하나	(일)	제 1 과
2	둘	(이)	제 2 과
3	셋	(삼)	제 3 과
4	네	(사)	제 4 과
5	다섯	(오)	제 5 과
6	여섯	(육)	제 6 과
7	일곱	(칠)	제 7 과
8	여덟	(팔)	제 8 과
9	아홉	(구)	제 9 과
10	열	(십)	제 10 과

련 습

1. 다음 문장들을 정확히 발음하여보시오.  
1) 우리 나라는 아름답습니다.  
우리 나라는 참 좋습니다.  
산에는 금은모화가 많습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습니다.  
물에는 소금이 풀려있습니다.
- 2)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나라입니다.  
모두다 일합니다.  
모두다 공부합니다.  
모리작기에는 오각별이 빛납니다.  
모기벌은 붓습니다.  
모리작기가 리함 눈이 나뭇칩니다.



- 3) 우리 나라는 천리마의 나라입니다.  
우리들의 가슴속에 원수님의 혁명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원수님의 혁명사상은 온세상에 빛납니다.
2. 본문을 학술장에 다섯번 쓰시오.
3. 본문을 외우시오.

## 제 2 과

### 우리 기차 달린다

기차가 달립니다. 이것은 전기기관차입니다.  
자동차가 달립니다.  
기차와 자동차는 많은 짐을 실었습니다. 이것들은  
경제건설장과 국방건설장으로 갑니다.  
뜨락또르가 달립니다.  
뜨락또르는 우리의 사회주의협동벌을 갈아엎습니다.  
비행기들이 날아갑니다. 이것은 인민군대의 비행기  
입니다.

배들이 갑니다. 이것은 인민군대의 군함입니다.  
인민군대의 비행기와 배들은 조국의 하늘과 바다를  
지킵니다.

기차	신다→실었다(과거)
이것	경제
달린다	국방
전기기관차	건설
자동차	건설장
말다→말은	가다
쥐	뜨락또르

## 단 어

협동벌  
갈아엎지다  
비행기  
날아가다  
인민군대  
배

군함  
조국  
하늘  
바다  
지키다

## 단어만들기

- △ 비행기, 운봉선, 경기장, 광장, 비행장, 정거장.
- △ 협동벌, 협동농장, 협동화.
- △ 갈아엎지다(갈다+받지다).
- △ 날아가다(날다+가다).

## 회 화

- / ○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 통부는 대하생입니까?  
—예, (지는) 대하생입니다.
- 통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의 이름은) 영철입니다.
-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합니다)
- 건강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 편안히 주무십시오.  
—다녀가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안 타네가십시오.



문법

1) -가(이), -는(은)

품사	말침이 없을 때	말침이 있을 때
명사	기차가, 기차는	학생이, 학생은
수사	하나가, 하나는	둘이, 둘은
대명사	우리가, 우리는	그들이, 그들은

2) -를(을)

품사	말침이 없을 때	말침이 있을 때
명사	기차를	학생을
수사	하나를	둘을
대명사	우리를	그들을

3) -와(과)

품사	말침이 없을 때	말침이 있을 때
명사	기차와 자동차	하늘과 바다
수사	하나와 셋	둘과 넷
대명사	나와 너	이것과 저것

4) -로(으로)

품사	말침 <리>이 있을 때 말침이 없을 때	말침 <리>을 제외함 말침이 있을 때
명사	만년필로, 학교로	건설장으로
수사	둘로, 하나로	다섯으로
대명사	우리들로, 나로	이것으로

5) ~입니다

명사 } +입니다  
수사 }  
대명사 }

이것은 교파서(학습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물)입니다.  
우리(그들)입니다.

6) ~입니다(습니다)

동사 } +~입니다(습니다)  
성용사 }

품사	말침이 없을 때	말침이 있을 때
동사	갑니다	읽습니다
성용사	푸릅니다	아름답습니다

7) ~을

명사 } +을  
대명사 }

품사	말침이 없을 때	말침이 있을 때
명사	군대, 학생	군대를, 학생들
대명사	그, 이것	그들, 이것들

※ 소리 바꿈

- △ 기차는 짐을 실습니다. (현재)
- 기차는 짐을 실었습니다. (과거)
- △ 비행기가 납니다. (현재)
- 비행기가 날았습니다. (과거)
- 프락포르트가 눈발을 감니다. (현재)
- 프락포르트가 눈발을 감았습니다. (과거)



※

주어 — 출어

기차가 달립니다.

주어 — 보어 — 출어

비행기는 하늘을 지킵니다.

주어 — 상황어 — 출어

기차는 건설장으로 달립니다.

수 사

11	열하나	(십일)
12	열둘	(십이)
13	열셋	(십삼)
20	스물	(이십)
30	서른	(삼십)
40	마흔	(사십)
50	쉰	(오십)

면 습

1. 다음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여보시오.

- 기차
- 자동차
- 기관차
- 트락트르

2.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무엇이 달립니다?
- 2) 기차와 자동차는 무엇을 실었습니까?
- 3) 기차와 자동차는 어디로 달립니다?
- 4) 트락트르는 무엇을 합니까?
- 5) 인민군대의 비행기와 배들은 무엇을 지킵니까?
- 6) 무엇이 날아갑니다?

3. 다음 빈자리에 알맞는 말을 써넣으시오.

- 1) 자동차가..... 이것은 우리의 .....
- 2) 기차와 자동차는..... 집을 .....
- 3) 트락트르는 우리의 ..... 갈아빈칩니다.
- 4) 비행기들이 .....
- 6) 비행기와 ..... 조국의 ..... 바다를 지킵니다.

4. 다음 빈자리에 알맞는 토를 써넣으시오.

- △ 1) 기차... 달립니다.  
 2) 비행기... 날아갑니다.  
 3) 트랙트르... 갑니다.  
 4) 비행기... 놓습니다.  
 △ 1) 배차... 결상

- 2) 기관차... 학습장
- 3) 장문... 열편
- 4) 지우개... 열편
- 5) 자동차... 농민
- 6) 비행기... 학생
- 7) 모자... 구두

△ 1) 나는 신문... 봅니다.

- 2) 그는 교과서... 읽습니다.
- 3) 우리는 본문... 씩니다.
- 4) 나는 모자... 씩니다.

△ 1) 기차와 자동차... 많... 집... 실었습니다.

- 2) 트락트르... 우리... 사회주의협동빌... 갈아빈칩니다.
- 3) 비행기와 배... 조국... 하늘과 바다... 지킵니다.
- 4) 기차... 자동차... 경제건설장... 국방건설장... 갑니다.

5. 다음 단어들에 <—입니다>, <—입니다(습니다)>를 붙이시오.

- 1) 이것은 기차
- 2) 저것은 비행기
- 3) 기차는 달린다
- 4) 비행기는 날아가다
- 5) 자동차는 많은 짐을 실었다
- 6) 우리는 책을 읽다



천 리 마

이것은 천리마동상입니다.  
 천리마동상은 만수대우에 있습니다.  
 천리마동상은 높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천리마를 탔습니다.  
 노동자는 낚자입니다. 그는 전체 당원들에게 모내  
 는 조선통당 중앙위원회의 붉은편지를 높이 쳐들었  
 습니다.  
 농민은 여자입니다. 그는 벼단을 안았습니다.  
 우리 나라는 천리마의 나라입니다.  
 우리 인민은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를 빨리 건설  
 합니다.  
 천리마는 공산주의로 힘차게 달립니다.  
 영철동무는 학교에 다닙니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  
 에서 공부합니다. 그는 천리마기수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장에 다닙니다.  
 그의 어머니도 공장에 다닙니다.  
 영철동무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천리마기수입니다.  
 그의 형님은 인민군대입니다. 그는 《붉은기중대》군  
 인입니다.  
 온가정이 모두 천리마를 탔습니다.

- 발 을
- △ 천리마(천리마)
  - △ 벼단(별판)
  - △ 붉은기(붉은기)

답 어

- |       |         |
|-------|---------|
| 천리마동상 | 인민      |
| 타다    | 빨리      |
| 노동자   | 공산주의    |
| 농민    | 힘차게     |
| 남자    | 학교      |
| 여자    | 다니다     |
| 전체    | 김일성종합대학 |
| 당원    | 천리마기수   |
| 보내다   | 공장      |
| 조선로동당 | 농장원     |
| 중앙위원회 | 형님      |
| 붉은편지  | 붉은기     |
| 쳐들다   | 중대      |
| 벼     | 군인      |
| 벼단    | 가정      |
| 안다    |         |

답어만들기

△ 종합대학, 농업대학, 공장대학, 건설대학, 의학대학, 기계대  
 학, 수산대학, 농업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  
 △ 벼단, 곡지단, 나무단.

회 화

- ① 동무는 무엇을 읽습니까?  
 --(저는) 책을 읽습니다.
- ② 동무는 본문을 읽습니까?  
 --예, (저는 본문을 읽니다)
- ③ 동무는 무엇으로 읽습니까?  
 --(저는) 만년필로 읽니다.



- 동무는 본문을 외웁니까?
- 예, (저는 본문을 외웁니다)
- 이것은 교실입니까?
- 예, 이것은 우리 교실입니다.
- 교실정면에 김일성원수님의 초상화를 모시고 있습니까?
- 교탁앞에는 누가 서계십니까?
- 선생님이 서계십니다.
- 선생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 (선생님은) 글을 가르쳐주십니다.
- 학생들은 무엇을 합니까?
- (학생들은) 글을 배웁니다.
- (학생들은) 공부합니다.
- 장문은 어디 있습니까?
- (장문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 출입문은 어느쪽에 있습니까?
- 왼쪽에 있습니다.
- 책상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책상우에는) 책과 학습장과 만년필이 있습니다.
- 필감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자와 칼과 연필이 있습니다.

문법

- 1) —에, —에게
- |     |             |
|-----|-------------|
| 명사  | } + —에, —에게 |
| 수사  |             |
| 대명사 |             |

품사	비활동체 《—에》	활동체 《—에게》
명사	학교에 갑니다.	형님에게 줍니다.
수사	셋에 물을 합합니다.	—
대명사	—	그에게 줍니다.

2) —에서, —에게서

품사	비활동체 《—에서》	활동체 《—에게서》
명사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형님에게서 말합니다.
수사	셋에서 물을 빼니다.	—
대명사	—	그에게서 말합니다.

- 2) —도
- |     |       |
|-----|-------|
| 명사  | } + 도 |
| 수사  |       |
| 대명사 |       |

- 아버지도 천리마기수입니다.
- 우리들도 천리마기수입니다.

- 4) —고, —이고
- |     |             |
|-----|-------------|
| 동사  | } + 고, + 이고 |
| 형용사 |             |
| 대명사 |             |

- 모두다 일하고 공부합니다.
- 하늘은 높고 푸릅니다.
- 아버지는 로동자이고 어머니는 농장원입니다.
- 이것은 셋이고 저것은 다섯입니다.

주어	—	보어	—	상황어	—	술어
우리	인민	은	사회주의	를	빨리	건설합니다.

주어	—	상황어	—	보어	—	술어
나는	학교에서	조선팔을	공부	합니다.		

주어	—	상황어	—	보어	—	상황어	—	술어
나는	학교에서	조선팔을	재미있게	공부	합니다.			



수 사

60	예순	(륙십)
70	일흔	(칠십)
80	여든	(팔십)
90	아흔	(구십)
100	백	(백)
101	백하나	(백일)
102	백둘	(백이)
200	이백	
300	삼백	
400	사백	
500	오백	
600	육백	
700	칠백	
800	팔백	
900	구백	

련 습

1. 다음 단어를 정확히 발음하여 보세요.

- 첼리마동상
- 쉽자게
- 총합대학
- 붉은기
- 붉은편지
- 빨리

2. 다음 물음에 대답하세요.

- 1) 첼리마동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 2) 누가 첼리마를 뒀습니까?
- 3)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 4) 우리 인민은 첼리마를 타고 무엇을 진선했습니까?
- 5) 첼리마는 어디로 달립니다?  
어떻게 달립니다?
- 6) 영철동무는 어디에서 공부합니까?
- 7) 영철동무의 아버지는 어디에 다니십니까?

- 8) 영철동무의 어머니는 어디에 다니십니까?
- 9) 영철동무의 가정에서 누가 인민군대입니까?
- 10) 영철동무의 가정에서 누가 대학생입니까?
- 11) 영철동무의 가정에서 누가 첼리마를 뒀습니까?

3. 다음 빈자리에 알맞는 말을 써넣으시오.

- 1) 첼리마동상은 만수대... 있습니다.
- 2) 우리 나라는 ... 나라입니다.
- 3) 우리 인민은 첼리마를 ...
- 4)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 진선했습니다.
- 5) 첼리마는 공산주의로 ... 달립니다.
- 6) 영철이는 학교에 ...

4. 다음 빈자리에 알맞는 토를 써넣으시오.

- 1) 그는 공장... 다닙니다.
- 2) 그는 공장... 일합니다.
- 3) 그는 기숙사... 삽니다.
- 4) 나는 종합대학... 공부합니다.
- 5) 제사와 칠상은 교실... 있습니다.
- 6) 나는 신생님... 문습니다.
- 7) 나는 동생... 《김일성신집》을 읽니다.
- 8) 동생은 형님... 교과서를 받습니다.

5. 다음 말로 짧은 문장을 지으시오.
- 1) 빨리
  - 2) 힘차게
  - 3) —에서



네 철

조선은 맑은 아침의 나라입니다.

조선의 일년은 데철로 나누입니다.

데철은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봄은 따뜻합니다.

거리와 마을, 산과 들에서는 눈이 녹고 강에서는 얼음이 풀립니다. 암록강 물결우에 떼목이 내립니다. 여러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핍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버들가지는 가볍게 춤을 춥니다. 또락또르는 밭을 갈고 농장원들은 씨를 뿌립니다. 관개수는 논밭을 적십니다. 모내기 시작됩니다. 농장원에는 봄고 푸른기밭이 나뭇집니다.

해마다 4월이 오면 더많은 사람들이 유서깊은 만경대를 찾아잡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은 덥습니다. 뜨거운 해열이 내뿜조입니다. 비가 자주 오고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번개가 치고 우뢰가 옵니다. 뚝고 뚝은 벌판에는 오곡이 싱싱 자랍니다. 농장원들은 논밭에서 김을 맵니다. 즐거운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혁명전적지를 답사하고 명승지를 견학합니다. 바다에서 헤엄도 치고 배를 타면서 몸을 단련합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하늘은 높고 푸릅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고 나

부름에는 빨간 단풍이 듭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을의 협동벌에 곡식이 여물고 온갖 파실들이 무르익습니다.

농민들은 풍년을 노래하면서 가을걷이를 합니다. 학생들은 새학년이 시작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갑니다. 9월 9일에는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합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옵니다. 찬바람이 불고 흰눈이 내립니다. 거리와 마을에 흰 눈꽃이 핍니다. 눈보라가 있고 강물이 얽니다. 얼음판에서는 스케트를 타고 눈우에서는 스키를 탑니다. 농민들은 새해 농사차비를 갑니다. 날씨가 춥지만 건설장에서는 쉬임없이 노동자함이 진유 깃습니다. 사람들은 즐겁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니다.

발 음

물결(물결)

떼목(떼목)

해열이(해열이)

단련하다(달련하다)

가을걷이(가을거지)

단 어

일년

철

봄

따뜻하다

거리

마을

눈

녹다

강

얼음

풀리다

떼목



내리다  
 여려가지  
 꽃  
 활짝(부)  
 피다  
 봄바람  
 불다  
 머물가지  
 가멸개  
 춤  
 춤추다  
 말  
 갈다  
 농장원  
 씨  
 뿌리다  
 밭  
 농장밭  
 밭다  
 기말  
 나뭇기다  
 해마다  
 오다  
 사람  
 마음  
 포대기  
 시작되다  
 판개수  
 눈발  
 적시다  
 고향  
 찾아가다  
 여름

덤다  
 뜨겁다  
 해벌  
 내러쪼이다  
 리  
 자주  
 초내기  
 쓸아지다  
 번개(~치다)  
 우뢰(~가 울다)  
 벌판  
 싱싱(부)  
 자라다  
 김  
 배다  
 즐겁다  
 방학  
 학생  
 바다가  
 해염(~치다)  
 배  
 라다  
 물  
 만런하다  
 기명전적지  
 탐사하다  
 명승지  
 견학하다  
 가을  
 지나다  
 서늘하다  
 나무  
 빨강다

양부(~이, 할아버지)  
 지리  
 목사  
 이철사  
 공관  
 과원  
 부부(이하)  
 풍년  
 노예(이하)  
 가을집이  
 새-새롭다  
 어린  
 즐겁다  
 참진  
 기념일  
 물  
 북받개  
 빛이하다  
 겨울

키디  
 피다  
 눈썰  
 눈보라  
 일다  
 집문  
 일다  
 일음관  
 스캐르  
 스기  
 새해  
 농사  
 차비(~하다)  
 날찌  
 쉬임없이  
 집  
 짓다  
 희망(~차다)

단어만들기

해바람, 여름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 찬바람.  
 기법개, 부집개, 줄집개, 기쁘게, 재미있게.  
 기억력개기, 명승지, 휴양지.  
 가을집이, 가을같이.  
 농사지배, 피니지비.  
 풍년지, 밭본디, 노랗다, 기뻐다.  
 취임일이, 끊임없이.  
 열매지, 기입장, 운동장, 회의장.



표 현

일음이 풀리다  
 폐목이 데리다  
 소나기가 쏟아지다  
 밭게가 썩다

우뢰가 솔다  
 눈보라가 일다  
 스캐트를 타다

회 화

- 오일은 달찌가 어땡습니까?
- 오일은 달찌가 좋습니다.
- 오일은 달찌가 따듯합니다.
- 오일은 달찌가 덤습니다.
- 오일은 무더운 달찌입니다.
- 오일은 달찌가 신선합니다(서늘합니다).
- 오일은 달찌가 좁습니다.
- 오일은 달이 맑게 개였습니다.
- 오일은 달찌가 흐렸습니다.
- 하늘에는 검은구름이 닳게 드리웠습니다.
- 오늘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히 깔습니다.
- 오늘은 바람이 불니다.
- 오늘은 비(꽃은비, 가랑비, 모슬비, 안개비)가 옵니다.
- 오늘은 눈이 내립니다.
- 오늘은 눈보라가칩니다. (일니다)
- 하늘에서는 번개가치고 우뢰가 옵니다.

—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 오늘은 몇도입니까?

- 오늘은 낮기온이 25도입니다.
- 오늘은 령하 5도입니다.

문 범

1) —면(으면)

동사 } + 면(으면)  
 형용사 }

- 분이 가면 여름이 옵니다.
- 비가 오면 피웃을 씹습니다.
- 이름에 바람이 불면 서늘합니다.
- 날씨가 추우면 외투를 입습니다.

2) —면서(으면서, 이면서)

동사 } + 면서(으면서) 명사+이면서  
 형용사 }

- 우리는 학교에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 나는 본문을 읽으면서 새단어를 찾습니다.
- 우리 형님은 로동자이면서 대학생입니다.

3) —지만(이지만)

동사 } + 지만  
 형용사 }  
 명사 } + 이지만  
 수사 }  
 대명사 }

- 쓰(다)+지만→쓰지만
- 읽(다)+지만→읽지만
- 자(다)+지만→작지만
- 소년+이지만→소년이지만
- 4) —기시작하다. 동사+기시작하다.
- 쓰(다)+기 시작하다→쓰기 시작하다.
- 읽(다)+기 시작하다→읽기 시작하다.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봄날은 어땡습니까?
- 2) 여름의 달찌는 어땡습니까?
- 3) 학생들은 방학 때에 무엇을 합니까?
- 4) 가을의 달찌는 어땡습니까?
- 5) 협동벌에서 농민들은 무엇을 합니까?
- 6) 9월 9일은 무슨 날입니까?









3) 조선말의 격체제

격	말침이 없을 때	말침이 있을 때	례	비고
주격	-가	-이	바다가, 하늘이	
속격	-의		바다의	
대격	-를	-을	바다를, 하늘을	
여격	-에	-에게	바다에, 형님에게	비활동체, 활동체
위격	-에서	-에게서	바다에서, 형님에게서	비활동체, 활동체
조격	-로	-으로	바다로, 산으로	말침 <르>인 경우에는 <로>
구격	-와	-과	바다와, 하늘과	
호격	-야	-이여	바다야, 산아	

4) 조선말의 계경과 식

- 하늘은 높습니다. (높인말, 서술식)
- 하늘은 높습니까? (높인말, 의문식)
- 하늘은 높다. (낮춘말, 서술식)
- 노래를 부르십시오. (높인말, 명령식)
- 노래를 부르라. (낮춘말, 명령식)
- 노래를 부르네. (보통말, 서술식)
- 노래를 부르시다. (높인말, 현유식)
- 노래를 부르자. (낮춘말, 현유식)

계	서술식	의문식	명령식	현유식	
높인말	- <u>니다</u> (습 <u>니다</u> ) - <u>아</u> (여) <u>요</u> . - <u>지요</u> , - <u>오</u> (소)	- <u>니까</u> ? (습 <u>니</u> <u>까</u> ?) - <u>아</u> (여, 여) <u>요</u> ? - <u>지요</u> ? - <u>는가</u> 요? - <u>고</u> (을)가 <u>요</u> ?	- <u>시오</u> (오 <u>시</u> <u>오</u> ) - <u>아</u> (여, 여) <u>요</u>	- <u>시오</u> (오 <u>시</u> <u>오</u> ) - <u>아</u> (여, 여) <u>요</u>	- <u>니다</u> (음 <u>시다</u> ) (음 <u>시다</u> )

- 모래는 며칠입니까?  
- (모래는) 9월 9일입니다.
-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기념일입니다.
- 클피는 무슨 요일입니까?  
- (클피는) 화요일입니다.
- 그 클피는 무슨 요일입니까?  
- (그 클피는) 수요일입니다.
- 어제는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 (어제는) 금요일이었습니다.
- 그저께는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 (그저께는) 목요일이었습니다.
- 그그저께는 며칠이었습니까?  
- (그그저께)는 9월 4일이었습니다.
- 한주일은 며칠입니까?  
- 이례입니다.
- 새학년도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 9월 초하루에 시작되었습니다.
- 동무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 1946년 10월 10일입니다.
-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 한달 남짓하게 남았습니다.

문 범

- 1) 토가 들어진 형태  
- 우리의 아버지친(는) 김일성원수님  
- 우린(는) 어제 나물(를) 심었습니다.
- 2) 토가 없는 형태(절대격)  
- 내 마음(은) 즐겁다  
- 손풍금소리(는) 맞추어  
- 손풍금소리(를) 울터라  
- 동무들(아) 다 같이 노래를 부르자.

1) 어간의 모음이 <아, 야, >일 때에는 <았>으로 된다.

받다	말아	받았다
맡다	맡아	맡았다
얹다	얹아	얹었다
보다	보아	보았다
좋다	좋아	좋았다

2) 어간의 모음이 <거, 키, T, >일 때에는 <었>으로 된다.

넓다	넓어	넓었다
먹다	먹어	먹었다
겪다	겪어	겪었다
주다	주어	주었다
붙다	붙어	붙었다

3) 어간의 모음이 <l, n, k, r, >일 때 와 어간이 <하>일 때에는 <였>으로 된다.

기다	기어	기였다
개다	개어	개였다
배다	배어	배였다
되다	되어	되였다
취다	취어	취였다
희다	희어	희였다
하다	하어	하였다

계칭	서술식	의문식	명령식	권유식
보통말	-네	오(소)?	-오(소)	-비시다
	-므세 (음세)	-는가?	-구러	(음시다)
	-다	-르(을)가?	-게	-세
낯글말	-는구나	-느냐?	-아(어, 여)	-자
	-지	-니?	-라	-지
		-랴(으랴)?	-더랴 -뜨나 -아(어)	-아(어 여)

5) 조선말 동사의 시칭

① 종결형(접속형)의 시칭

동사	현 제	파 제	거 제
가다	간다 (가고)	갔다 (갔고)	
받다	받는다 (받고)	받았다 (받았고)	
보다	본다 (보고)	보았다 (보았고)	
오다	온다 (오고)	왔다 (왔고)	
먹다	먹는다 (먹고)	먹었다 (먹었고)	
주다	준다 (주고)	주었다 (주었고)	
쓰다	쓴다 (쓰고)	썼다 (썼고)	

② 규정형의 시칭

동사	현 제	파 제	거 제	배 제
주다	주는 제	준 제	미 제	배 제
받다	받는 제	받은 제	받을 제	배 제
보다	보는 제	본 제	볼 제	배 제
읽다	읽는 제	읽은 제	읽을 제	배 제



그러나 받침이 있을 때에는 《었》으로 된다.

길다	길어	길었	다
쉽다	쉽어	쉽었	다
읽다	읽어	읽었	다
맏다	맏어	맏었	다

※ 주의

가다	가	갔다
사다	사	샀다
서다	서	섰다
키다	키	켰다
크다	크	켰다
썰다	썰	썰다

### 련 습

- 1) 본문에서 토를 찾고 그것이 어떤 토이며 어떤 뜻인지 말하십시오.
- 2) 다음 글에서 토를 찾고 그 뜻을 말하십시오.  
 종이 울립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들은 다 같이 일어섰습니다. 우리들은 선생님께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여제 준 수제를 합시다. 학생장을 펴서 책상우에 놓으십시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들의 수제를 모두 보시었습니다.  
 《오늘은 다음과를 공부합시다. 교과서 45페이지를 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선생님이 먼저 읽으시었습니다. 우리들은 큰소리로 따라 읽었습니다.

다음은 배워입니다. 모르는 단어의 뜻은 선생님이 가르쳐주시 있습니다.

장외가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공부한 본문과 매일 공부한 본문에서 수제를 주시었습니다. 장외가 끝났습니다.  
 우리들은 기숙사에서 오늘 배운 단어와 래일 배울 단어를 외 습니다.

3) 다음 단어의 반대말을 쓰시오.

좋다  
있다

모르다

4) 본문을 외우시오.

### 제 6 과

### 두 아동단원

악독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을 강점하고 부모형제들을 마음대로 학살하고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날 두 아동단원은 일제놈들에게서 무기를 빼앗을 임무를 받고 강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있었습니다. 이때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일제순사놈이 걸어들고있었습니다. 이놈은 긴 칼과 권총까지 차고있었습니다.

일제순사놈은 강을 건너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인민들을 못살게 구는 이놈은 신발을 벗고 강을 건너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은 사망을 살펴보다가 고기잡이를 하는 두 어 신이를 발견하고

「야! 어서 빨리 와서 나를 얻어라!」하고 큰 소리

를 쳤습니다.

두 아동단원은 잠간동안 무엇을 생각하다가 그놈을  
엮고 강을 건너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  
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아동단원이 그놈을 엮고 강에 들어섰습니다. 다  
른 아동단원은 그놈의 다리를 쳐들고 따라갔습니다.

강한가운데까지 왔습니다. 순사놈을 엮은 아동단원  
은 미끄러지는척하면서 그놈을 깊은 풀속에 처넣었습  
니다. 순사놈은 《어푸어푸》하면서 허위적거렸습니다.  
뒤에서 순사놈의 다리를 잡고 따라가던 아동단원  
은 재빨리 권총과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 다음은 긴  
칼로 그놈의 팔통을 내려썰었습니다.

두 아동단원은 그놈을 몰살이 빠른곳에 처넣었습  
니다.

이리하여 두 아동단원은 총과 칼을 가지고 항일유  
격대를 찾아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아동단원들은 항일유격대를 도와 용감히 싸  
웠습니다.

단 어

- 악독하다
- 강점하다
- 마음대로
- 확실하다
- 무기
- 빼앗다
- 임무
- 아동단
- 아동단원
- 어느날
- 강
- 강가(강까)
- 잡다
- 고기잡이
- 멀다 (형)
- 멀리 (부)
- 멀리서
- 겹다

- 웃
- 쉽다
- 일제
- 순사
- 순사놈
- 길다
- 걸어오다
- 길다
- 칸
- 긴칼
- 권총
- 차다
- 진너가다
- 다리
- 신발
- 벗다
- 압박하다
- 착취하다
- 항상
- 자기
- 사방
- 살피보다
- 발견하다
- 어린이
- 어서
- 쉽다
- 잠간동안
- 생각하다
- 부적
- 들어서다
- 쳐들다
- 따라가다
- 가운데
- 미끄러지다
- 깊다
- 몰속
- 처넣다
- 어푸어푸
- 허위적거리다
- 뒤
- 잡다
- 재빨리
- 다듬
- 팔통
- 내리까다
- 몰살
- 빠르다
- 항일유격대
- 찾다
- 산속
- 들어가다
- 톱다→도와
- 용감하다
- 싸우다
- ~척하다(~척하다)

단어만들기

- △ 강가, 바다가, 길가, 호수가.
- △ 순사놈, 미꾸라지, 일제놈.



- △ 잠깐동안, 오래동안, 열바동안, 한참동안.
- △ 따라가다, 따라오다, 따라왔다, 따라잡다.
- △ 내리까다, 내리치다, 내리쓰다, 내리뛰다.
- △ 산속, 물속, 마름속, 머리속.
- △ 처뵈다, 처박다.

표 현

- △ 미끄러지는데적이다.
- △ 큰소리를 치다.

회 화

- 지금은 몇시입니까?  
 -8시입니다.  
 -9시입니다.  
 -10시 43분 21초입니다.  
 -정각 1시입니다.  
 -1시 반입니다.  
 -2시 10분전입니다.  
 -아침 6시입니다.  
 -낮 1시입니다.  
 -저녁 7시입니다.  
 -밤 11시입니다.
- 동무는 몇시에 일어났습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 동무는 몇시에 아침밥을 먹었습니까?  
 -저는 7시부터 7시반 사이에 아침을 먹었습니다.
- 강의는 몇시에 시작됩니까?  
 -8시 반에 시작됩니다.
- 강의는 몇시에 끝났습니까?  
 -11시 40분에 끝났습니다.
- 몇시간 후에 강의를 시작됩니까?  
 -한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 ( ) 몇분전에 강의를 끝났습니까?  
 -30분전에 강의를 끝났습니다.
- 기숙사에서 학교까지는 몇분 걸립니까?  
 -한 15분쯤 걸립니다.  
 × × ×
- 오전 11시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15분전 12시입니다.  
 -5분전 1시입니다.  
 -시계가 빠릅니다.  
 -시계가 뜯니다.

문 법

- 1) -다가 △ 동사+다가  
 가(다)+다가→가다가  
 읽(다)+다가→읽다가
- 2) -아(어, 여)서  
 동사 | +아(어, 여)서  
 형용사  
 가(다)+아서→가아서  
 보(다)+아서→보아서  
 읽(다)+어서→읽어서  
 주(다)+어서→주어서  
 취(다)+아서→취아서  
 밟(다)+아서→밟아서  
 불(다)+어서→불어서  
 회(다)+어서→회어서
- 3) -러(으)고 하다  
 동사+려(으)고 하다.  
 쓰(다)+려고 하다→쓰려고 하다.

읽(다) + 기로 하다 → 읽기로 하다  
 읽(다) + 는척하다 → 읽는척하다  
 읽(다) + 는척하다 → 읽는척하다

B) 소리바꿈  
 (1) <ㄷ> → <ㄹ>

듣다	들으니
듣고	들으려고
듣는	들으며
듣습니다	들으시오
듣지않다	들어, 들었습니다
걸다	걸으니
걸고	걸으려고
걸는	걸으며
걸습니다	걸으시오
걸지 않다	걸어, 걸었습니다
묻다	물으니
물고	물으려고
물는	물으며
물습니다	물으시오
물지 않다	물어, 물었습니다

(2) <ㄹ> → <ㄷ>

오르다	올라
오르고	올라서
오르며	올랐습니다
오르지만	
오릅니다	
오르다	몰라
모르고	몰라서

읽(다) + 으려고 하다 → 읽으려고 하다  
 읽(다) + 이(여)야 하다  
 읽(다) + 이(여)야 하다

동사 } 아(어, 여)야 하다  
 형용사 }  
 받다 → 받아야 하다  
 보다 → 보아야 하다  
 팔다 → 팔아야 하다  
 좋다 → 좋아야 하다  
 오다 → 와야 하다  
 넓다 → 넓어야 하다  
 주다 → 주어야 하다  
 들다 → 들어야 하다  
 걷다 → 걸어야 하다  
 읽다 → 읽어야 하다  
 하다 → 하여야 하다  
 가다 → 가야 하다  
 서다 → 서야 하다  
 크다 → 커야 하다  
 쓰다 → 써야 하다

5) -지 않다  
 동사 } + 지 않다  
 형용사 }  
 모르(다) + 지 않다 → 모르지 않다  
 무섭(다) + 지 않다 → 무섭지 않다  
 멀(다) + 지 않다 → 멀지 않다  
 6) -기로 하다  
 동사 + 기로 하다  
 쓰(다) + 기로 하다 → 쓰기로 하다





큰 소리를 치다  
미끄러지는척하다  
치명하다

찾아  
유격대

2.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1) 두 아동단원은 강가에서 무엇을 하고있었습니까?  
 2) 이때 멀리서 누가 걸어오고있었습니까? 이놈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 강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였습니까? 일제순사놈은  
 어떻게 강을 건너가려고 하였습니까?  
 4) 두 아동단원은 왜 일제순사놈을 업고 강을 건너가기로 하였  
 습니까?  
 5) 두 아동단원은 일제순사놈을 업고 가다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6) 두 아동단원은 일제순사놈들에게서 빼앗은 총과 칼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3. 다음 단어의 반대말을 말하십시오.

멀다	멀리
좁다	빨리
길다	(웃을)임다
크다	(신을)벗다
깊다	(모자)를 벗다
빠르다	

4. 다음 문장에서 빈자리에 알맞는 토를 써넣으시오.  
 1) 두 아동단원이 강가... 고기잡이... 하고있었습니다.  
 2) 두 아동단원은 잠깐동안 생각하... 그놈... 업... 강... 건너  
 가... 하였습시다.  
 3) 순사놈... 업... 아동단원은 미끄러지... 척하... 그놈을 깊... 물  
 속... 치명었습니다.  
 4) 아동단원은 긴 칼... 그놈... 끌통... 내리했습니다.  
 5) 두 아동단원은 총... 칼... 가지... 유격대... 찾... 깊... 산속...  
 들어갔습시다.  
 6) 여기에는 다리가 없... 강을 건너가... 신발을 벗... 합니다.  
 7) 용감한 두 아동단원은 일제순사놈... 깊... 물속... 치막... 그놈

- ... 총과 칼... 빼앗았습니다.  
 5. 다음의 빈자리에 알맞는 말을 써넣으시오.

△ 분보기

...학생→학교에 가는 학생

1. ... 두 아동단원
2. ... 일제순사놈
3. ... 목적
4. ... 한 아동단원
5. ... 다른 아동단원

△ 분보기

나는 신문을...→나는 신문을 읽니다

1. 두 아동단원은 고기잡이를 ...
2. 일제순사놈은 긴 칼과 권총까지 ...
3. 두 아동단원은 잠깐동안 무엇을 생각하다가 ...
4. 한 아동단원이 그놈을 업고 ...
5. 순사놈을 업은 아동단원은 미끄러지는척하면서 ...
6. 순사놈은 《어푸어푸》하면서 ...
7. 다른 아동단원은 제빨리 권총과 칼을 ...
8. 그 다음은 긴 칼로 일제순사놈의 끌통을 ...
9. 두 아동단원은 그놈을 ...
10. 두 아동단원은 총과 칼을 일제순사놈에게서 ...
6. 다음 문장에서 밑줄을 그은 말들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 말  
 하시오.

1) —이놈은 긴 칼과 권총까지 차고있었습니다.

—강한가운데까지 왔습니다.

2) —나는 학교까지 잡니다.

—나는 나무 기둥까지 손벽까지 쳤습니다.

3) 그러나 이 강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아동단원은 그놈의 다리를 쳐들고 따라갔습시다.

4) —순사놈은 긴 칼과 권총까지 찾다.

—어제 우리는 운동장에서 뿔을 찾다



제 7 과  
우리 집

우리 집에는 모두 여섯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님과 누님 그리고 나와 여동생  
이 있습니다.

해방전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제놈의 공장에서 일  
하면서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받았습니다. 학교문앞  
에는 꿈에도 가보지 못했으며 제 이름자도 쓸줄 몰랐  
습니다.

그러나 해방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은덕  
아래 우리 가정에도 패육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따라 일하면  
서 공장대학을 졸업하시고 오늘은 친리마기계공장의  
직장장으로, 도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일용품공장 놀이감직장에서 완성공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형님은 조선인민군 지휘관으로서 조국보위의 초소  
에 믿음직하게 서 있습니다. 형님은 원추 미제승냥이  
놈들을 때려부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공화국영  
웅이 되었습니다.

평양기계대학 통신학생인 누님은 아버지와 같은 공  
장에서 선반직장 친리마기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4학년에서 공  
부하고 있습니다.

해면에 누님과 나까지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가정  
에는 기사, 전문가가 3명이나 됩니다.

인민학교에 다니는 여동생은 모범소년단원이며 최

7. 다음 말을 가지고 문장을 지으시오.

- 멀리서 ...까지
- 처徒刑다 ...다가
- 미끄러지다 ...면서
- 빼앗다 ...려고 하다
- 허위적거리다 ...기로 하다
- 살펴보다 ...아(어여)야 하다.

8. 본문을 여러번 읽고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여보시오.

어린동무 노래부르자

1. 자유의 강산에서 우리 차라고  
평화의 락원에서 꽃피려하는  
채나라 어린동무 노래부르자  
세상에 부러울것 그 무엇이냐
2. 창공에 밝은 달 찬란한 그 빛  
바다에는 밝은 달 명량한 그 빛  
바다에는 별들이 꼬리처럼 높고  
푸른 들엔 양떼들이 무리져있다
3. 동무들 어린 군인 노래부르자  
로동주권 함께 잡은 자유의 터에  
영원한 자유 평등 모두 찾으려  
은제상 어린이여 다들 오너라.

우등생입니다. 체육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98개의 대학을 비롯한 각종 학교들에서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배합하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동방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더우기 대학생들과 고등기술학교 학생들은 나라에서 장학금까지 받으며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어느 가정, 어느 누구 할것없이 다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주인은 일제시기 지주, 자본가들에게서 압박받고 천대받던 노동자, 농민들입니다.

그러나 일제시기에는 높고 먹는 일제놈과 지주, 자본가들이 근로자들을 착취하며 《주인》노릇을 하였읍니다.

근로자들이 피땀흘려 이룩해놓은 열매는 일제놈과 지주, 자본가들이 다 빼앗아갔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근로자들은 하루 12~14시간씩 일을 하였지만 헐벗고 굶주렸읍니다. 이런 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잘 살수 없으며 공부도 할수 없읍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15성장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시여 일제놈과 지주, 자본가들을 때려부시고 나라를 찾아주셨읍니다.

원수님께서 찾아주신 우리 나라에는 착취하는 사람도 없고 착취받는 사람도 없읍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공장과 농촌에서 그리고 모든 일터에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별

- △ 산로자(클로자)
- △ 미른다(맹는다)
- △ 그림기때문에(그리키때무네)

- △ 굶주리다(굶주리다)
- △ 잃으미(잃스미)
- △ 일자리(일자리)

어

- 식구
- 누님
- 모두
- 동생
- 너동생
- 해방
- 해방전
- 해방후
- 압박
- 문
- 문앞

- 출업하다
- 천리마기계공장
- 직장장
- 인민회의
- 도인민회의
- 대의원
- 제시다(준)→있다
- 일용품공장
- 놀이감직장
- 완성공
- 조국보위

- 꿈
- 보다
- 가보다
- 지 못하다
- 자기 → 제
- 이름
- 이름자
- 은덕
- 활판
- 열다—열리다
- 교육
- 체제
- 교육체제
- 따르다
- 공장대학

- 초소
- 믿음직하게
- 서있다
- 지휘관
- 지나다 → 지난
- 조국해방전쟁
- 원주
- 미제
- 승냥이
- 싸움
- 공화국영웅
- 기계
- 통신
- 통신학생
- 같다 → 같은



신반적장

지금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4학년

기사

질문가

모범

오늘

소년단원

최우등생

체육

잘

각급

인구

행명하다

돈

한문

일반교육

기초기술교육

기술위무교육

통방

장학금

취음으로

실시되다

행복하다

주인

지주

자문가

세상

받다

머뭇말다

침대말다

아들

말

떡다

놀고떠다

일제놈

노릇

피

땀

몰리다

이룩하다

열매

빼앗아가다

그렇다

---기때문에

헛헛다

끓주리다

이러함->이런

---(을)수 없다

경해하다

수령

성상

간교하다

무장투쟁

항일무장투쟁

진개하다

매려부시다

주다

찾아주다

작취말다

물이다

인민학교

터우기

북반부

어느

할것없이

행복

누리다

없다

홍춘

다르다->다름

모든

일터

단어만들기

△ 압박말다, 착취말다, 침대말다, 억압말다.

△ 끓주리고있다, 일하고있다, 공부하고있다.

△ 기계공장, 일용품공장, 전기기관차공장, 자동차공장, 트랙트

르공장.

△ 기계적장, 심반적장, 주물적장, 놀이감적장.

△ 최우등생, 우등생, 연구생, 실습생, 졸업생.

△ 작업만장, 적장장, 위험장.

△ 빼앗아가다, 가져다주다.

표 현

꿈에도 가보지 못하다.

제이름자도 쓰지 못하다.

돈을 들이다.

행복을 누리다

회 화

○ 동무는 몇살입니까?

---(저는) 스물한살입니다.

○ 동무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저의 생일은) 1948년 2월 8일입니다. 이날은 영웅적조선

인민군이 창건된 날입니다.

○ 동무는 몇살에 인민학교에 들어갔습니까?

---(저는) X X 살에 인민학교에 들어갔습니다.

○ 동무는 몇살에 중학교를 마쳤습니까?

---저는 X X 살에 중학교를 마쳤습니다.

○ 동무의 형님은 몇살입니까?

---저의 형님은 스물다섯살입니다.

○ 동무의 동생은 몇살입니까?

---아직 어립니다. 겨우 여섯살입니다.





3) -르(을) (일) 수 없다(있다)

품사	받침이 없을때	받침이 있을때
명사, 수사, 대명사	로동자일수 있다	학생일수 있다
명사, 형용사	줄수 있다 필수 있다	받을수 있다 높을수 있다

4) -기 때문에

동사 } +기 때문에  
 형용사 }  
 명사 }  
 수사 } +이기 때문에  
 대명사 }  
 오(다) +기 때문에 → 오기 때문에  
 읽(다) +기 때문에 → 읽기 때문에  
 높(다) +기 때문에 → 높기 때문에  
 로동자 +이기 때문에 → 로동자이기 때문에  
 학생 +이기 때문에 → 학생이기 때문에

5) -지 못하다

동사 } +지 못하다  
 형용사 }  
 쓰(다) +지 못하다 → 쓰지 못하다  
 읽(다) +지 못하다 → 읽지 못하다  
 높(다) +지 못하다 → 높지 못하다  
 비교 { 나는 오늘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 나는 오늘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6) -가(이) } 도다  
 -로(으로)

명사 { -가(이), 로(으로) 되다  
 수사 }  
 기사가 되다  
 기사록 되다

영용이 되다  
 영용으로 되다

7) 일정한명사

인칭	계정 수	높인말	보통말	낮은말
1인칭	단수	저(제)	나(대)	나(대)
	복수	저희 저희들	우리, 우리들	우리, 우리들
2인칭	단수	{당신}	자네, 그대	너(대)
	복수	{당신들}	자네들, 그대들	너희, 너희들
3인칭	단수		그	
	복수		그들	

※ 수자를 읽는법

- 1) 분수를 읽을때 -<일, 이, 삼, ...> 체계로 읽는다.  
 예:  $\frac{2}{3}$  (삼분의 이),  $\frac{1}{10}$  (십분의 일)
- 2) 소수를 읽을때 -<일, 이, 삼, ...> 체계로 읽는다.  
 예: 0.01 (령점 영일)

- 4.5 (사점 오)
- 234.56 (이백삼십사점 오륙)

- 3) 계산의 단위로 되는 명사(단위명사)의 앞에서 -<하나, 둘, 셋, ...> 체계로 읽는다. (100이하에서)  
 예: 닭 2마리, 20마리(두마리, 스무마리)  
 나이 3살, 30살(세살, 서른살)  
 옷 4벌, 40벌(네벌, 마흔벌)  
 사과 5개, 50개(다섯개, 쉰개)  
 책 6권, 60권(여섯권, 예순권)  
 알곡 7톤, 70톤(일곱톤, 일흔톤)  
 비행기 8대, 80대(여덟대, 여든대)  
 4) 시각을 나타낼때 -<시>는 반드시 <하나, 둘, 셋, ...> 체계로

읽고 《분, 초》는 《일, 이, 삼, …》체계로 읽는다.

해: 4시 (테시)

7시 25분(일곱시 이십오분)

12시 35분 15초(일두시 삼십오분 십오초)

5) 《원, 진》, 《년, 월, 일》, 《개년》, 《도, 분》, 《%》를 읽을 때  
—《일, 이, 삼, …》체계로 읽는다.

해: 14월 58전(십사월 오십팔전)

1948년 9월 9일(일천구백사십팔년 구월 구일)

7개년 계획(칠개년 계획)

38°5'(삼십팔도 오분)

115%(백십오 퍼센트)

6) 수자사이의 부호 《~》는 《내지》로 읽는다.

3~5년(삼내지 오년)

70~80만톤(칠십내지 팔십만톤)

### 련 습

1. 다음의 단어를 정확히 발음하여보시오.

같다→같이, 같은      최우등  
 친대말다                  근로자  
 작위하다                  친리마  
 빼앗다                      옛날  
 그렇기 때문에              작년  
 농촌                          압박  
 직장장

2.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오늘 우리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 2)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누가 《주인》노릇을 할니까?
- 3)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왜 잘살수 없습니까?
- 4) 동무의 가정에 대하여 말하십시오.

3. 본문에서 《하다》, 《말다》가 명사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동사구  
찾고 이 단어의 뜻을 말하십시오.

4. 본문에서 형용사를 찾고 이 단어가 어떤 형태로 쓰이었는데가  
말하십시오.

6. 본문에서 두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동사를 찾고 그 뜻을  
말하십시오.

6. 다음 문장에서 빈 자리에 알맞는 말을 써넣으시오.

- 1) 오늘 우리 나라에서 나라의 …옛날 …던 근로자들입니다.
- 2)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 열매를 지주, 자본가들  
이 다…
- 3) 나는 지금 김일성종합대학에 …
- 4) 누님은 선반직장에서 …
- 5) 작년에 공장대학을 …아버지는 지금 기사로 일하고계십니다.
- 6) 형님은 지난조국해방전쟁시기 원추미제 승냥이놈들을…  
공화국…

7. 다음 문장에서 빈 자리에 알맞는 토를 써넣으시오.

- 1)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몇몇 지주, 자본가놈들이 나라의 《주  
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 2) 우리 가정은 일하… 공부… 행복할 가정입니다.
- 3) 공장대학… 다니는 누님… 아버지… 같은 공장… 선반직장  
친리마기 주… 일하고있습니다.
- 4) 우리 가정… 기사, 직문가가 세명… 됩니다.
- 5) 너동생은 인민학교… 모범소년만월… 최우등생… 공부하고  
있습니다.
8. 본문에서 토《—로(으로)》가 있는 문장을 찾으시오. 《—로(으  
로)》의 뜻을 아는대로 말하십시오.
9. 다음 단어의 앞에 문장을 써넣으시오.  
본보기; …우리 나라→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공부하는  
우리 나라

- 1) …근로자                      4) …사회주의사회
- 2) …지주, 자본가              5) …아버지
- 3) …자본주의사회              6) …어머니

10. 짧은 글 짓기

이름하다                      노릇  
 빼앗다                        …기 때문에  
 굶주리다                      …나(이나)  
 잘                                …이따

11. 동무의 가정에 대하여 학습장에 써보시오.



## 미제는 승냥이

지금도 나의 얼굴에는 하나의 커다란 흠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열한살때 미국선교사 《허시몬》이란 놈이 낸 흠집입니다.

그때 우리 마을앞에는 미국선교사 《허시몬》이란 놈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을 강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선교사놈들은 조선의 가는곳마다에 기여들어 일제놈들의 비호를 받 으면서 인민들에게 《하느님》과 《자선》을 선전하였습니다. 그놈들은 모두다 사람의 가족을 쓴 승냥이놈들이었습니다.

나는 일찌기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의 품에서 어렵 게 살았습니다. 나는 어린 몸이지만 매일 어머니를 도와 집도 내고 나무도 해왔습니다.

어느날 나는 나무하러 산에 갔습니다. 나는 나무를 한집 해지고 《허시몬》이란 미국놈의 사과밭옆을 지나 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을바람에 새빨간 사과 한알이 떨어져 울타 리밖으로 굴러나왔습니다.

이때 《허시몬》이란 놈이 울타리옆을 지나다가 이것 을 보았습니다. 그놈은 사냥개를 데리고 나의 앞으로 왔습니다.

그놈은 나의 뺨을 타 때리며 두팔을 비틀어 사과나무에 팽팡 대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승냥이 같은 그놈은 사냥개를 세워놓고 집으로 달려가 청강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놈은 청강수로 나의 이마에 《도적》이라고 쓴 다음 《이것은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나무도 쓰리고 아파서 정신을 차릴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놈은 오히려 좋다고 더 헛웃음까지 쳤습니다. 나의 이마에 《도적》이라고 쓴 그 승냥이놈을 보는 나의 눈에서는 딱 붙이 이는듯하였습니다. 죄없는 사람의 이마를 청강수로 지지는 그날강도 승냥이놈을 두고 어떻게 참을수 있겠습니까? 내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 따귀같은 놈의 손에서 빠져나와 이마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집으로 달려왔을 때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무도 겨분하여 낫을 들고 그 승냥이놈을 쫓러죽이겠다고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들을 듣자 모두다 도끼와 낫, 몽둥이를 들고 그 승냥이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놈은 벌써 두려워서 어디로 숨어버렸습니다. 《허시몬》이란 놈은 그 후에 자기의 죄가 온 나라에 알려지자 일본놈들의 비호를 받아 제나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미제놈들이란 모두다 이 《허시몬》이란 놈과 같이 가장 야만적인 승냥이들입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승냥이의 본성이 변할수 없는 것처럼 미제놈들도 예나 지금이나 자기의 야수적본성을 버릴수 없습니다.

오늘 밤조선을 강점한 미제승냥이놈들은 자기들의 야수적인 본성을 드러내놓고 온갖 만행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놈들은 대낮에 밤의 집에 뛰어들어가 물건

을 빼앗고 죄없는 인민들을 합부로 죽이는 날강도놈  
들입니다. 이 날강도놈들은 산에서 나물캐는 아이들  
을 파격살아 총질을 하며 배고파 걸가에서 헤매는 아  
이들을 《도적》이라고 쫓죽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놈들  
은 어린이들과 늙은이들을 자동차와 땅크로 깔아죽이  
고 여성들의 머리를 가위로 모조리 자르는 만행을 감  
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제국주의자들은 력사적으로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수이며 사람의 가족을 쓴 승냥이놈들입니다.  
우리는 미제승냥이놈들과 한 하늘을 이고 질대로 같  
이 살수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을 이 세상에서 모  
조리 쓸어버리지 않고는 하루도 편안히 살수 없  
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미제승냥이놈들을 남평양에서 몰아  
내야 하며 이 세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려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남평양제들  
이 공화국북반부인민들처럼 김일성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 행복하게 살 그 날은 꼭 오고야 말것  
입니다.

단 어

지급  
월굴  
키다랗다  
흙집  
—르때  
친교사  
네다

당시  
제국주의  
제국주의자  
강점하다  
—마다  
기여하다  
비호

—하다  
—를 말다  
진전하다  
모두다  
가족(을 쓰다)  
일찌기  
없다  
어렵다  
돕다→도와  
나무를 하다  
한집  
사과밭  
술타러  
밤  
굴다  
굴러나오다  
사냥개  
태리다  
앞  
앞으로  
밖  
막(부)  
태리다  
밭  
비를다  
평공(부)  
태놓다  
세우다  
세워놓다  
달리다→달려가다  
청강수  
지결이다  
쏘리다

차리다  
오히려  
웃음  
더릴웃음  
증오  
물라다  
도적  
지지다  
날강도  
참다  
겨우  
마귀  
빠지다  
빠져나오다  
이마  
움켜쥐다  
너무도  
격분하다  
낮  
찌다  
죽다→죽이다  
도끼  
몽둥이  
도망치다  
도망쳐버리다  
취  
—고 말다  
야만적  
그때  
꽃다  
오르다  
끓어오르다  
본성



면하다  
 ~ ~ 것처럼  
 예 < 옛날  
 야수적  
 버리다  
 드러내 놓다  
 민행  
 다하다  
 뛰어들다  
 물진  
 합부로  
 땅크  
 길가  
 해마다  
 나팔  
 캐다  
 과녁  
 삼다  
 총질  
 ~ 하다

늙은이  
 깔다  
 더성  
 가위  
 모조리  
 감행하다  
 려사적으로  
 흉악하다  
 가죽  
 절대로  
 붙어 버리다  
 편안히  
 담뱃  
 남뱃땀  
 끝까지  
 멸망하다  
 ~ ~ 것이다  
 안기다 ~ 안다  
 ~ 고야 말다

단어만들기

사랑개, 사랑군, 사랑총  
 세워놓다, 놓여놓다, 울려놓다, 말아놓다, 내려놓다  
 길가, 강가, 바다가, 우물가  
 자애롭다, 즐기롭다, 영예롭다  
 총질, 팔레질, 마당질  
 커다랗다, 높다랗다, 넓다랗다

표 현

정신을 차리다  
 정신을 잃다

눈에서 물이 이슬듯 하다  
 치가 떨리다

회 화

~나는 대학생입니다.  
 ~나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합니다.  
 ~나는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입니다.  
 ~나는 아침에 체조를 합니다.  
 ~나는 이를 탐고 세수를 합니다.  
 ~나는 등무들과 함께 학교에 갑니다.  
 ~나는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갑니다.  
 ~매일 하루에 두강의씩 받습니다.  
 ~이 사전을 좀 빌려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옷(외투)을 입습니다(입다 ≠ 벗다)  
 ~턱타이를 맵니다(매다 ≠ 풀다)  
 ~모자를 씩니다(쓰다 ≠ 벗다)  
 ~신(양말)을 신습니다(신다 ≠ 벗다)  
 ~문을 엽니다(열다 ≠ 닫다)  
 ~책을 폼니다(펴다 ≠ 접다)  
 ~전등을 켭니다(켜다 ≠ 끄다)  
 ~밥(빵)을 먹습니다(먹다)  
 ~물을 마십니다(마시다)

1) -란(이)란

평사 } +란(이)란  
수사 }  
대명사 }

-이번 시험에서는 영남이**란** 학생이 가장 우수하였습니다.(이)라고 하는)

-피제놈들이**란** 사람의 가족을 쫓은 승냥이놈들입니다.(이)란

2) -마다

평사 } +마다  
대명사 }

- 사람마다,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 점점마다, 시간마다
- 나라마다, 거리마다
- 저마다

3) -처럼

평사 } +처럼  
수사 }  
대명사 }

- 그는 번개처럼 빠릅니다.
- 래일도 오늘처럼 더울것입니다

4) -자

동사+자

- 종이 울리자 선생님이 불어오셨습니다.
- 공격 명령이 내리자 전사들은 앞으로 달려나갔다.

5) -다가

동사+다가

- 학교에 가다가 김동무를 만났다.
- 리수부영웅은 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6) -나(이나)

평사 } +나(이나)  
수사 }  
대명사 }

- 교과서나 학습장
- 학습장이나 읽힐
- 셋이나 다섯

7) -르(을)때, 르(일)때,

동사 } +르(을)때, 평사 }  
형용사 } +르(일)때, 수사 }  
대명사 }

- 쓰(다)+르때 <출때
- 읽(다)+을때 → 읽을때
- 크(다)+르때 → 클때
- 작(다)+을때 → 작을때
- 학생일때
- 다섯일때
- 기사사르때(기사일때)
- 하나라때 (하날일때)
- 항일유격대원들은 행군할때도 훈련할때도 학습을 계속하였습니다.

8) -러(으)러가다

- 동사+러(으)러가다
- 나는 공부하러 학교에 갔다(오다)
- 인민군대용사들은 월수와 싸우러 전선으로 떠났다.
- 배를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

9) -듯하다

- 가는듯하다 읽는듯하다 (현재)
- 간듯하다 읽은듯하다 (과거)
- 갈듯하다 읽을듯하다 (미래)

10) 지시대명사

격/대상	이야기하는사람에게 가까이	이야기듣는사람에게 가까이	멀리
일반적	이	그	저
물	이것	그것	저것
장소	여기	거기	저기
방향	이리	그리	저리



11) 단위명사

- 개—책상 두개
- 그루—나무 세그루
- 권—학습장 네권
- 대—자동차 여대
- 마리—소 다섯마리

- 벌—웃 여섯벌
- 자루—연필 일곱자루
- 장—종이 여덟장
- 체—짐 열체
- 결례—신 한결례
- 알—사과 한알

연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이 일은 (내가) 몇살때 있는 일입니까?
  - 2) 지름 (나의) 얼굴에 있는 흠집은 어떻게 생긴것입니까?
  - 3) 열한살때 (나의) 생활은 어떠한것입니까?
  - 4) 우리 나라에 기여든 미국신교사들은 누구의 비호를 받으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 5) 어느날 (나는) 무엇하러 산에 갔습니까?
  - 6) <허서몬>이란 놈은 사과밭옆을 지나가는 나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 7)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 8) 미국신교사들은 왜 숨어버렸습니까?
  - 9) 미국신교사들은 자기 죄가 온나라에 알려지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 10) 지금 남조선에 동지를 찾고있는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의 민생을 말하십시오.
  - 11) 왜 이 세상에서 미제를 쓸어버리지 않으면 하루도 편안히 살 수 없습니까?
  - 12) 우리들이 모두다 편안하게 살려면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 13) 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사람의 가족을 쓴 데말가진 승냥이라고 합니까?
2. 다음 밑자리에 알맞는 토를 써넣으시오.

- 1) 나는 매일 어머니님... 도와 김... 대고 나무... 해왔습니다.
  - 2) 가을 바람... 세빨간 사과한알이 떨어져 울타리 밖... 굴러 나왔다.
  - 3) 나는 겨우 정신... 차리고 마귀같은 놈의 손... 빠져나와 집... 달려왔다.
  - 4) 승냥이의 본성이 변할수 없는것... 미제놈들은 예나 지금... 자기의 야수적본성을 버릴수 없다.
  - 5)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은 역사적... 우리 인민의 쉼처지일쑤... 사라... 가족... 쓴 승냥이놈들입니다.
3. 괄호안의 단어를 알맞는 형태로 만드시오.

- 1) 지금도 나의 얼굴에는(커다랗다) 흠집이 하나 있습니다.
  - 2) 나는 일찌기 아버지를(잃다)어머니의 품에서(어렵다)살았 습니다.
  - 3) 어머니는 너무도(걱분하다)났을(들다)그 승냥이놈을 쫓아버죽이 겠다고 나섰습니다.
  - 4) 나는 너무나 (쓰리다)(아프다) 정신을 차릴수 없었습니다.
  - 5) 나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생각하다) 가슴에서 피가 끓어오 립니다.
  - 6) 미제승냥이놈들은 대낮에 날의 정예(편어들어가다) 물건을 (빼앗다)려없는 인민들을 함부로(죽이다) 날강도놈들입니다.
4. 아래의 단어를 뜻이 비슷한 단어로 바꾸고 문장을 지으시오.  
가는곳마다, 어린몸이지만, 품시, 짐으려고하다, 오히려, 무슴, 은갖, 함부로.
5. 다음 단어를 리용하여 문장을 지으시오.  
자애롭다, 허루도, 쓸어버리다, 본성, 예나 지금이다, 겨우, 알려지다.
  6. 다음 문장을 읽고 죄우지오.  
1) 미제국주의는 세계인민들의 쉼처는 투쟁대상입니다.  
2)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국제현명이며 현대식민주주의의 아성이며 전세계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수이다.  
3)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인민들에게 독립을 선사할수 없다.  
4) 제국주의의 본성은 변할수 없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이다.



5) 피알박씨님들은 오직 투쟁에 의해서만 자기자신을 해방할 수 있다.

6)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

7)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후 이 20여년동안 미제가 일으킨 침략과 전쟁의 물결이 라오르지 않은 달이란 하루도 없다.

8) 미제국주의야말로 력사상 가장 흉악하고 파멸치한 탁랄자이다.

9)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제국주의의 무복인 미제국주의에 공격을 집중하는것이 필요하다.

### 제 9 과

### 답요에 잇든 010171

우리 인민의 정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부모형제들을 원수들에게 빼앗기고 빨찌산대오에 들어온 나머지 전사들을 친어버이와 같이 사랑하여주시려고 키워주시였습니다.

1939년 가을, 안도현 어느 숲속에서 부대가 숙영하던 때의 일입니다.

전령병들은 원수님이 계실 천막을 치고 그이께서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숙영하는 여러 부대들을 돌아보시러 나가신 원수님께서서는 밤이 꽤 깊었으나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님이 계시지 않는 천막안은 텅 빈것만 같았습니다.

《왜 안 오실가?》

《이제 돌아오실거야!》

《또 먼저번처럼 현대지휘부에서 주무시면 어찌나?》

전령병들은 원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천막을 들락날락하였습니다.

《그럼 어디 계시는지 내가 알아보마》하고 한 전령병이 성급히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둑컴컴한 수림속은 잠든듯이 고요하였습니다. 유격대원들은 여기저기 에 피위놓은 불무지 곁에서 모두 곤히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든 대원들이 깨여날까 두려워서 발자국소리를 죽이며 수림속을 걸어왔습니다.

가실만한곳을 다 찾아보았으나 원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사이에 원수님께서 천막으로 돌아오시지 않았을가 하여 그는 다시 천막쪽으로 발길을 돌리었습니다.

늦은 가을, 북방의 깊은 숲속의 밤날씨는 소름이 끼칠만큼 몹시 찌춥니다. 대원들은 땅에 떨어진 나무잎들을 훑어모아 이불삼아 덮고 잠들고 있었습니다. 전령병동무는 잠든 동무들의 사이를 조심조심 걸으며 맞은편 수림속으로 갔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허리를 굽히고 흠어진 나무잎들을 모으시며 잠든 대원들을 덮어주고 계시는 원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포를 가져오시오.》 원수님은 곁에 서있는 다른 전령병에게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담요는 ... 사령관동지의 것밖에 없었습니다.》 전령병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천막이면 충분하오. 이 동무는 감기에 걸렸으니 든든히 덮어줘야겠소. 어서 가져오시오.》



인자하시고도 엄격하신 원수님의 말씀에 못이겨 전  
평명은 더는 아무말도 못하고 사형부쪽으로 걸어갔  
습니다.

다시 허리를 굽히시고 나무잎을 모으시는 원수님의  
모습이 불무지의 불빛속에 서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  
습니다.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잠든 대원들의 얼굴을 들여다  
보시며 빙긋이 웃으시었습니다.

대원들에 대한 원수님의 이 깊고 넓은 사랑과 배려  
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잠든 대원들을 한명한명 돌아보시며 찬 이슬을 띠  
아주시기 위해 흘려진 나무잎들을 쓸어모으고 계시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모습은 오늘날도 우리들의  
가슴속에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태양보다 뜨겁고 바다보다 깊은  
어버이 수령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  
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서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자라  
나는 우리들은 끝없이 행복합니다.

단 어

- |      |              |
|------|--------------|
| 담요   | 나어리다(나이+어리다) |
| 깃털다  | 전사           |
| 무모   | 어버이          |
| 형제   | —와(파)같이      |
| 월추   | 키워주다         |
| 빼앗기다 | (크다—키우다)     |
| 들어오다 | 쑤            |

- |             |          |
|-------------|----------|
| 부대          | 고요하다     |
| 숙영          | 여기저기     |
| 숙영하다        | 피우다(물을~) |
| 숙영지         | 물무지      |
| 일           | 결        |
| 전령명         | 곤하다      |
| 계시다(존)—있다   | 곤히       |
| 전막          | 깨다       |
| 치다          | 깨어나다     |
| 돌아오다        | 두렵다      |
| 기다리다        | 발자국소리    |
| 돌아보다        | 그사이에     |
| 나가다         | 발길(발걸)   |
| 밤           | 틀리다      |
| 괴(부)        | 늦다       |
| 깊다          | 늦은 가을    |
| 안           | 북망       |
| 왜           | 족        |
| 이제          | 소름       |
| 먼저          | 끼치다      |
| 덤비다         | 몸시       |
| 런데          | 차다(날씨가~) |
| 지휘부         | 떨어지다     |
| 주무시다        | 나무잎      |
| 어찌나?        | 굽다       |
| (어떻게 하겠는가?) | 굽어놓다     |
| 들락달락하다      | 이불삼아     |
| 그림=그러면      | 잡들다      |
| 성급하다        | 툼다       |
| 뛰어나가다       | 조심조심     |
| 어둑컴컴하다      | 맞은편      |
| 수립          | 허리       |
| 잡들다         | 굽다       |

굵히다  
 풀어지다  
 포습  
 포포  
 가져오다  
 나적이  
 흥분하다  
 사령관  
 동지  
 감기에 걸리다  
 든든하다  
 든든히  
 인자하다  
 엄격하다  
 말쑤(준)←말  
 못이나다(못니기다)  
 ~에 못이겨  
 조용하다  
 조용히

불빛  
 음척이다  
 틀어다모다  
 대원  
 빙긋이  
 어찌  
 함명  
 표현하다  
 이슬  
 막다  
 쓸다  
 쓸어뽀다  
 별  
 태양  
 자애롭다  
 마음껏  
 자라다  
 중적하다  
 끈없이

단어만들기

△민저면, 지남면, 이면, 여러면, 한면.  
 △진령병, 련락병, 포병, 땅크병.  
 △지휘부, 사령부, 연대부, 중대부.  
 △침막쪽, 동쪽, 남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맛은편, 진니편, 저편  
 △북방, 남방, 동방, 서방  
 △가음껏, 힘껏, 열성껏, 능력껏, 정성껏.  
 △돌아오다, 돌아보다.  
 △틀라달락하다, 모일락말락하다, 틀릴락말락하다.

△침막을 치다.  
 △람이 깊다.  
 △잡든듯이 고요하다.  
 △말자꾸소리를 죽이다.  
 △말걸을 물리다.  
 △소름이 끼치다.  
 △감기(병)에 걸리다.  
 △아무말도 못하다.  
 △말로 다 표현할수 없다.

회 화

○동무는 어디에서 생활합니까?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동무의 기숙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에서 멀지않은 곳에 있습니다.  
 ○동무는 몇층에 있습니까?  
 -3층에 있습니다.  
 ○동무는 몇호실에 있습니까?  
 -315호실에 있습니다.  
 ○방산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까?  
 -침대, 책상, 걸상, 책상, 책장, 옷장, 이물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물  
 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아침체조를 합니다.  
 -치솔로 이를 닦습니다.  
 -세수를 합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씻습니다.  
 -빗으로 머리를 빗습니다.  
 -구두를 닦습니다.  
 -방안의 먼지를 털고 청소를 합니다.



○식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식당은 기숙사에 붙어 있습니다.

○동무는 어떤 준비를 하고 학교에 옵니까?

—저는 교과서와 학습장을 책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은 다음 모자를 쓰고 학교에 옵니다.

○학교에서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책가방을 열고 책과 학습장을 꺼내어 책장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결상에 앉아서 신문도 보고 복습도 합니다.

우리는 저녁마다 배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합니다.

○일요일은 어떻게 지냅니까?

—일요일에는 기숙사에서 숙제와 복습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저녁에는 영화도 봅니다.

### 문 법

1) -나(은)나, 이나

동 사 } +나(은)나  
형용사 }

명 사 } +이나  
수 사 }  
대명사 }

보았(다) + 으나 → 보았으나.

읽었(다) + 으나 → 읽었으나.

불다 + 으나 → 불으나.

푸르다 + 나 → 푸르나.

바다 이나, 산 이나.

2) -느지 않다(모르다)

동사 + 는지 않다(모르다)

어디에 가(다)느지 않다.

어디에 갔(다)느지 않다.

무엇을 읽(다)느지 않다.

무엇을 읽었(다)느지 않다.

인지 않다(모르다)

명 사 } +인지 않다(모르다)  
대명사 }

누가 천리마기수인지 알다.

그가 누구인지 알다.

3) -ㄴ(은)ㄴ(은)뜻이

—분뜻이, 읽은뜻이 (과거)

—보는뜻이, 읽는뜻이 (현재)

—물뜻이, 읽을뜻이 (미래)

4) -ㄹ(을)가 하며 동사 + ㄹ(을)가 하여

—비가 올가 하여 비옷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김동부가 도서관에 있을가하여 나는 그리로 갔다.

5) 어찌...겠는가

—대원들에게 대한 원수님의 이 깊고 넓은 사랑과 배려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학생들에게 대한 원수님의 육친적사랑과 배려를 어찌 다 말할수 있겠는가!

6) 소리바꿈

《H》→《O》, 《U》

덥다	더우니
덥네	더우면
덥고	더워서
덥습니다	더웠다
덥지 않다	
뜯다	뜯우니
뜯네	뜯우면
뜯고	뜯어서
뜯습니다	뜯우시오
뜯지 않다	뜯았다

※ 춥다, 썩다, 어렵다, 풀다, 콧다, 밟다, 아픔담다, 즐겁다, 무섭다.

7) 의문대명사

구분	의문 대명사	례	비 고
사람	누구(누) 아무	누구 <u>입니다</u> ? 누가 <u>옳</u> 니까? 아무도 <u>없</u> 습니까?	누구나 아무나
물건	무엇 어느(것) 아무(것) 무슨 웬	무엇 <u>입니다</u> ? 어느 <u>것</u> 입니까? 아무 <u>것</u> 도 <u>없</u> 습니까? 무슨 <u>일</u> 입니까? 웬 <u>일</u> 입니까?	무엇이나 어느 <u>것</u> 이나 아무 <u>것</u> 이나 — —
수량	얼마 몇	얼마 <u>입니다</u> ? 몇 <u>입니까</u> ?	얼마나 몇이나
장소	어디	어디 <u>입니다</u> ?	어디나
시간	언제	언제 <u>잠</u> 니까?	언제나

련 습

-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이 일은 언제 어디에서 있는 일입니까?
  -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부모를 원추들에게 빼앗기고 유격대에 들어온 나 어떤 전사들을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 질령병들이 침막을 쳐놓고 기다릴때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어디에 가셨습니까?
  -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왜 모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까?
  - 김일성원수님께서 모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실때 질령병은 왜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모포를 누구에게 돌려 주셨습니까?
  - 대원들에게 들려지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하여 말하여 보시오.
- 다음 단어들의 반대말을 쓰시오.

- 돌아오다 (나아) 어리다  
 다르다 (견막을) 치다  
 흥분하다 잠이 들다  
 행복하다 (불을) 피우다  
 늦은(가을) (말자극소리를) 죽이다  
 곱히다(허리결)

- 다음 단어들과 뜻이 비슷한 단어를 쓰시오.
  - 성급히 나직히 말하다
  - 결 고요하다
  - 두려워하다 끈히 잠들다
  - 곱시 사이

- 다음의 단어들로 문장을 지으시오.
  - 것들다 엄격하다
  - 곱시 일차하다
  - 성급히 총격하다
  - 나직이 행복하다

- 다음의 토들로 문장을 지으시오.
  - 으나 —나(으나)
  - 나듯이 —만큼 —만
  - 만큼 —까지 —아(어, 어)서

- 본문에서 아래의 뜻을 가진 토들을 찾으시오.
  - 목적 대립
  - 약속 의문
  - 희망



풍년 가을

뜨락또르로 밭을 갈고 기계로 농사짓는 협동농장에  
가들이 왔다.

올해에는 풍년이 들었다.

농장원들이 땀흘려 부지런히 가꾼 곡식들과 파실들  
이 들에도 잔에도 푸르익었다.

끝없이 넓은 농장벌에 누렇게 익은 벼이삭들이 파  
도처럼 넘실거린다.

산마다에는 빨갛게 익은 파실들이 주렁주렁 열렸다.  
풍년맞은 농장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흥겨운 마음으  
로 가을길을 다그친다.

벼단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활곡장으로 분주히  
달린다. 그리고 가을을 끝낸 논밭에서는 뜨락또르  
들이 줄을 지어 땅을 갈아엎는다.

활곡기는 쉬임없이 돌아가고 기계로 벼를 낚는 농  
장원들의 열굴마다에는 끝없는 기쁨이 어리어있다.

풍년을 맞이한 협동마을에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그칠 줄 모른다.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에서는 일하면 일할수록 새힘  
이 더욱 솟는다.

어제날에는 악독한 일제놈들에게 착취와 압박을 당  
하던 이 나라 농민들에게 누가 오늘날의 이 풍년, 이  
행복을 마련하여 주었는가?

《어머니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마련하여 주셨지  
요.》 농장원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한다.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일제를 때려부  
시고 우리 나라를 해방시킨 후에 맡맡이하는 농민들에  
게 땅을 주셨다. 농장원들은 땅을 받던 날 너무나 감  
격하여 흙을 그리워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땅을 주신 어머니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 친해빈 감사를 드리고 또 드렸다.

그 기쁨안고 우리 나라 농민들은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는 일에 달려붙었다.

그들은 그이께서 밝혀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  
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길을 따라 사상혁명, 문화  
혁명,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간다.

로동계급은 자기들이 만든 크고 작은 현대적 농기  
계들과 갖가지 농약들이며 화학비료들을 넉넉히 보태  
주고 있다.

지금은 호미와 보습대신에 트랙토르로 밭을 갈고  
등짐과 지게 대신에 자동차로 벼단을 나른다.

가없이 넓은 논밭에는 관개수가 흘러넘친다. 옛날  
에는 하늘만 쳐다보며 드레질하던 농민들이 오늘날은  
양수기로 물을 끌어올린다. 그리고 여름대 허리를 펴  
보지 못하던 그들이 약으로 짐을 죽이고 있다.

오랜 세월 오막살이에서 눈물겨운 생활을 하던 농  
민들이 나라에서 거저 지어준 문화주택에서 행복의  
웃음을 피운다.

마을마다에 무상으로 세워진 유치원, 탁아소, 학교들  
에서는 농민들의 아들딸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공부하  
며 자란다. 무상치로까지 받게 되니 참말 농민들에게  
는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게 되었다.

더우기 농민들은 돈한푼 들이지 않고 휴양까지 하며 농업현물세마저 없애져 여념세금을 모르고 지낸다. 농촌의 변화는 이것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달리고 또 달리면서 혁명화, 로동계급화해 나아간다.

자연도 변하고 사람들도 달라졌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은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다.

이곳에 가을이 오면 한나라 땅인 남녕에도 가을이 온다.

그러나 해마다 북만부에는 풍년이 드는데 어찌하여 남조선에서는 풍년을 면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랍탈과 학살밖에 모르는 미제놈들과 지주놈들 때문이다.

남조선의 논밭은 메마를대로 메말랐고 산과 들은 거칠어질대로 거칠어졌다.

조금만 가을에도 곡식은 타죽고 며칠만 비가 와도 논밭은 큰물에 잠긴다.

남조선 농민들은 여름에 피눈물 흘리며 지은 약간의 곡식마저 가을이면 놈들에게 모조리 빼앗기고 또 다시 굶주림에 시달린다.

헐벗고 굶주리는 그들의 생활은 참으로 비참하다.

그러나 남조선 농민들은 더 이상 그런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해마다 풍년맞는 공화국 북만부를 바라보면서 투쟁의 길에 나서고 있다.

조선인민은 기어코 이 땅우에서 미제를 몰아내고야 말 것이다. 남녕땅 형제들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에서 풍년을 맞이할 그날을 만드시 맞게 될 것이다.

단 어

갓가지	어제밭
농사	약독하다
짓다	고역
협동농장	지랄리다
올해	이렇게
틀다(풍년이~)	흙
부지런히	그리쨌다
가꾸다	진백면
무르익다	감사
끝없다	달라붙다
누웠다	밝혀주다
이삭	빌다
넘설거리다	밀고나가다
주렁지다	수없이(무)
열다(열매가~)	현대적
재벽	농기계
홍결다	약
다그치다	화학
벼단	비료
가득히(무)	너더히(무)
탈곡장	호미
분주히(무)	보습
출	등짐
탈곡기	지게
취임없이(무)	대신
돌다	나르다
훑다	쳐다보다
어리다(기쁨이~)	드레질
그치다	양수기
~리줄 알다(모르다)	꿀어올리다
더우(무)	여름더



허리

피다

세월

으막살이

눈물겹다

거저

문화주택

웃음꽃

잠말

아무런

근심

휴양

농업현물제

세금

지내다

변화

혁명화

로동계급화

자연

달라지다

남반부

흉년

면하다

략탈(~하다)

학살(~하다)

메마르다

거칠다

조금

가끔

타다

타죽다

머칠

큰물

잡기다-잡그다

피눈물

약간

헐벗다

비참하다

무상

이상

그대로

치로

손길

가없이

아득하다

넘치다

△뼈이삭, 밀이삭, 강냉이이삭.

△오라살이, 머슴살이, 살림살이.

△혁명화, 로동계급화, 전기화,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화학화,

자동화.

△여름내, 겨우내,

△담뱃, 동뱃.

아침녘, 저녁녘, 새벽녘

△넋실거리다, 출렁거리다, 반짝거리다, 반짝거리다, 켈럭거리다.

△실고가가, 밧고가가, 들고가가, 끌고가가, 끌고가가, 메고가가.

△달라지다, 밝아지다, 없애지다, 떨어지다, 떨어지다.

표 현

풍년이 들다

일에 달라붙다

파도처럼 넘실거리다

웃음꽃을 피우다

그칠줄 모르다

피눈물 흘리다

감사를 드리다

굶주림에 시달리다

기쁨을 안다

회 화

—머리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오후에 리팔판에 가려합니다.

—사홀에 함면색 면도를 합니다.

—머리를 높이 깎아주십시오.

—면도만 하겠습니다.

X

X

X

—관매원동무! 안녕하십니까?

—학습장 네권과 양말 두켢레를 사겠습니다.

—값이 얼마입니까?

—비닐신 39문을 좀 보여주세요.

X

X

X

—의사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몸이 좀 아파서 보이려

왔습니다

—저는 열이 나면서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배가 아픕니다.

—주사를 맞습니다.

—알약과 가루약을 먹고 물약을 마십니다.





- 5) 해방전에 농민들은 왜 하를만 쳐다보았습니까?
- 6) 해방전에 농민들에게는 어떤 근심걱정이 있었습니까?
- 7) 농장원들의 행부한 생활에 대하여 말하시오.
- 8) 남조선 농촌에서는 왜 흉년을 면하지 못했습니까?
- 9) 남조선농민들은 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까?

2. 빈자리에 알맞는 단어를 써넣으시오.

- 1) 기계를로 농사짓는 ...에 가을이 왔다.
- 2) 풍년맞은 농장원들의 얼굴마다에는 끝없는 ... 어리여있다.
- 3) 가없이 ... 논밭에는 관개수가 넘친다.
- 4) 남조선 농민들은 미제놈들에게 ...와 ...을 당하고있다.
- 5) 조선인민은 ... 이땅우에서 미제를 몰아내고야 말것이다.

3. 다음 단어를 뜻이 비슷한 단어로 바꾸어넣으시오.

- 1) 기계로 농사짓는 협동별에 가을이 왔다.
- 2) 농장원들은 부지런히 곡식을 가꾼다.
- 3) 농장원들은 홍겨운 마음으로 가을김이를 다그친다.
- 4) 탈곡기는 쉬임없이 돌아간다.
- 5) 항일유격대는 일제를 때려부셨다.
- 6) 로동계급은 갓가지 기계들과 농약들을 보내주고있다.
- 7) 해방전에 농민들은 어름내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일했다.
- 8) 남조선에서는 조금만 가을에도 곡식들이 라죽는다.
- 9) 남조선농민들은 피눈물 흘리며 지은 곡식을 미제놈들에게

포조리 빼앗긴다.

10) 남조선농민들은 공화국무반부를 바라보면서 찌우고있다.

4. 빈자리에 토를 써넣으시오.

- 1) 우리 나라 농촌...해마다 풍년이 든다.
- 2) 우리 나라 농촌...해마다 풍년을 맞이한다.
- 3) 산...빨강게 익은 과실들이 가득히 열렸다.
- 4) 벼단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탈곡장 ... 달린다.
- 5) 농민들은 기계...밭을 갈고 야 ...김을 주인다.
- 6) 나는 밤이 가... 모르고 공부를 하였다.
- 7) 우리는 자력개생의 혁명정신... 공부하였다.

- 8)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나라를 튼튼...
  - 9) 우리인민은 반드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
5. 다음 괄호안의 동사를 변화시켜 문장을 만드시오.
- 1) 농장별에서는 누렇게(익다)벼이삭들이 파도처럼 넘실거린다.
  - 2) 자동차는 벼단을(나르다) 트랙포르는 말을 간다.
  - 3) 농장원들은 땅을(만다) 날 너무나(감격하다) 눈물을 흘렸다.
  - 4) 아이들은 마음껏(뛰놀다) 튼튼히 자란다.
  - 5) 공화국무반부에는 풍년이(들다) 남조선에서는 풍년을 면하지 못한다.
6. 다음 토를 가지고 문장을 지으시오.
- 1) -리(을)출 알다(모르다)      5) - (기)때문에
  - 2) -던...르 수록                    6) -고야 말것이다.
  - 3) -지 못하다                        7) -면서
  - 4) -게 되다                            8) -지만

## 조국의 바다

한없이 맑고 푸른 조국의 바다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을 말해주듯 오늘도 세차게 출렁이고 있다.

우리의 바다는 아름다울뿐만 아니라 투쟁의 바다, 영웅의 바다가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있는 아름다운 나라이다.

동해는 바다물이 아주 맑고 푸르며 깊다. 해안선은 굴곡이 심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해금강과 원산의 중도원을 비롯하여 아름답고 경치좋은 명승지들과 휴양소들이 많이 있다.

서해와 남해는 동해와 달리 바다물이 맑고 반도와 섬, 만들이 많으며 밀물과 썰물의 차이도 심하다.

바다에는. 명태, 고등어, 가재미를 비롯하여 많은 물고기와 바다풀, 온갖 보물들이 가득차 있다.

조선로동당과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수산일군들과 어로공들은 현대적인 고기배와 그물로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아서 인민들에게 보내주고 있다. 우리의 청년들은 이 바다에서 자기의 희망과 행복을 찾으으며 보람찬 생활을 꽃피우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날조선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놈들을 등에 업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바다의 자원들을 포조리 빼앗아가면서 제세상처럼 날뛰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참을수 없다.

우리 인민은 온갖 보화가 가득찬 우리의 맑고 푸른 조국의 바다를 지켜 응감히 싸웠으며 원수들의 침공을 그때마다 물리쳐버렸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영웅적조선인민군 해병들과 해안포병들은 조국의 바다를 지켜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웠다.

조선인민군 해군 어뢰정대는 미제침략군의 순양함을 동해의 깊은 물속에 처박아 놓았다.

이것은 세계의 어느 해전력사에도 있어본 일이 없는 커다란 승리로써 조선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온세상에 떨친것이다.

1950년 9월,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전쟁에서 제놈들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수많은 함선들과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인천앞바다로 밀려들었다.

조국의 바다를 지켜선 월미도는 적들의 야수적폭력과 함포사격으로 온통 불바다로 되었다.

조선인민군 해안포중대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께 목숨으로 충성을 다할것을 맹세하고 애중적영웅주의와 희생성을 발휘하여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조국의 섬을 지켜 응감히 싸웠다. 월미도의 용사들이 흘린 피와 그들이 남긴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은 오늘 우리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살아 고동치고 있다.

전후에도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우리 조국의 바다에 침범하여 계속되는 침략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의 바다를 철벽



으로 지켜선 우리의 붉은해병들과 해안포병들에 의하여  
 침략자들은 그때마다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 56호도  
 침략의 기회를 노리며 기여들었던 적 경호함 56호도  
 일당백의 우리 해안포병들에 의하여 단발에 골속곳이  
 처박혔다.

신성한 우리 나라의 영해에 갇이 침입하여 악랄하  
 게 적대행위와 정탐활동을 감행하던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었는가?

1968년 1월 23일, 수명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기에 준비된 우리의 해병들은 대담하고 영웅적인  
 행동으로 적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였다.  
 미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침략행동은 날장  
 도적인 해적행위이며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행위이며  
 조선에서 새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계  
 획적인 책동이다.

우리의 단호한 자위적조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을 미제국주의자  
 들과의 투쟁에 힘차게 고무하였다.

조선인민의 빛나는 승리는 침략자의 발포가 어떻게  
 되며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자위로선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수령의 전사,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된  
 우리의 해병들은 맑고 푸른 조국의 바다를 어제도 오  
 늘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어떤 원수가 감히 덤벼들더라도 그놈들은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이렇듯 조국의 바다는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가득차있는 자랑스러운 바다이다.  
 우리는 우리 조국의 바다를 무한히 사랑하며 자랑  
 한다.

단 어

초국	명태
함없이	가제미
행송	바다풀
~씩	보물
~주의	가득자다
기상	조선로동당
세척개	현명하다
출렁이다	평도
잠면	의하여
바다불	수산
아주	일군
해안선	어로공
굴곡	현대적
심하다	고기배
비롯하여	그물
정지	잡다
정치 좋다	청년
휴양소	보람차다
달리<-다르다	생활
알다	꽃피우다
반도	남조선
섬	등
만	업다
밀물	근국주의자
썰물	차월
차이	날뛰다

지키다  
 흉감히  
 싸우다  
 침공  
 위대하다  
 조선인민군  
 해병  
 해안포병  
 불멸  
 위훈  
 세우다  
 어뢰정  
 어뢰정대  
 침략군  
 순양함  
 치박다  
 해전  
 해진력사  
 승리  
 기개  
 떨치다  
 패배  
 만회하다  
 함선  
 밀려들다  
 폭격  
 사격  
 함포사격  
 은통  
 불마다  
 중대  
 최고사령관

중성  
 중성섬  
 다하다  
 맹세하다  
 대중적  
 회생  
 회생성  
 말휘하다  
 마지막  
 남다-남기다  
 용사  
 무함하다  
 심장  
 길이  
 전후  
 정전  
 협정  
 란폭하다  
 유린하다  
 침범하다  
 계속되다  
 평등  
 철벽  
 응당하다  
 정벌  
 일당백  
 기회  
 노리다  
 기여들다  
 단말  
 신성하다  
 령해

악랄하다  
 적대행위  
 정탐(~활동)  
 간첩선  
 운명  
 또  
 위하다  
 준비되다  
 대답하다  
 몽땅  
 나포하다  
 날강도  
 해적  
 주권  
 일으키다  
 계획적  
 채등  
 단호하다  
 자위  
 자위적  
 자위로선  
 자위조치  
 세계  
 지지  
 불려일으키다  
 고무하다  
 말로  
 제시하다  
 열마나  
 정당하다  
 다시금  
 똑똑히  
 골진히  
 감히  
 덤벼들다  
 멸망  
 운명  
 면하다  
 이렇듯  
 자랑스럽다

단어만들기

- △ 휴양소, 야생소, 료양소, 정양소.
- △ 중성섬, 애국섬.
- △ 말강도, 날도적.
- △ 팀벼들다(팀비다+들다), 밀려들다, 기여들다, 대들다, 접어들다.
- △ 불려일으키다. (부르다+일으키다).

표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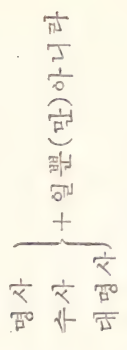
- △ 생활을 꽃피우다.
- △ 행복을 누리다.



야 한다.

—조선전쟁에서의 미제의 패배는 조선인민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다시금 뚜렷히 보여주었다.

5) -리(을)뿐(만)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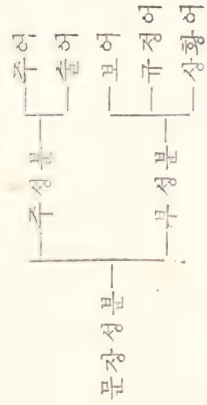


—그는 공부를 잘할뿐만아니라 체육도 잘한다.

—그는 단어를 외웠을뿐만아니라 본문까지 다 외웠다.

—그는 훌륭한 군사지휘관일뿐만아니라 정치일군이기도하다.

6) 문장의 주성분과 부성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영웅적조선인민군 해병들과 해안포병들은 조국의 바다를 지켜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웠다.

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상황어)

(규정어)

② 영웅적조선인민군 해병들과 해안포병들은 (주어)

③ 조국의 바다를 지켜 (상황어)

(규정어)

(보어)

④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상황어)

(보어)

(규정어)

⑤ 불멸의 위훈을 (보어)

(규정어)

⑥ 세웠다 (술어)

△ 위훈을 세우다.

△ 영웅적기개를 떨치다.

△ 무릅으로 충성을 다하다.

△ 한사람이 남을때까지 싸우다.

△ 기회를 노리다.

△ ...를(을) 위해서라면

△ 멸망의 운명을 면치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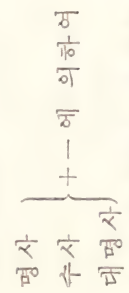
### 문법

1) -와(과)달리



—저해와 남해는 동해와 달리 바다물이 얇고 반도와 섬, 만들이 많다.

2) -에 의하여



—김일성원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위업은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김일성총합대학은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창립되었다.

3) -더라도; 동사, 형용사+더라도

—이라도; 명사, 수사, 대명사+이라도

—어떤 원수가 텀버들더라도 그놈들은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억척만변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일념으로 강도 일제와 싸워서 승리하였다.

—우리는 어떤 강적이라도 능히 물리칠수 있도록 튼튼한 준비를 갖추고있다.

4) 얼마나...-는가(인가를)

—미제는 조선인민이 얼마나 용감한 인민인가를 뚜렷히 알아

1. 동무들아 준비하라 손에다 든 무장  
 제국주의 침략자를 때려부시고  
 용진용진 나아가가세 용감스럽게  
 억척만민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나아가자 관가리 싸움에 나아가자 유격진으로  
 손에 든 무장을 튼튼히 잡고 나갈 때에  
 용진용진 나아가가세 용감스럽게  
 억척만민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2. 우리 대장 사격구령 한번 휘칠때  
 진대동무 겨냥총을 받들어쥐고서  
 악악소리 웨치면서 불사격바람에  
 적의 군사 정신없이 막 쓰러진다  
 나아가자 관가리 싸움에 나아가자 유격진으로  
 손에 든 무장을 튼튼히 잡고 나갈 때에  
 용진용진 나아가가세 용감스럽게  
 억척만민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3. 기세 맞춰 승리의 함성 드높이  
 진대동무 무장 뺏아 들러메고서  
 승진고에 걸음 맞춰 노래부르며  
 어깨춤을 모두 추며 돌아오누나  
 나아가자 관가리 싸움에 나아가자 유격진으로  
 손에 든 무장을 튼튼히 잡고 나갈 때에  
 용진용진 나아가가세 용감스럽게  
 억척만민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4. 썩어가는 제국주의 푸드러부시고  
 무너진 그 터전에 새터란 땅고  
 로농병의 대표정권 건설하고서  
 붉은기를 휘날리며 나아를 가자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1) 조선의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2) 조선의 동해에 대하여 말하십시오.  
 3) 조선의 서해와 남해는 어떻습니까?  
 4) 우리 나라의 수산업에 대하여 말하십시오.  
 5)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는 남조선에서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6) 월미도의 해안포병들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7) 전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떻게 침략행동을 감행하였습니까?  
 8)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침입사건은 세계인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2. 괄호안에 있는 단어들에 알맞는 토를 붙이시오.  
 1) 조선인민들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나포하다)극방  
 에서의 자위로신의 정당성을 실증하였다.  
 2) 우리의 수산일군들과 어로공들은 현대적인 고기배와 그물로  
 수많은 물고기들을(잡다)인민들에게 보내주고있다.  
 3)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 비참한 생  
 활행편에 처하여있다.  
 4) 조국의 바다는 우리의 바다를 철벽으로 (지키다) 수령의 전사  
 들로하여 굳건히 지켜지고있다.  
 5) 월미도의 용사들은 (미제국주의자들) 치렬한 전투에서 대중적  
 영웅주의와 고상한 희생성을 발휘하였다.  
 3. 다음 단어와 뜻이 비슷한 단어들을 찾으시오.  
 물리치다                    세차게  
 텨버들다                    먼지 못하다  
 4. 다음의 단어와 토를로 문장을 지으시오.  
 보람차다                    -와(과)달리  
 불려일으키다                -가를 보여주라  
 텨버들다                    -더라도  
 기여들다                    -로 되어있다



나가자 판가리 싸움에 나가자 유격적으로  
손에 든 무장을 튼튼히 잡고 나갈 때에  
흥진용진 나아가가제 흥감스럽게  
여침관면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 제 12 과

### 평 양

평양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수도이다.

예로부터 평양은 산 좋고 물 맑은 천하제일강산이  
라고 부른다.

민족의 찬란한 문화와 슬기로운 역사를 싣고 인민  
의 강—대동강의 푸른물이 모란봉을 감돌아 수도의  
한복판을 흘러간다.

1500년의 평양의 력사는 미제의 해적선 《샤만호》를  
불살라 버린것을 비롯하여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친 우  
리 인민의 투쟁의 력사이며 승리의 력사이다.

만수대우에는 천리마동상이 하늘높이 솟아 있다. 말  
갈기를 날리며 나래 펴고 푸른 하늘 높이 나래치는  
천리마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을 상징한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탄생  
하신 유서깊은 만경대도 평양에 있다.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이곳에서 혁명의 뿌리를 키우  
시였다. 만경대는 4천만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다.

수도 평양에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  
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  
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항일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당—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  
부가 자리잡고 있다.

혁명의 수도인 평양은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  
화의 중심지이다.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  
의 현명한 로선과 정책이 여기에서 흘러나온다.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미제날강도들은 우리의 수도  
평양을 완전한 재더미로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미  
제를 쳐부시고 승리하였다.

승리한 영웅적수도 근로자들은 김일성원수님이 또  
화속에서 마련하신 위대한 설계도를 펼쳐들고 새로운  
전투장으로 달려나갔다.

영웅적로동계급은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밑  
에 수도복구건설에서 세창사람들을 불러우는 유명한  
《평양속도》를 창조하였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불과 몇년동안에 재더미만  
남았던 평양을 웅장하고 아름다운 현대적인 도시로  
건설하였다.

오늘 평양에는 웅장하고 현대적인 공장기업소들이  
곳곳에 들어섰다.

여기에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필요되는 크고  
작은 기계설비들을 비롯하여 많은것을 생산해 내고 있  
다. 나라의 동맥을 주름잡아 달리는 《붉은기》호 전기  
기관차도 여기에서 나온다.

평양은 현대적인 공업도시일뿐만이 아니라 과학과 문

화의 도시이다.

해방전에는 하나의 대학도 없던 여기에 오늘은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웅장한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학들이 일어섰다.

여기에서 과거 일제때 억눌리고 짓밟혔던 수많은 노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선진과학과 기술을 마음껏 배우고 있다.

자라나는 꽃봉오리들이 마음껏 배우며 즐기는 학생소년공전은 또 얼마나 웅장한가! 어린이들은 지체체를 갖춘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부림없이 자라나고 있다.

평양에는 웅장하고 화려한 평양대극장을 비롯하여 많은 극장과 영화관이 있다. 동물원과 식물원이 있는 대성산유원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문화휴식터들에서 근로자들이 휴식의 한때를 즐긴다.

즐비하게 들어선 아담한 다층문화주택의 햇빛 밝은 창가에서 근로자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온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김일성원수님의 끝없는 배려와 뜨거운 사랑으로 누구나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아들 딸 공부시킬 걱정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 행복, 이 기쁨을 생각할때 눈보라 휘몰아치는 백두의 밀림속에서 15년이람 지나긴 세월 일제와 싸워 나라를 찾아주신 김일성원수님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한낱한시에 해방된 남조선인민들은 기쁨과 행복대신 미제놈들의 착취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항상 김일성원수님이 계시는 영웅도시 평양을 희망의 등대로 우러러 보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원수님의 넓고 따사로운 품에 안길 그날을 위하여 미제와 그의 주구 박정회도당을 반대하는 판가리싸움에 일떠섰다.

남조선인민들의 이 정의로운 투쟁은 누구도 막을수 없다.

그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우리 조국은 통일되고야 말것이다.

또한 평양은 국제적인 도시이다. 대외적지위가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외국의 벗들이 평양을 찾아오고 있다. 친선의 정을 안고 오는 외국의 벗들은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위대성과 그 생활력을 진실로 느끼게 될것이다.

사회주의수도, 혁명의수도, 붉은수도인 영웅도시 평양은 천리마조선과 함께 영원히 번영할것이다.

단 어

수도	평양	절제	백진백승
천하	제일강산	해국가	강철
제일강산	불가불다	백진백승	혁명
불가불다	북관	강철	국제
북관	외태	혁명	공산주의
외태	불살라퍼리다	국제	평도자
불살라퍼리다	갈기	공산주의	분
갈기	날리다	평도자	항일
날리다	나해	분	있다
나해	짜다	항일	이어받다
짜다	상징하다	있다	말스-레닌주의
상징하다	뿌리	이어받다	
뿌리		말스-레닌주의	



후비대 통일되다  
대외적 지위  
나날이 높아지다  
몹쓸 친선  
정위대성  
생활력  
진설로  
사회주의  
영원히  
변명하다

판가리싸움  
정의롭다  
주름잡다  
전기  
기관차  
공업  
과학  
갖추다  
봉우리  
꽃봉오리  
공산주의  
소년  
공전  
학생소년공전  
믿음직하다

표 현

기나긴 세월  
희망의 등대  
친선의 정을 안다  
친하게 일강산  
혁명의 뿌리  
채터미로 만들다  
휘황한 설계도  
전쟁의 포화가 멎다  
동맹을 주름잡아 달리다  
부럼없이 자라다  
틀리하게 틀어써다

단어만들기

—술기롭다, 파사롭다, 영예롭다, 정의롭다.  
—말술기, 산술기, 강술기.

불과  
응장하다  
현대적  
기업소  
곳  
틀어잡다  
필요되다  
기계  
설비  
생산하다  
동백  
화려하다  
극장  
평양대극장  
영화관  
유월지  
공원  
즐비하다  
아담하다  
문화주택  
다종문화주택  
해빛  
창가  
웃음소리  
배려  
밀림  
시달리다  
등대  
우러러보다  
주구  
도당  
반대하다  
관가리

중앙  
위원회  
정부  
자리잡다  
정치  
경제  
문화  
중심  
중심지  
주체사상  
구현하다  
혁명하다  
로선  
정책  
흘러나오다  
발강도  
완전하다  
제더미  
취부시다  
포화  
휘황하다  
설계도  
펼치다  
전투장  
달려나간다  
로동계급  
복구  
불레우다<<불라다  
유명하다  
수도  
《평양수도》  
창조하다  
멎다

- 깨꾸리뜨리다, 넘어뜨리다, 깨뜨리다.
- 제티미, 산티미, 거름티미.
- 척부시다, 척터부시다, 깃부시다.
- 들어왔다, 들어서다, 들어차다, 들어가다.
- 주름잡다, 사로잡다, 길어잡다.
- 먹읍적하다, 믿음적하다.

문 법

1) -를(을) 비롯하여

명사 }  
 수사 } +를(을) 비롯하여  
 대명사 }

- 평양에는 현대적설비를 갖춘 웅장한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학들이 있다.
- 우리 나라에는 백두산, 금강산을 비롯하여 이름난 산들이 많다

2) 를(을) 향하여

명사 }  
 수사 } +를(을) 향하여  
 대명사 }

- 대학생들은 과학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줄달음치고있다.
- 그는 월수출의 증가점을 향하여 힘껏 수류탄을 던졌다.
- 백스는 어느덧 만경대를 향하여 달려가고있다.

3) 를(을) 따라, □(음)에 따라  
 명사 + 에 }  
 를(을) } 따라

- 우리는 수령께서 가리키는 길을 따라 앞으로 힘차게 나아간다.
- 달을 따라 번영하는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은 얼마나 좋은가!
- 날이 감에 따라 우리 생활은 더 흥겨워진다.

연습문제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1) 평양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하여 말하십시오.

- 2) 평양의 유구한 력사에 대하여 말하십시오.  
 3) 천리마동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4) 김일성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에 대하여 말하십시오.  
 5) 평양을 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고 합니까?  
 6) 전후시기 평양시의 복구건설과 《평양속도》에 대하여 말하십시오.  
 7) 현대적공업도시로서의 평양에 대하여 말하십시오.  
 8) 과학과 문화의 도시로서의 평양에 대하여 말하십시오.  
 2. 다음의 단어에 여러가지 규정어를 붙이시오.

본보기 <력사> → 슬기로울 력사>

만경대, 로동계급, 건물, 짜음.  
 문화주테, 투쟁.

3. 다음의 빈자리에 알맞는 말을 써넣으시오.

- 1) 산 좋고 물 맑은 평양은 ... 천하제일 장관이라 부른다.
- 2) 수도의 ... 골짜기는 대동강은 찬란한 민족문화와 슬기로울 력사를 ...
- 3) 하늘 높이 ... 천리마동상은 만수대 우에 있습니다.
- 4) 우리 인민의 ... 기상을 ... 천리마는 말갈기 날리며 푸른하늘 ... 솟아 있습니다.
- 5) 미제 날강도들은... 우리의 수도 평양을...제티미로 만들었다.
- 6) 영웅적인 로동계급들은 수도복구건설에서 ...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세상사람들을 ...
- 7) 미제 날강도들의 야수적인...제티미만 남았던 평양이 불과 10년 도... 사이에 오늘날과 같은 웅대하고 아름다운 ... 도시로 진실되었다.
- 8) 평양에서 ... 《붉은기》로 전기기관차는 나라의 동맥을 ... 달립니다.
- 9) 대학들에서는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삼천 과학과 기술을 ...배우고 있다.
- 10) 평양에는 행복의 웃음소리...해빛맑은...다층문화주택들이 가느곳마다...들어섰습니다.
- 11) 영웅도시 평양은 ... 남조선인민들의 ... 등대로 되고있습니다.
- 12) 미제의 식민지군사화정체를 반대하여 ... 남조선인민들은 만드시 ... 조국을 통일하고...



4. 다음의 문장에서 괄호안에 있는 동사, 형용사를 알맞는 형태로 고치시오.

- 1) 찬란한 민족문화와(즐거움다)력사를(실다)인민의 강—대동강이 흐르고있다.
- 2) (푸르다)하늘 높이(날다) 천리마동상은 만수대우에 높이(솟다) 있습니다.
- 3) 유서(깊다) 만경대는 평양에 있습니다.
- 4) 포화속에서(막연하다)철계도를(펼치다, 들다)수도 북구진선에 펼쳐나섰다.
- 5) 세상사람들을(놀라다)유명한 《평양속도》는 영웅적으로동계급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 6) 전쟁의 포화가(빛다)분과 10년 동안에 오늘과 같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현대적인 평양이(건설하다).
- 7) 평양에서(만들다)《붉은기》호 전기기관차는 나라의 동맥을(주름잡다)달립니다.
- 8) 남조선인민들의(정의롭다)투쟁은 그누구도 그어때 힘으로도 막을수 없습니다.
- 9) 우리 인민은 철천지원쭉 미제를 (배리다+무시다)조국을 (통일하다)말것이다.

5. 아래 문장을 몇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누시오.

- 1) 우리 나라 혁명을 가장 끝바른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략과 전술도,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도, 미제를 거꾸러뜨린 타월한 작전도 여기 평양에서 흘러나온다.
- 2)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그들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조국은 통일되고야 말것입니다.
- 3) 외국의 수많은 밋들은 친선의 정을 안고 영웅도시 평양을 찾아오며 그들은 여기에서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느끼게 될것이다.
- 4) 영웅도시 평양에는 유서깊은 만경대가 자리잡고있으며 모란봉을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이 있다.

6. 다음의 단어들로 앞진한 문장을 만드시오.

- 1) 산중다, 물맑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 2) 수도, 한복판, 찬란하다, 민족문화, 슬기롭다, 력사, 실다.

인민위 강 대동강, 흐르다.

- 3) 푸르다, 하늘, 높다, 날다, 천리마, 우리 인민, 영웅적기상, 상징하다.
- 4) 평양, 공화국수도, 우리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중시되.
- 5) 피체발강도,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우리 수도, 평양, 완전히, 재터미, 만들다.
- 6) 전쟁때, 재터미, 되다, 평양, 불과, 10년, 오늘과 같다, 웅장하다, 아름답다, 현대적, 도시, 건설되다.
- 7) 평양, 경제건설, 국방건설, 필요되다, 기계설비, 많다, 만들다, 내다.
- 8) 일제때, 억눌리다, 짓밟히다, 수많은, 노동자, 농민, 아들달, 과학, 높다, 봉우리, 향하다, 마음껏, 배우다, 있다.
- 9) 15년, 기나긴, 세월, 눈코라, 휘몰아치다, 백두밀립수, 일제, 싸우다, 나라, 찾아주다.
- 10) 남조선인민, 미제, 그누구, 박정희도당, 반대하다, 판가리 싸움, 일떠서다.

## 제 13 과

### 조국의 사과

1933년 12월, 일제놈들의 《동기토벌》이 끊임없이 벌어지던 때였습니다.

하루는 유격대원들이 아동단원들에게 잘 익고 먹음직한 사과를 가지고왔습니다.

《장군님이 너희들에게 보내신 선물이다. ...보아라, 이것은 조선사과다!》

유격대원들에게서 이 말을 들은 아동단원들은 사과를 받아쥐고 너무 기뻐서 《김일성장군님만세!》하고 소리높이 외쳤습니다.

어느날,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몸소 유격대원들을 거느리시고 적통치구역에서 원수들의 수송대를 습격하셨습니다.

그런데 놈들에게서 빼앗아낸 물건 가운데는 사과 껍데기도 하나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그중에서 잘 익고 먹음직한 몇알을 골라서 먼저 원수님께 드리었습니다.

사과를 보진 원수님께서는 매우 반가와하시면서 그중의 한알을 손에 드시더니

《이 사과를 조선사과요!... 조선에서는 이런 향기롭고 맛있는 사과가 많이 나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선의 사과는 명산의 하나로 꼽고 맛도 좋다는 것과 새빨간 사과가 주렁지는 가을철의 조국이 매우 아름답다는데 대하여도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 근거지에는 아직 조선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조선의 유명한 사과조차 구경하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소!》

그이는 손에 드셨던 사과를 대원들에게 도로 주시며 많지는 못하지만 아동단원들에게 보내며 맞이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이때 대원들이

《시장하시교 갈증도 나시겠는데 한알이라도 맛보십시오.》라고 아무리 원하였으나 끝내 사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있던 어린이들은 모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어려운 싸움속에서 끼니도 진디시고 시장기와

갈증을 겪으시는 속에서도 그이께서는 근거지에 남아있는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하시었습니다.

조국땅을 모르고 조선사과도 아직 맛보지 못한 어린이들을 생각하시고 이처럼 한알의 사과마저 사양하시었던 것입니다.

그날밤 아동단원들은 사과를 안고 오래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사과를 바라보는 어린이들은 한번도 본 일이 없는 아름다운 조국을 보는것 같았고 그이의 뜨거운 어머니십정이 심장속으로 스며드는듯 하였습니다.

일제놈들에게 짐을 불태우고 부모를 잃은후 의지할 곳이 없어 아홉살때부터 지주집 아이를 보고 다리가 붓도록 말방아를 찼어야 했던 어린이, 그는 원수님의 지극한 사랑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게 된것을 생각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박달나무도 열어터지는 추운겨울에도 자신은 들보지 않으시고 홀웃을 입고 계시면서도 어린이들에게는 홀웃과 이불, 버선과 학슴장까지 빼놓지않고 마련하여 주시는 원수님의 깊고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는 아동단원들은 사과를 안고 새로운 결의를 굳게 굳게 다지었습니다.

장군님의 말씀대로 몸을 튼튼히하고 공부를 잘하여어서 커서 그이의 훌륭한 혁명전사가 되겠다고...

어린이들에 대한 원수님의 바다보다 깊고 태양보다 뜨거운 어머니사랑을 어찌 말이나 글로 다 이야기할 수 있으랴!

이 나라의 한 어린이, 한 고아에 이르기까지 따듯



하게 보살펴주시는 김일성원수님이 계심으로 하여  
 조신의 어린이들은 오늘도 세상에서 부러움없이 행복  
 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단 어

- |            |             |
|------------|-------------|
| 토벌         | 트리다 (른) <주다 |
| <동기토벌>     | 반갑다—만가와하다   |
| 꿈임없이       | 향기롭다        |
| 떨어지다       | 맛           |
| 유격대        | ~보다         |
| 익다         | ~있다         |
| 먹음직하다      | ~좋다         |
| 너—더회       | 평안          |
| 보내다        | 빚           |
| 실물         | 끓다          |
| 보다→보아라(명령) | 재빨리         |
| 발다         | 가을철         |
| 취다         | 근거리         |
| 말아취다       | 밟다          |
| 웨치다        | 밟아보다        |
| 폼소         | 구경하다        |
| 거느리다       | 시창하다        |
| 적          | 갈증          |
| 통치구역       | 아무리         |
| 수송대        | 원하다         |
| 습격하다       | 끝내          |
| 빼앗아내다      | 사양하다        |
| 가운데        | 몽글하다—몽글해지다  |
| 괘짜         | 끼니          |
| 알          | 진되다         |
| 교르다        | 시창기         |
|            | 쥘다          |

- |      |       |
|------|-------|
| 남아있다 | 돌보다   |
| 아지   | 열어려지다 |
| 딜다   | 홀웃    |
| 파지   | 습웃    |
| 오래동안 | 버선    |
| 이루다  | 빼놓다   |
| 잠    | 마련하다  |
| 바라보다 | 절의    |
| 스며들다 | 다지다   |
| 물레우다 | 튼튼히   |
| 의지하다 | 어서    |
| 붓다   | 혁명전사  |
| 발방아  | 태양    |
| 짚다   | 어찌    |
| 지극하다 | 를     |
| 감격   | 교아    |
| 눈물   | 이르다.  |
| 막달나무 |       |

단어민들기

- △ 홀웃, 홀이물, 홀섬.
- △ 수양대, 운수대, 선동대, 가창대, 가창대.
- △ 눈물, 비물, 샘물, 우물.
- △ 재빨리, 재노랑다, 재하얗다.
- △ 발방아, 물방아, 가루방아.
- △ 갈증, 허기증, 어지럼증.

표 현

- △ 많지는 못하다.
- △ 가슴이 몽글해지다.
- △ 끼니를 진되다.
- △ 잠을 이루지 못하다.

△ 심장쪽으로 스며들다.  
△ 박달나무도 열여러지는 추운 겨울.

문 범

- 1) -조사  

명사	}	+ 도록
수사		
대명사		

  - 유격근거지에는 조선의 유명한 사과조각 구경하지 못한 아이들 이 많았다.
  - 전쟁이 끝났을 때 조선인민에게는 한장의 벽돌, 한줌의 제멘트를 만들 실비조차 없었다.
- 2) -라도(이라도)

명사	}	+ 라도
수사		
대명사		

  - 항일유격대원들은 사령관동지께 사과 할알이라도 맛보시라고 드렸으나 그이께서는 어린이들을 생각하시면서 끝내 사양하시었다.
  - 원수님께서서는 이 사과를 아동단원들에게 보내여 맛이라도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었다.
- 3) -(으)로서, -(으)로써

명사	}	+	-(으)로서
수사			
대명사			

  - 조선사과는 명산의 하나로서 맛도 좋고 맛도 좋다.
  - 원수님께서서는 할알의 사과로써 감증을 디는것까지 사양하시었다.
  - 평양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현대적도시로서 온 세계에 빛을 뿌리고있다.
  - 미제국주의자들은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을 총칼로 탄압함으로써 남조선명을 피로써 불붙였다.

- 4) -더니

동사	}	+ 더니
형용사		

  - 원수님께서서는 사과 할알을 손에 드시더니 이런 향기롭고 맛있는 사과가 조선에서 많이 난다고 말씀하시었다.
  - 날씨가 흐리더니 미가 오기 시작하였다.

- 5) -도록

동사	}	+ 도록
형용사		

  - 아홉살때부터 지주집 아이를 보고 다리가 못도록 팔방아를 쥔 어주어야 했던 할 어린이론 원수님께서 보내주시신 사과를 받아주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 원수님께서 보내주시신 사과를 받아권 아동단원들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 원수님께서서는 사과를 아동단원들에게 보내여 맛이나 보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었다. (-도록 하다=-게 하다).

- 6) -면서도(-으면서도)

동사	}	+ 면서도
형용사		

  - 원수님께서서는 추운 겨울에도 자신은 졸음을 업고 지내시면서도 어린이들에게는 슬픔과 이별을 보내주시었다.
  - 우 아동단원은 일제놈을 대단히 미워하면서도 순사님을 업고 강을 건느기로 하였읍니다.

- 7) -로(으로)하여

명사	}	+ 로(으로)하여
수사		
대명사		

  - 김일성원수님의 따뜻한 포살됨과 끊임없는 배려로 하여 오늘날 조선의 어린이들은 세상에서 무림없이 행복하게 자라나고있다.
  -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오들의 친리마 조선이 있다.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이 이야기는 어느때 있었던 일입니까?
  - 2) 대원들은 원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며 사과를 권하였습니까?
  - 3) 유격대원에게는 어떤 어린이들이 있었습니까?
  - 4) 김일성원수님은 아동단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과를 보내셨습니까?
  - 5) 아동단원들은 유격군거지에 들어오기전에 어떤 생활을 하였습니까?
  - 6) 추운 겨울에 아동단원들은 원수님께서 어떤 배려를 받았습니까?
  - 7) 아동단원들은 감격하여 어떤 결의를 다지였습니까?
2. 다음 빈자리에 알맞는 단어를 써넣으시오.
  - 1) 유격대원들은 ...고 먹음직한 사과를 ...곶랐습니다.
  - 2) 이야기를 ...던 어린이들은 ...이 몽쿨해졌습니다.
  - 3) ...들은 사과를 안고 새로운 ...를 다지였습니다.
  - 4) 조선의 어린이들은 오늘날도 세상에서 ...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 5) 산에는 사과가 ...지고 밀판에는 ...이 설레입니다.
  - 6) 아동단원들은 유격대원에게서 사과를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3. 다음 빈자리에 알맞는 토를 써넣으시오.
  - 1) 아동단원들은 몸... 튼튼히 하고 공부를 잘하여 훌륭한 혁명적 사... 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 2) 유격대원은 일제놈 ... 완전히 소멸시키고야 말았습니다.
  - 3) 봄들... 빼앗은 많은 물건가운데 ... 사과도 있었습니까.
  - 4) 이야기를 듣고있... 어린이들은 모두 ... 몽쿨해졌습니다.
  - 5) 조선의 사과는 빛 ... 곱고 맛... 좋습니다.
  - 6) 사과... 받은 아동단원들은 오래동안 잠... 이루... 못하였습니다.
  - 7) 어린이들은 사과... 안고 감격... 눈물... 흘렸습니다.

8) 박달나무... 열어터지는 추운겨울 ... 유격대원들은 일제놈 ...

용감히 때려눕혔습니다.

4. 다음 괄호안의 동사를 알맞는 형태로 바꾸어 문장을 만드시오.

- 1) 아동단원들은 사과를 (안다) 오래동안 잠을 (이루다) 못했습니다.
- 2) 어린이들은 피눈물 (나다) 과거를 (들이켜보다) 새로운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 3) 조선의 어린이들은 세상에 부러움 (없다) 행복하게 (자라다) 있습니다.
- 4) 나는 어제 동물원에 (가다) 얇고 혁명박물관에 (가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 5) 아버지는 책방에 (가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사 오셨습니다.

5. 다음의 토와 밑어로 문장을 지으시오.

—던	없었습니다
—로	스며들다
—까지	마련하다
—나(이나)	보살피다
—도록	부러움있다
—로써, 로써	얼마나
—에게서	사양하다
—조차	겪다
—더니	뜨겁다
—중에서	들보다
—마저	도로
—는데	

으며 당의 혁명위엄을 무력으로 보위하는 조선로동당의 군대입니다.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모축으로 사수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무조건 관철하는것은 인민군대의 첫째가는 생명입니다.

조선인민군대는 원수들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할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대는 자본주의국가군대와와는 전혀 다른 세형의 군대입니다.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인민군대는 인제든지 인민과 같이 살고 인민을 위하여 싸웁니다. 인민들은 군대를 자기의 친아들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적극 돕습니다. 그리하여 인민과 군대는 하나로 굳게 뭉쳐있습니다.

인민군대대에서 장병들 사이에는 조그만한 간격도 없으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하나와 같이 단결해서 같이 싸우고 같이 살며 서로 아끼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인민과 군대가 하나로 뭉쳐있고 지휘관과 병사들이 서로 아끼고 존경하는것은 항일유격대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은것으로서 이것은 인민군대의 특성중의 하나이며 또 승리의 원천입니다.

인민군대는 그 어떠한 침략군대도 단대에 쳐물리칠 수 있는 불패의 군대입니다. 바로 지난 정세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인민군대의 불패의 힘과 영웅적기개를

제 14 편

조선인민군

4월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대를 직접 창건하시였습니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백두의 밀림에서 조국의 앞날을 대다보시며 절대적정규무력을 준비하여오신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구상의 빛나는 실현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자랑이며 영광입니다.

조선인민군대는 정규군대로서 비록 1948년에 창건되었지만 오랜 력사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1932년에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써 우리 나라 혁명무력의 첫째오인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시였습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진정한 자기의 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그의 혁명적애국 전통과 고귀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창건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제승자입니다.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것은 인민군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입니다.

인민군대는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들로 조직되었



은 세상에 떨치었습니다.

세계만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은 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가장 포악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민과 군대를 굴복시키고 우리 나라를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미제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해방 전쟁을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시험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조국의 승운을 한몸에 지니시고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승리로 인도하시었습니다. 적탄이 비발치는 전선에서 위험도 마다하지고 친히 작전을 조직하시고 전투를 지휘하시면서 싸우는 전투원들을 고무하여 주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파사로운 품속에서 그이의 위대한 혁명정신만을 따라 배운 인민군용사들은 원추적렬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명령에 무한히 충직한 인민군 용사들은 피끓는 청춘의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닥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었으며 두팔다리 에 중상을 입자 입에 수류탄을 물고 적진에 뛰어들어 원추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으며 끊어진 통신선을 몸으로 이어 부대전투지휘를 보장하였습니다. 탄알이 떨어지면 바위들을 굴러 기여드는 적을 죽였고 고지를 뒤덮는 불바다속에서도 불사조와 같이 거연히 일어나 전쟁력사에서 패전을 모른다던 미제침략군대를 때려눕혔습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을 통하여 인민군대는 세계《최

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군대와 싸워이긴 영웅의 군대로 되었으며 더욱더 단련되고 풍부한 전쟁경험을 가진 불패의 군대로 자라났습니다.

전후에도 인민군장병들은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지켜 조국의 초소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남조선에 등지를 틀고 있는 미제국주자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침략채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웅적인인민군용사들은 원추놈들의 도발채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는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입니다.

인민군대에게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짝 들어차있으며 혁명적공간이 수많이 자라났습니다. 인민군대는 현대적군사과학과 기술기재로 무장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자라났습니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원수님의 평도를 받는 인민군대는 필승불패이며, 그가 지키는 우리 나라는 철벽의 요새입니다.

단 어

앞날  
내다보다  
무력  
정규부려  
구상

실현  
미록  
전통  
혁명전통  
자유

독립  
 실천적  
 청년  
 애국청년  
 대오  
 조직하다  
 바로  
 물길  
 세련되다  
 투사  
 혁명투사  
 골간  
 정렬  
 토대  
 직접적  
 계승자  
 불패  
 원천  
 우수하다  
 위엄  
 보위하다  
 수반  
 사수하다  
 견결히  
 옹호하다  
 부조진  
 판권하다  
 칙제가다  
 전취물  
 적극적  
 달성하다  
 숭고하다  
 사명

지니다  
 국가  
 행—형태  
 리익  
 대표하다  
 인제든지  
 적극  
 봉치하다  
 장병  
 사이  
 조그마하다  
 간격  
 단결하다  
 아끼다  
 존경하다  
 수립되다  
 지휘  
 지휘관  
 병사  
 서로  
 특성  
 단—하나  
 매  
 정의  
 반동  
 율홍  
 포악하다  
 방법  
 굴복시키다  
 삼키다  
 준엄하다  
 시련  
 윤명

적탄  
 비발치다  
 전신  
 위협  
 마다하다  
 친히  
 진루  
 지휘하다  
 마라배우다  
 격멸  
 무비  
 용감성  
 대중적  
 남김없이  
 명명  
 무한히  
 총격하다  
 피뿜다  
 청춘  
 가슴  
 화구  
 불격로  
 중상  
 수류탄  
 적진  
 뒤통하다  
 무리  
 죽음  
 무리죽음  
 끊어지다←끊다  
 통신선  
 탄알  
 떨어지다

바위돌  
 굴리다←굴다  
 족치다  
 고지  
 뒤덮다  
 불사조  
 거연히  
 패전  
 가필하다  
 통하다  
 터속터  
 풍부하다  
 초소  
 굳건히  
 동지  
 틀다  
 일삼다  
 도발  
 분쇄하다  
 바라다  
 결코  
 보복  
 진면  
 전면전쟁  
 휴일  
 제재  
 유일사상체제  
 빠(우)  
 들어차다  
 군사  
 기술  
 기제  
 감부



철제적  
군사전략가  
필승불패

전벽  
요제

단어만들기

- △ 용감성, 영웅성, 당성, 계급성, 인민성, 사상성, 참을성, 희생성.
- △ 불격로, 진격로.
- △ 충성, 기상, 무상, 치명상.
- △ 통신선, 전화선, 해안선.

표 현

- △ ...를(을) 골간으로하다.
- △ ...를(을) 수만으로 하다.
- △ 무습으로 사수하다.
- △ 중상을 쉽다.
- △ 무리죽음을 준다.
- △ 퍼쳐날뛰다.
- △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채동을 일삼다.

문 범

- 1) -므로(으므로); 동사, 형용사+므로
- 이므로; 명사, 수사, 대명사+이므로
- 자기의 군대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될 수 없으므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군대를 가져야 한다.
- 비가 오므로 그들은 비옷을 입고 떠났다.
- 조선인민군은 인민의 군대이므로 인민들로부터 투명한 사랑과 지지를 받는다.

- 2) 결코...지 않다 (부정)
-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국주의는 결코 자진하여 티사부대에서 물러가지 않는다.

3) 비록 ...-더라도(나)(양보)

- 비록 태일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들은 오늘 밤까지 진실을 계속할 것이다.
- 제국주의는 비록 강판지 같이 보이나 사실은 사상무각과 같은 것이며 그 멸망은 불가피하다.

4) -로(으로)하다

- 조선인민군은 항일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그의 혁명적애국진통과 고귀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창건되었다.
- 조선인민군은 원수들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구적승리를 달성하는 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있다.

5) 동사의 피동형과 사역형

① 타동사

원형	피동형	사역형
택다	택히다	택이다
쓰다	쓰이다	쓰우다
읽다	읽히우다	읽히다
보다	보이다	보이다
입다	입히다	입히다
알다	알리다	알리다
쌓다	쌓이다	---
마꾸다	마꾸히다	---
뒀다	뒀히다	---
물다	물히다	---
막다	막히다	---
밟다	밟히다	---
매앗다	매앗기다	---
말다	말기다	말기다
진실하다	진실되다	진실시키다





2) 자기 나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며 동시에 세계혁명의 총극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전세계공산주의자들의 의무입니다.

3) 조선인민군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로써 조직되었으며 조선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행복을 위하여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여 싸우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입니다.

4) 자본주의국가군대는 소수의 자본가, 지주를 위하여 절대다수인 근로인민을 압박하고 착취하는 제도를 무력으로 옹호유지하며 다른 민족과 남의 나라 영토를 침략할 목적으로 조직된 군대입니다.

5) 항일빨찌산들은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구호 밑에 항상 인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 혁명가

1. 우리는 무리에 붙는 물이요  
 질의를 마스는 파치라  
 희망의 포대는 붉은기요  
 썬치는 구호는 투쟁뿐  
 개결된 소리에 목이 쉬리  
 우리 피 짜내던 놈들이  
 맹렬한 최후의 전투에서  
 우리의 대오는 백배해  
 무기를 잡으라 억눌린자들이  
 명예를 벗어라 종된자  
 우리의 앞에는 희망뿐이요  
 나가가세 앞으로 앞으로  
 개결된 소리에 목이 쉬리  
 우리 피 짜내던 놈들이  
 맹렬한 최후의 전투에서  
 우리의 대오는 백배해
- 2.

## 대 의 원

1947년 8월 어느날이었습니다.

키다란 나무상자를 든 한 아주머니가 평양역앞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김일성원수님이 계시는 곳을 물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사람들에게 물고 또 물어 끝내 김일성원수님이 계시는 집을 찾고야 말았습니다. 원수님이 계시는 집에서 한 간부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어디서 무슨 일로 왔는가고 물었습니다. 이리하여 아주머니는 원수님을 찾아오게 된 아래와 같은 사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주머니의 이름은 리계산이라고 불렀는데 강원도에서도 험한 산골인 평강군 옥동리에 살고있었습니다.

머슴군의 딸로 태여난 아주머니는 열여섯살 나던 해에 벌써 지주놈의 빚에 끌려가 부엌데기노릇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후 아주머니는 시집을 갖는데 남편도 머슴군이었습니다. 그런데 1942년에 기동처럼 밋어오던 남편은 일제의 <보국대>에 끌려가 일통하게도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리던 아주머니는 희망을 맞아 김일성원수님으로부터 땅과 집을 받았습시다. 이리하여 난생처음 제땅에서 열성껏 농사를 지어 아주머니데 프락에는 산더미같은 낱가리가 솟았습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낱가리

를 바라보는 계산아주머니의 가슴에는 머슴꾼인 자기에게 땅과 집을 주어 이처럼 잘 살게 하여준 원수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마음이 짝차고 넘쳤습니다.

이듬해 1947년에도 아주머니는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원수님의 은덕을 언제나 가슴뜨겁게 느끼면서 아주머니는 밀밭에 나가 제일 잘 익은 밀 이삭을 잘라다 밀 두말을 장만했고 감자밭에 나가 제일 굵은 알을 캐다 감자도 한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밀과 감자를 상자에 넣어 들고 원수님께 감사드리러 평양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간부선생님은 계산아주머니의 지극한 정성에 감탄하여 이일을 김일성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윽고 아주머니는 원수님이 계시는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방에 들어서자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웃음을 지으시고 마주 걸어오시더니 못이 박힌 아주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하고 반갑게 맞아주시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원수님앞에서 더무나 감격하여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인사의 말씀을 올렸으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한참후에야 아주머니는 겨우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군님, 장군님이 추진 땅에서 제손으로 지은 밀과 감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남의 종노릇을 하던 제가 장군님덕에 오늘은 제침을 쓰구 제농사를 짓구 떳떳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목이 짝 메여서 더 말을 못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울먹이고 있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아 걸상에 앉히시면서 다룬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올해 농사는 잘 되셨습니까?》

《네, 올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씀드리자 원수님께서는 아주 만족해하시며 이번에는 마을 농민들의 생활형편을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마을농민들도 땅을 받고 모두 잘 살게 되었다고 말씀드리자 원수님께서는 《마을에 학교가 있습니까? 중학교는 있습니까?》하고 물으셨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인민학교밖에 없다는 계산아주머니의 말을 들으시고,

《내게 낯알을 가져온것도 좋지만 마을에다 학교를 짓는데 도왔으면 더 좋았을걸 그랬소.… 모든 농민들이 농사도 잘 짓고 힘을 합쳐서 학교를 잘지어 후대를 잘 교육해야 합니다.》하고 일러주시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산아주머니의 곁에 와앉으시면서 《동무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있습니까?…신문은 읽고있습니까?》하고 물으셨습니다.

《장군님, 저는 아직 글을 모릅니다.》 아주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조선사람들이 다 우리 나라글을 보고 읽을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공부를 해야지요.…》

《장군님말씀대로 글을 배우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숙였던 고개를 쳐들고 힘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하고 약속합니다. 지금부터 석달후에 문맹을 퇴치하고 동무의 손으로 편지를 써서 그 소식을 보내



주시오, 어떻게 됩니까? 할수 있습니까?»

«네, 장군님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겠읍니다.»  
계산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원수님께서서는 매우 기뻐하시는것이였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이밖에도 계산아주머니에게 여러가지  
를 가르쳐주시였습니다.

다음날 아주머니는 자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아주머니는 원수님앞에서 다진 맹세  
를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돌아온날 밤부터 아주머니는 학교선생님을 찾아가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잠만 있으면 글을 읽었습니다. 비오는 날에는 기를  
종이에 책을 싸가지고 밭에 나가 쉬는 때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또한 학교짓는때도 열성껏 나섰습니다.  
평양에서 내려올 때 원수님께서 러비로 쓰라고 주신  
돈도 학교 짓는데 내고 냇에는 농사일을 하고 밭에는  
학교짓는 일터에 나가 일했습니다.

어느덧 원수님앞에서 약속한 석탈이 되었습니다. 아  
주머니는 며칠밤을 새워가면서 원수님께 드릴 편지를  
썼습니다. 쓰고 지우고 또 쓰고 하면서 한자, 한자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원수님의 덕분에 글까지 배우고 신문  
을 읽을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 마을에 학교가 새로  
일떠서 중학생만 하여도 6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 자  
기집을 비롯하여 마을농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늘어  
재미가 난다는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원수님께 보내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지 얼마 안되는 어느날 아주머니는  
정말 뜻밖에도 원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편지를 받  
았습니다.

편지에는 아주머니가 약속한대로 석탈동안에 문맹  
을 퇴치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준것을 기쁘게 생각한  
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일을 더 잘하고 공부도 더 열  
심히 하여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쓰  
여져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얼마후 계산아주머니는 원수님께서 보  
내주시는 포창장과 시계를 또 받았습니다.

아주머니의 감격은 그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수 없  
을만큼 컸습니다. 아주머니는 원수님의 이 두터운 배  
려와 지극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하였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온 나라  
가 불바다에 잠겼을 때, 전후에 재터미만 남았을  
때도 아주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일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리하여 아주머니는 그후 최고인민회의대의원으  
로, 로력영웅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아주머니는 대학까지 나오고 협동농장관리위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이야기는 비단 리계산아주머니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김일성원수님께서 세워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사회주의제도아래에서 그이의

부러운 재력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제도가말로 가장 살기 좋은  
사회 제도입니다.

단 어

대의원  
나부상자  
틀다  
아주머니  
역  
붙잡다  
끝내  
무슨<무엇>  
사연  
힘하다  
산할  
머슴군  
레이나다  
빛  
물러가다  
부엌데기  
기둥  
남편  
《보국대》  
원통하다  
난생처음  
열성껏  
뜨락  
산터미  
날가리  
흐뭇하다  
넘치다

은덕-덕  
가슴뜨겁다  
밀  
자르다  
장만하다  
감자  
끓다  
캐다  
잡자드러다  
정성  
감탄하다  
이우고  
안대되다  
웃음짓다  
마주  
못  
박히다<박다  
만잡다  
맞아주다  
말씀올리다  
함참  
작년  
재작년  
종노릇  
몇몇이  
울먹이다  
알히다<알다

살림살이  
뜻밖에  
성과  
기누다  
내-응  
포장장  
시계  
포현(~하다)  
만들  
두렵다  
보답하다  
물바치다  
최고  
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로력영웅  
농장  
판리  
관리위원장  
비단  
제도

올해  
올농사  
형편  
자세히  
날알  
합치다-합하다  
일러주다  
신문  
볶히다-끓다  
추이다  
고개  
약속하다  
문맹  
뛰쳐하다  
편지  
실적하다  
잡  
기름  
싸다  
러미  
달다  
턱물

단어만들기

- △ 머슴군, 일군, 살림군, 농사군, 사냥군
- △ 산터미, 쌀터미, 비료터미, 날알터미,
- △ 올해, 올농사
- △ 로력영웅, 천투영웅
- 표 현
- △ 열여섯살나다
- △ 기둥처럼 밀다
- △ 난생처음



- △ 웃음을 짓다
- △ 말썽을 올리다(드리다)
- △ 뜻이 막히다
- △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른다.
- △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
- △ 밤낮을 가리지 않다.

문 범

- 1) -느라고, 동사+느라고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학생들은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읽느라고 밤가는 줄 모른다.
- 2) -자면 동사+자면  
-회피를 하자면 대답성이 있어야 한다.  
-김일성원수님께 충실하자면 우선 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

3) 도움토《-만큼》

명사 } + 만큼  
대명사 }

- 아버지, 형님만큼 크면 나도 인민군대에 나갈 수 있나요?》
- 나도 너만큼 읽을 수 있다.

※동사일 때

- 형제-는만큼; 쓰는만큼, 읽는만큼.
- 과거-ㄴ(은) 만큼; 쓸만큼, 읽는만큼.
- 미래-ㄹ(을) 만큼; 쓸만큼, 읽을만큼.
- 원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포창장과 시계를 받은 아주머니의 감격은 표현할 수 없을만큼 컸다.
- 비가 내릴만큼 내렸으니 이제는 개일 것이다.
- 이 책의 내용을 읽은(것) 만큼 말하여보시오.

- 4) -아(010)말로  
명사 } +야(이야)말로  
대명사 }
-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제도야말로 가장 살기 좋은 사회제  
포이다.
- 바다야말로 청년들의 보람찬 일터이다.

- 5) -고야말다, 동사+고야말다.  
-아주머니는 사람들을에게 묻고 또 물어 김일성원수님을 만나뵈  
고야 말았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받드시 통일하  
고야 말 것이다.

- 6) -고나서 동사+고나서(고난)  
-오늘 숙제를 다 하고나서 나는 신문을 읽기 시작하였다.  
-오늘 숙제를 다 하고난 나는 신문을 읽기 시작하였다.

- 7) -느지(현재), -ㄴ(은)지(과거)  
동사+느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은지 얼마인되는 여느날이었다.  
-나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지 3번째 된다.  
-아버지는 이 공장에서 일하시느지 오래다.

8) 전탈범

① 직접전탈범

- 원수님께서는《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하고(라고) 만  
감개 맞아주시었습니다.
- 원수님께서는 슬퍼이고있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아 결상에 앉히  
시면서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시었다.  
《그때, 올해 농사는 잘 되었습니까?》  
《네, 올농사가 잘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씀드리자 원수님께서는 아주 만족하시며 이면  
에는 마을농민들의 생활해편을 자세히 물으셨다.

② 관건질답법

- 아주머니는 마을농민들도 명을 받고 모두 잘 살게 되었다고 원수님께 말씀드렸다.
- 아주머니는 원수님의 덕분에 글까지 배우고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 마을에 학교가 새로 일떠서 중한생만 하 여도 6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 자기 집을 비롯한 마을농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늘어 재미가 난다는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원수님께 보내드렸다.
-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에는 아주머니가 약속한대로 석달 동안에 문맹을 퇴치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준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시면서 앞으로 일을 더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여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여져 있다.

련 습

1. 다음 글들에 대답하십시오.
  - 1) 리계산아주머니는 해방전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 2) 해방을 맞은 리계산아주머니는 어떻게 하여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 3) 리계산아주머니는 왜 밀 두말과 감자 한말을 마련하였습니까?
  - 4) 김일성원수님앞에서 리계산아주머니는 왜 복이 봐 매여 말을 못하였습니까?
  - 5)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리계산아주머니의 말을 들으신 후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 6) 김일성원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리계산아주머니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 7) 리계산아주머니는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에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 8) 김일성원수님의 두툼은 배떠와 지극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리계산아주머니는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9) 리계산아주머니가 어떻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로력영웅으로 되게 되었습니까?

2. 아래의 동시들을 피동형과 사역형으로 표기시오.

앉다 부르다  
 서다 배았다  
 오르다 쓰다  
 붙잡다 읽다  
 보다 듣다

3. 다음 단어를 리용하여 문장을 지으시오.

난생 처음 비단  
 다지다 끝내  
 비롯하여 너무  
 지극하다 흐뭇하다  
 밋밋이

4. 다음의 말과 뜻이 비슷한 말을 쓰시오.

기동처럼 밀다—  
 아무말도 못하다—  
 난생 처음—  
 맹세를 다지다—  
 반박을 가리지 않다—  
 성과를 거두다—

5. 다음의 토를 리용하여 문장을 지으시오.

—터지  
 —다가(다)  
 —는데  
 —느라고  
 —대로

6. 본문에서 격조 <예>를 가진 문장들을 찾고 그 뜻을 말하십시오.



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충성의 마음답아 원수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있다.

종합대학은 창립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화국의 품속에서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다.

종합대학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품속에서 과학의 최고전당으로, 민족간부양성을 위한 강력한 거점으로 되었다. 종합대학은 당과 수령의 높은 뜻을 받들고 혁명의 붉은 대학, 조국과 인민의 충복을 길러내는 진정한 로동계급의 대학으로 되었다.

학생들은 종합대학의 력사학부, 경제학부, 어문학부, 물리학부, 생물학부를 비롯한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부들에서 자기들의 과학적재능을 마음껏 키우고 있으며 로동계급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는 혁명가로 믿을직하게 자라나고 있다.

대학에는 일하면서 배우는 통신 및 야간학부들이 있으며 제대군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제대군인 예비파가 있으며 대학은 인민들로부터 높은 신임을 받는 로동계급의 대학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고 있다.

대학은 정치사상적으로, 무장되고 과학리론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전문가들을 해마다 수천명씩 양성하여 인민경제 각분야에 대보내고 있다.

조선인민은 자기가 양성한 기술간부의 대부대를 가지고 현대화된 사회주의공업과 농촌경리를 훌륭하게 관리운영해 나가고 있다.

종합대학이 이룩한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의 교육정책과 김일성원수님의 탁월한 교육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다.

제 16 회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신 유서깊은 모란봉기슭에 웅장하게 솟아 있다.

종합대학은 1946년 10월 1일 김일성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새조선의 학원의 맡아들로 태여났다.

종합대학의 창립은 조선에서 인민의 대학의 기원을 열어놓은 거대한 력사적사건이다. 종합대학이 창립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오랜 력사적숙망이었던 과학의 최고전당을 가지게 되었으며 민족간부양성의 강력한 기지를 꾸리게 되었다.

조선로동당은 지난날 압박과 천대만을 받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이 매달 장학금을 받으며 철따라 교복을 받으면서 선진과학을 마음껏 배울수 있도록 문물 활짝 열어놓았다.

전체 조선인민들은 종합대학의 창립을 무한한 감격과 기쁨속에서 맞이하였으며 그에 대한 전 민족의 념원과 기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대학의 창립자이시며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과 결부시켜 이 대학을 김일성종합대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수령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닌 종합대학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대학을 직접 창립하여주시었으며 배움의 넓은 문물 활짝 열어주시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이것은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수체사상의 빛나는 구원의 결과이며 그이의 육친적배려와 지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김일성원수님은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심차레나 대학을 현지지도하시고 대학발전의 기본방향과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었으며 결린 문설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

원수님은 훌륭한 교사에 현대적설비를 갖춘 실험실들과 교실들, 연구실들을 충분히 마련해주시었고 학생들이 과학의 진리를 마음껏 탐구할수 있도록 큰 도서관을 건설해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평양으로부터 멀리 길은 산속에 자리잡고있는 대학을 몸소 찾으시며 초박에서 교원, 학생들과 밤을 새우시며 전시에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후 사회주의건설에서의 과학자들의 임무에 대하여 세세히 가르쳐주시었다. 그리고 반토글집 기숙사와 식당을 돌아보고 학생들의 숙식문제와 교과서, 학용품 등 모든것들에 대하여 일이 걱정해주시었다.

원수님은 외국류학생들이 생활하고있는 기숙사들을 볼 친히 방문하시고 그들이 학습과 생활에서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깊이 보살펴주시었다.

원수님은 심지어 진귀한 동물이나 식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학생들의 학습과 과학연구에 리용하도록 대학에 보내주시었다. 지금 대학에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시신 진귀한 동물들로 하나의 큰 생물과학관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후대교육과 과학발전에 위한

김일성원수님의 극진한 배려의 표시로서 대학에서 배우는 학생들을 무한히 고무하고 있다.

수령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닌 종합대학에서 배우며 생활하는 학생들은 세상에 부러움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 끝없는 행복과 기쁨에 대하여 어머니 수령님께 충성으로 보답할 결의로 가득차 있다.

대학본관에는 김일성원수님의 지난 40여년간의 빛나는 혁명투쟁력사를 보여주는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연구실과 우리 대학에 대한 어머니수령의 높이신 배려를 보여주는 현지도시관이 훌륭하게 꾸려져 있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영도의 현명성, 그이의 높은 덕성을 심오히 연구하면서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높이신 덕성을 따라 배우고 있으며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자라날 충성의 굳은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진다.

종합대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활짝 꽃피우면서 더욱더 번영할 것이며 영광스럽고도 자랑찬 자기 이름을 빛낼 것이다.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온 인민의 종합대학은 날로 튼성발전하는 조국과 함께 당과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와 영광의 길에서 영원히 번영하리라!

단 어

선명                    받기  
미진                    지도  
잡아주다              학원  
기습                    받아들



항법 창립자 기원 거대하다 역사적사변 추망 양성 강력하다 기지 꾸러다 기쁨 녘원 기대 표시하다 결부시키다 신뢰 통상 모시다 이후 기점 받들다 증복 길러내다 어문 물리 생물 화학 제능 혁명가 통신 야간 제대 군인

제대군인 특별히 설치하다 예비과 실업 면모 이론 리론적 유능하다 전문가 인민경제 분야 대부대 농촌정리 은영하다 구획 결과 속칭적 바쁘다 차례 현저 원지지도 발진 기문 광량 응대하다 설계도 길러다 문제 풀다 교사 실험실 연구실

진리 탐구하다 교원 견시 과학자 임무 로골질 숙식문제 학용품 불필 십지어 진귀하다 생기다 리용하다 동물

과학현 후대 본관 덕성 교시 정결하다 현명성 심오히 연구하다 구상 변영하다 빛내다—빛나다 날로 통성(～하다)

표 현

—기원을 열어놓다.  
 —결린문제를 풀다.

문 범

규정으로

동 사	형용사	명사	시간상의 의미
—는	—ㄴ(은)	—ㄴ(인)	현재
—ㄴ(은)	—	—	과거
—던	—던	—던(이던)	과거지속
—았(었, 었)던	—았(었, 었)던	—(이)였던	과거완료
—르(을)	—르(을)	—르(일)	미래

비교

- ① —대가가 타는 배스
- 대가가 타는 배스
- 대가가 타던 배스
- 대가가 탔던 배스
- 대가가 탈 배스

- 책
- 책
- 책
- 책

- 대가가
- 대가가
- 대가가
- 대가가

문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 1) 김일성종합대학은 어떻게 창립되었습니까?
- 2) 종합대학의 창립은 조선인민들에게 왜 역사적사변으로 될  
니까?
- 3) 종합대학은 창립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  
습니까?
- 4) 당과 수령의 높은 뜻을 받는 종합대학은 어떠한 대학으로 되  
었습니까?
- 5) 종합대학에는 어떤 학부들이 있으며 학생들은 여기에서 무엇  
을 배우고 있습니까?
- 6) 종합대학은 어떤 사람들을 양성하여 인민정제 각 분야에 포대  
고 있습니까?
- 7) 김일성원수님은 종합대학사립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배려를 돌려주시었습니까?
- 8)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배우며 생활하는 학생들은 왜 가장 행복  
한 사람들입니까?

2. 다음 빈자리에 알맞는 단어를 써넣으시오.

- 1) 종합대학에서는 로동자, 농민... ..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이  
...껏 배우고있다.
- 2) 종합대학은 공화국의 ...에서 빛나는 ...와 영광의 ...을 걸어  
왔다.
- 3) 종합대학은 ...를로부터 ...은 신임을 ...는 인민의 대학이며 로  
동계급의 대학입니다.
- 4) 종합대학에서 ...며 생활하는 학생들은 세상에 ...없는 가장

...한 사람틀이다.  
5) 학생들은 혁명에 ... 충실한 붉은 전사로 자라날 굳은 ...를  
...고있다.

3. 다음의 빈 자리에 알맞는 토를 써넣으시오.

- 1) 우리는 김일성종합대학 류학생 예비반... ..조선말... ..공부하고  
있다.
- 2) 대학생들은 당과 국가로... ..매달 장학금과 철... ..교부를 받으...  
마음... ..배우고있다.
- 3) 종합대학은 민족간부양성을 ... ..강력... ..거점... ..거였다,  
4) 종합대학에는 일하... ..배우는 통신 및 야간학부들... ..있다.
- 5) 종합대학에는 제대군인들... ..특별히 설치... ..제대군인에비과...  
있다.
4. 다음 괄호안의 동사, 형용사를 변화시켜 문장을 만드시오.  
1) 대학은 자기가 (키우다) 수많은 민족간부들을 사회에 내보  
냈다.  
2) 대학을(졸업하다)학생들은 인민정제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3) 오늘 조실은 튼튼한 자립적민주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를(가  
지다)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되었다.  
4) 종합대학의 오늘도 (좋다) 레일은 더욱 좋을것이다.  
5) 당의 품속에서 종합대학은 더욱더 (번영하다) 영광스럽고모  
(자랑차다) 자기 이름을 빛낼것이다.  
5. 다음의 단어와 토로 문장을 지으시오.

- 활짝
- 모시다
- 양성하다
- 펼치다
- 일일이
- 보상피다
- 게 되다
- 으로 되다
- 에 의하여
- 를(을) 가지다
- 옹장하다
- 꾸리다



이 총을 혁명동지들에게!

지난 항일투쟁시기에 빨찌산대원들이 김일성 원수님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강도 일본제국주동자들 과 싸워이긴 불멸의 업적들은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 히 살아 고동치고있다.

유격대를 조직하던 초기에 놈들의 무기를 빼앗는 싸움에서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서슴없이 혁명에 바 킨 항일투사들의 그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들을 감동시키고있다.

1933년 9월 어느날이었다.

별찌 두만강연안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눈까지 내리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 령도하시는 빨찌산 대원들인 오 일파, 박세홍,한태연동지들은 두만강을 건너오는 한 나루패에 올라왔다. 이들은 놈들의 무기를 빼앗기 위 하여 강을 건너오고있었다. 이 패에는 다른 사람들도 열뒤평가량 앉아있었다.

패는 푸른 두만강의 흐름을 따라 천천히 아래로 내 려갔다.

패가 강기슭에 닿자 일제순사 세놈이 패에서 내리 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검열하는것이였다. 놈들은 패 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끌어다 차고 때리고 하였다. 놈들의 이런 행동을 보는 세대원들의 가슴

속에서는 증오와 격분이 끓었다. 그들은 제일 마지막 에 패에서 내리면서 놈들의 행동을 살피보았다.

세대원은 제각기 놈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바로 이때였다.

오일파동지가 일제순사 한놈을 즉시에 권총으로 쏘 아놓았다. 그러자 다른 두대원도 일시에 순사 한놈씩 을 재빨리 쏘아놓았다.

용감한 세대원은 놈들의 파출소에 뛰어들이어가 많은 무기를 빼앗아가지고 급히 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들은 뜻밖의 난관에 부닥쳤다. 그것은 패 우에 있던 노가 없어졌기때문이다. 이렇게 시간을 보 대는 사이에 부근에 있던 일제놈들이 추격해오기 시작했다.

가까운 곳에서 적들의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을 때 에 그들은 강물을 헤여진날 생각도 해보았으나 그중 한태연동지는 전혀 헤엄을 치지 못하였을뿐만아니라 다른 동지들도 로획한 무기를 가지고는 두만강을 건 들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위급한 순간에도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다.

무기를 패에 실은 다음 헤엄을 잘치는 두동지는 물 에 들어서서 패를 밀고 한태연동지만 패에서 적들을 감시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강 절반쯤 왔을 때에 적들은 벌써 강가에 나타나서 총질을 하였다.

바람이 불고 눈이 내려서 적들은 처음에 세동지가 라고 건너가는 위치를 알아대지 못하였다. 그러나 얼 마를 못가서 적들은 우리의 패를 발견했고 그놈들도 패를 타고 뛰따라오기 시작했다



적들의 총란은 점점 더 배주위로 집중되었다. 이때 부터 세동지는 배를 대버리고 강물에 들어섰다. 빼앗은 무기는 오일파동지가 메고 박세홍동지는 헤엄을 칠 줄 모르는 한태연동지를 업고 건느게 되었다.

적들은 세동지가 물속으로 건느는 것을 보지 못하고 떠대퍼가는 배만 보고 그쪽을 향해 총을 쏘고 있었다. 이름에 세동지는 적들의 총탄을 피하였고 그중 오일파동지는 무기를 메고 이미 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 오일파동지는 강가에 대기하고 있던 데동지에게 빼앗은 무기를 넘겨주고 적들을 향하여 사격을 계속하였다.

한태연동지를 업은 박세홍동지는 강이쪽 언덕에 거의 다달았을 때에 불행하게도 적탄에 맞고 물속에 가라앉게 되었다.

그물을 따라 내려가며 적을 방어하던 오일파동지마저 적탄에 맞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상처를 생각할 사이도 없이 다시 총을 잡고 일어나 적들을 향해 계속 불을 뿜으면서 물속에 빠진 동지들을 구원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기여대며왔다.

살시후에 물속에서 다시 머리를 추켜든 박세홍동지는 자기의 부상을 돌아볼 사이도 없이 등에 업었던 한태연동지부터 찾았다. 헤엄을 치지 못하고 물살에 휩쓸려 떠대퍼가는 그의 머리가 두서너발 아래쪽에서 솟구쳤다. 또다시 물속에 파묻히는 것이 보였다. 박세홍동지는 힘을 다하여 그를 따라잡았다. 그는 몸 시 애를 써서 한태연동지를 업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가쁜 숨을 대쉬며 다시 돌아서서 강언덕쪽을 향해 헤

엄을 치기 시작했다. 그는 겨우 머리를 들고 앞을 건너다보았다. 이미 먼저 건너간 오일파동지와 그곳에서 기다리고있던 태명의 동지들이 빼앗은 무기를 손에 잡고 적들을 향해 맹렬한 불을 뿜고있는 것이 보였다.

이 순간 박세홍동지에게는 새로운 힘이 솟았다.

— 그렇다.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무기가 생겼다. — 그는 한시바빠 건너가고 싶었다.

새로 빼앗은 무기를 잡고 그전보다 더 대답하게 적을 쫓부시는 태렬에 다시 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더 힘있게 팔다리를 대저었다.

이때 강가에서는 적들과 싸우는 동지들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들렸다.

《박동무! 한동무!》

동지들의 안타까운 부르소리와 적아간의 격렬한 총소리가 한시에 그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러나 이미 그는 많은 피를 흘려 기운이 없어져왔다. 안타깝게 팔을 짓고 다리를 건어차으나 한태연동지를 등에 업은 그의 몸은 점점 강물을 따라 떠갈 뿐이었다.

《박동무! ...나를 놓아두게...》

등에 얹힌 한태연동지는 두손으로 박세홍동지의 등을 밀어대기 시작했다.

박세홍동지는 숨이 차서 입에 물고 있는 권총마저 물속에 떨어뜨릴 형편이었다.

그는 입에 문 권총을 가까스로 바른손에 옮겨 쥐었다.



그는 두세번 거듭 곱한 숨을 쉬면서 등에 얽힌  
한태연동지에게 말하였다.

《참게... 동무는 헤염을 잘 못치니까 ...나를 놓으면  
죽네! ...꼭 붙들게! 살아야 해!》

그러나 이미 손발에는 맥이 빠지고 몸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흐리여가던 눈에는 아무것도 보  
이지 않았고 물이 들어찬 목구멍에서는 한마디말도  
더 나오지 못했다.

겨우 정신을 차려가며 또다시 강바닥을 받물로  
찾다.

팔을 내치고 몸을 뒤흔들며 다시 가라앉지 않으려  
고 애를 썼다.

《...어떻게 태서든지...이 동무와... 그리고 이 종  
을...》

그러나 손발은 점점 굳어지고 적들은 곧 뒤편리를  
잡을듯 배를 저어 건너오고있었다.

이때 강언덕에서 부상을 당한 오일파동지가 벼랑끝  
으로 계속 기여오며 그들을 향해 소리를 쳤다.

박세홍동지는 숨가쁘게 웨치는 오일파동지의 목소  
리를 들었고 무엇보다 자기 어깨에 화랑는것을 느꼈  
다. 그것은 오일파동지가 강언덕에 엎드려서 내미는  
총탁이였다.

《박동무! 어서 이걸 붙잡게!...》

어렵고 위급한 때일수록 자기 보라도 혁명동지를  
먼저 생각하는 항일유격대원인 박동지는 그 총탁을  
등에 얽힌 한태연동지에게 먼저 넘겨주고 물속에 몸  
을 솟구며 그의 몸을 떠올렸다.

이때 거듭 날아오는 적탄이 박세홍동지의 등을 꿰  
뚫었다. 이것을 본 오일파동지가 다급한 소리를 지르  
며 그옆에 있는 다른 동지를 불렀으나 이미 때는 늦  
었다.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박세홍동지는 겨우 손을 내밀  
어 권총을 던지면서 《혁명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하는 마지막부탁을 남기고는 물속에 파묻혀버렸다.

오일파동지는 가까스로 한태연동지를 언덕에 끌어  
올려놓고는 계속 강굽이쪽을 기여대려가며 박세홍동  
지를 불렀다. 그러나 적아간의 맹렬한 총소리뿐 그의  
부름에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박세홍동지의 모습도  
다시는 물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오일파동지는 사랑하는 전우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  
힐자라는데까지 강기슭을 기여대려갔다.

《박동무!...》

《박세홍동무!...》

박세홍동지는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혁명의 승리를  
보지 못하였다.

혁명투사는 잣으나 혁명가의 뜨거운 피가 스며있는  
그 총은 오늘 사회주의 전취물을 지켜선 우리 인민의  
손에 튼튼히 쥐여져있다.

우리 인민은 항일투사들이 물려준 이 총을 튼튼히  
틀어쥐고 이땅에서 미제를 죽치고 우리 세대에 조국  
을 반드시 통일하고야 말것이다.

단 어

엄격  
고동치다  
초기  
고귀하다  
바치다  
감동하다(감동시키다)  
쉽산  
나루배  
~가량  
닿다  
검열하다  
메리다  
증조  
무기  
제작기  
다가가다  
즉시에  
파출소  
끔히  
남편  
부탁치다  
노  
부근  
추격하다  
진형  
헤어진다  
로회하다  
위급하다  
순간  
당황하다  
감시하다

질반  
~쫘  
총결  
위치  
발견~하다  
~되다  
주위  
집중~하다  
~되다  
~시키다  
떠내려가다  
뜸(~을 라다)  
괴하다  
대기하다  
넘겨주다  
망어하다  
망어전루  
언터  
거의  
다다르다  
가라앉다  
상처  
뿔다  
빠지다  
구원하다  
무릎쓰다  
추켜들다  
휩쓸다  
휩쓸리다  
발(합~, 두~)  
숫구치다

파물다  
·와물히다  
성공하다  
가쁘다  
가쁜숨  
내쉬다  
틀어쥘다  
저우  
맹렬하다  
합시바빠  
따라잡다  
짓부시다  
간절하다  
악물다(악물다)  
이름~  
짓다  
네~  
안타깝다  
적다  
투트러다  
기운  
걸어차다  
놓아두다  
밀어내다  
물다  
밀어뜨리다  
가까스로

움겨쥘다  
거들  
참다→참계(명령)  
붙들다  
맥이 빠지다  
애쓰다  
숨가쁘다  
목구멍  
강바닥  
뒤흔들다  
벼랑  
웨치다  
엎드리다  
내밀다  
총타  
위급하다  
깨틀다  
다급하다  
다닿다  
부타  
남다  
남기다  
강굴이  
휩차라다  
스며있다  
물리주다  
틀어쥘다

단어만들기

- △ 고동치다, 고합치다, 소리치다, 쪽치다, 헤엄치다
- △ 다가가다, 다가오다, 다가붙다, 다가붙다, 다가서다
- △ 절반쫘, 세시쫘, 이틀쫘, 십리쫘, 백명쫘



- △ 총질, 낙시질, 마치질, 가래질, 낫질, 손질
- △ 휘쓸다, 휩싸다
- △ 짓부시다, 짓밟다, 짓궂다, 짓궂다, 짓이기다(진니기다)
- △ 내젓다, 내털지다, 내버리다, 내밀다, 내가다, 내놓다, 내팔다, 내뺀다, 내두르다, 내대다, 내보내다, 내쫓다, 내주다, 내뜨리다, 내뺀다, 내뺀다, 내쫓다, 내놓다
- △ 놓아두다, 놓어두다, 가져다두다
- △ 털어뜨리다, 털어뜨리다, 깨뜨리다
- △ 옮겨꿔다, 옮겨가다, 옮겨놓다, 옮겨질다, 옮겨주다
- △ 물잡다, 물들다, 불안다
- △ 강퍽이, 잔뜩이
- △ 물터주다, 물터말다
- △ 끌어올려놓다(끌다+올리다+놓다), 떠내려가다(뜨다+내리다+가+가다), 넘겨주다(넘기다+주다), 파묻히다(파다+묻히다)
- △ 뒤흔들다, 뒤놓다, 뒤엎다, 뒤바꾸다, 뒤섞다

표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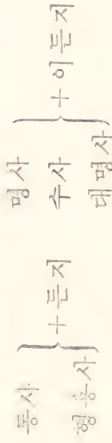
- △ 단판에 부닥치다
- △ 시간을 보내다
- △ 불행하게도
- △ 생각할 사이도 없이
- △ 물을 뿜다
- △ 위협을 무릅쓰다
- △ 힘을 다하다
- △ 해를 쓰다
- △ 숨을 쉬다
- △ 이를 악물다
- △ 심장을 두드리다
- △ 술이 차다
- △ 맥이 빠지다
- △ 정신을 차리다
- △ 어떻게 해서든지
- △ 손발이 굳어지다
- △ 무상을 당하다
- △ 소리를 지르다

문 범

- 1) -니까(-으니까), 이니까  
 동사, 형용사+니까(으니까)  
 명사, 수사, 대명사+이니까

- 꼭 붙들게...동무는 해설을 잘못치니까 나를 놓으면 안되네...
- 우리들은 청년들이니까 어떤 일에서든지 앞장서야 한다.
- 집에 가니까 김동무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있었다.

2) -든지(-이든지)



- 어떻게 해서든지 이 총을 동무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일은 꼭 해내야 한다.
-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꼭 가겠습니다.
- 언젠가든지 만년필이든지 아무것이나 주십시오.

3) 수사

- 한톨, 두셋, 두서넛, 더뵈, 서너더뵈, 더더뵈, 더여섯, 예닐곱, 여나곱, 스무나곱, 서르나곱, 마흐나곱, ...아흐나곱, 열대여섯, 아흔서너더뵈

4) 구를 가진 문장

1) 주어구를 가진 문장

- 항일유격대원 세명이 왜놈들의 무기를 빼앗기 위하여 두만강 을 전는것은 1933년 9월 어느날이었다.
- 동무들이 학교로 간지가 얼마지나지 않았었다.

2) 술어구를 가진 문장

- 우리 나라는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다.
- 박세홍동지는 많은 피를 흘려 기운이 없어져갔다. 그러나 그는 한태연동지를 더 힘있게 업었다.

3) 규정어구를 가진 문장

- 김일성위수님께서 평도하시는 빨찌산대원들인 오일파, 박세홍, 한태연동지들은 두만강을 진터가는 한 나루배에 올라 왔다.

- 오곡이 무르익은 무성한 협동밭이 눈앞에 보인다.

4) 보어구를 가진 문장

- 한태연동지는 박세홍동지가 자기를 내려놓고 갈것을 요구했 다. 그러나 박세홍동지는 이명동지를 두고 갈수는 없었다.

- 우리는 동무들이 학습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 5) 상황어구를 가진 문장
  - 항일투사들의 투쟁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의 가슴속에 뜨겁게 안겨온다.
  - 오일파동지는 두동지가 잡게 총타를 내밀었다.

련 습

-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이 이야기는 어느때의 이야기입니까?
  - 2) 왜 항일빨찌산대원들은 두만강을 건너가는 나무배를 탔습니까?
  - 3) 배에서 내린 항일빨찌산대원들은 일제놈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 4) 항일빨찌산의 세대원들이 적들의 무기를 빼앗아가고 강기슭에 나왔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 5) 적들이 추격해 왔으나 세 항일빨찌산대원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 6) 위험한 환경속에서도 항일빨찌산대원들은 서로 어떻게 혁명적 동지애를 발휘하였습니까?
  - 7) 박세홍동지의 승고한 혁명정신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 8) 무엇을 위하여 항일빨찌산대원들은 고귀한 정신을 바치 싸웠습니까?

- 다음 단어들과 뜻이 반대되는 말을 쓰시오.
 

초기에	넘겨주다
명확하다	방어하다
실다	잡다
밀다	가져가치
가슴속에	뜨겁다
영원히	달다
틈	

- 강기슭
- 제작기
- 측시
- 무탁치다
- 참다
- 빼앗다
- 주위

- 대기하다
- 벌써
- 추켜들다
- 함시에
- 숨이차다
- 가까스로
- 거름

4. 다음의 단어들로 문장을 지으시오.

- 서슴없이
- 간절하다
- 스며있다
- 고고하다
- 뜻밖에

5. 다음의 토들로 문장을 지으시오.

- 한편
- (이)라도
- 는데
- 보다 더
- 듣지
- 인지
- (으)므로

6. 밑줄을 그은 동사와 접두사, 접미사를 가지고 단어를 만드시오.

- 울라다다
- 뛰어들다
- 총질
- 짓꾸시다

- 울겨취다
- 알아내다
- 뒤쫓는다
- 다가가다

7. 다음의 말과 뜻이 비슷한 말을 쓰시오.

- 1) ...을 생각할 사이도 없이
- 2) 물을 뿜다
- 3) 위협을 무릅쓰다
- 4) 가쁜 숨을 쉬다
- 5) 힘이 솟다
- 6) 이를 악물다
- 7) 맥이 빠지다
- 8) 정신을 차리다
- 9) 애를 쓰다
- 10) 소리를 지르다



- 3) 우리들에게는 혁명의 리익외에 다른 어떤 리익이란 있을수 없다. 개인의 리익보다 먼저 혁명의 리익을 생각하자!
- 4)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미래를 사랑할줄 알아야 한다.
- 5) 우리 빨찌산들은 원수에게는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인민들에게는 순한 양처럼 자기의 모든것을 목목히 바쳐야 한다.

**우리는 총창을 더욱 굳게 잡으리**

1. 피끓는 가슴마다 총창을 안고서  
우리들은 번영하는 조국을 지켜간다  
영광, 영광의 길에 항일투사 물려준 그 총  
오들은 수백만 어깨에 빛났다  
어깨에 빛났다
2. 내조국 온나라가 쉼벌의 요새다  
우리들은 일당백의 용감한 초병이다  
영광, 영광의 길에 원수치던 승리의 총검  
오들은 수백만 어깨에 빛났다  
어깨에 빛났다
3. 내조국 남녘땅에 원수가 있는한  
우리들은 총창을 더 굳게 잡으리  
영광, 영광의 길에 자랑될진 혁명의 무장  
오들은 수백만 어깨에 빛났다  
어깨에 빛났다.

**8. 다음 문장의 빈자리에 알맞는 단어를 써넣으시오.**

- 1) 그는 ... 숨을 내쉬며 다시 돌아서서 강... 향해 해협을 ... 시작했다.
- 2) 그는 새로 ... 무기를 잡고 그전보다 더 ... 적을 짓꾸시는 대령에 다시 서고싶은 ... 간절했다.
- 3) 동지들의 ... 부름소리와 적아간의 맹렬한 총소리가 한시에 그의 ... 두드렸다.
- 4) 놈들의 ... 만행을 직접 보게된 제대원들의 ... 총오의 불길이 타올랐다.
- 5) 용감한 항일유격대원들은 일제경찰놈들의 파출소에 ... 많은 무기를 빼앗아가지고 ... 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 6)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고 그 ... 맡을기 위해서는 생명도 ... 바치며 투쟁하는것이 바로 혁명전사의 ...
- 7)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의 ... 위해 몸바쳐 싸운 ...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 어떻게 살며 싸워야하는가를 가르쳐주고있다.
9. 빈자리에 알맞는 토를 넣고 괄호안에 있는 단어를 알맞는 형태로 바꾸어 문장을 완전히 만드시오.

- 1) 강질더 기슭... (기다리다) 네통부... 빼앗은 무기... 넘겨주었다.
- 2) 곤난과 위험이 두려워서 어려운 일...(못하다) 혁명을 수행할 수 없다.
- 3) 눈은 허리... 넘어 가슴을 (치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다) 못한다.
- 4) 해염... 치지 못하고 물살에 (휩쓸다) 떠내려가는 그의 머리가 두서너말 아래쪽... (숫구치다) 또다시 물속... (파묻다) 것이 보였다.
10. 본문에서 《포함》 및 《제함》의 뜻을 가진 도음토물을 찾고 같은 뜻을 가진 도음토물을 하는대로 쓰시오.
- 1) 항일유격대는 일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자기의 목숨도 시슬없이 바칠 각오와 준비가 되어있는 그러한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로서 조직되었다.
- 2) 혁명이란 목숨을 걸고 싸우는 투쟁이다. 이명을 한다는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 김일성원수님의 어린시절

우리의 정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12년 4월 15일 유서깊은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었다.

김일성원수님의 가정은 대대로 대려오며 혁명적가정이었다.

훌륭한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자라나신 원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원수를 미워하시는 붉은 마음이 짙터 자라났다.

무지개를 잡으려고 오르셨다는 들메나무와 만경봉의 아름드리 푸른초나무며 《절대바위》와 《군함바위》, 《찌름터》와 《샘물터》, 《남시터》와 《학슴터》. 등에 깃든 사연들은 원수님께서 남다른 포부를 안고 혁명의 큰 뜻을 키우셨음을 감회깊이 이야기하여준다.

만경대 고향집 산밑에는 크고 작은 바위가 형제처럼 나란히 앉아있다. 푸른 잔디밭에 우뚝 솟은 바위는 두둥실떠가는 군함파도 같았다. 그래서 이 바위를 《군함바위》라고 불렀다.

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데리고 이 《군함바위》에서 일제놈을 치는 군사놀이를 즐겨하시었다.

그러던 어느날 원수님은 혁명활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신 아버님을 따라 강동군 봉화리에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혁명활동을 즐기치게 전개하시던 아버지 김형직선생님이 일제군정에게 붙잡혀 가셨다.

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이 일제놈들에게 붙잡혀가시는

것을 직접 보시었으며 그날 또다시 일제경찰들이 탈려들어 집을 들출 때 놈들에게 항거하여 굳세게 싸우시는 아버님의 강의한 모습을 보시었다.

그때 원수님께서는 여섯살밖에 안되었으나 가슴속에서는 일제에 대한 증오심이 타번졌다.

그후에 원수님께서는 만경대 고향집에 오셨다.

원수님께서는 일곱살 되시였을 때 아버님을 따라 아버님을 뵈옵기 위해 평양감옥에 찾아가셨다. 거기에서 일제의 혹독한 고문으로 형색을 분간할수 없게 된 아버님을 만나뵈 원수님은 원수 일제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셨다.

가을에 붙잡혀가신 아버님은 대동강얼음이 다 녹고 나무잎이 푸르러도 돌아오시지 못하셨다.

아버님 강반석녀사께서는 어린 원수님을 데리고 《그네터》에서 그대를 뛰워주시며 어서 크고 자라서 조선인민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일제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여주셨다.

이 말쑤를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일제의 철창속에서 두신음하고 계시는 아버님에 대한 생각이 북받쳐올라 두주먹을 부르짖며 맹세를 다지셨다.

《아버님, 대손으로 기어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원수님께서는 군사놀이를 더 세차게 벌리시었다. 그러나 군사놀이를 하시는것만으로 성차하시지 않았다. 원수 일제와 정말 한번 맞서 싸우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날 일제놈들은 만경대 고향집에까지 탈려들어 마구 행패질을 했다.



밖에서 노시다가 이것을 보신 원수님은 치밀어오르는 분을 감을 수 없어 울바자밖에서 고무총으로 놈들을 들이쪘셨다.

일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3.1인민봉기가 일어나 온나라에 퍼지고 있을 때에는 원수님께서 여덟살 잡히는 어린몸이었으나 평양을 향한 시위대렬에 끼워 보통문밖까지 따라가시며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셨다.

그후 감옥에서 나오신 아버님께서서는 혁명활동의 새로운 계획을 품으시고 몸을 추세를 사이도 없이 중국 동북지방으로 떠나가셨다.

얼마 지나서 원수님께서도 이미 떠나가신 아버님을 따라 중강진을 거쳐 동북으로 건너가셨다.

그리하여 원수님께서서는 여덟살때부터 열한살때까지 중강진과 중국 동북지방인 립강, 팔도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 여기에서 원수님은 아버님과 함께 손잡고 투쟁하는 여러 독립운동자들을 자주 만나시였으며 아버님을 도와 연락임무 등을 수행하셨다.

어느덧 원수님께서 그곳 팔도구소학교를 마치시게 되였다. 그때는 열두살때였다.

아버님께서서는 원수님을 부르시고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는가고 물으셨다.

원수님께서서는 늘 생각해보시던대로 조선에 가서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대답하시였다.

아버님은 늘 원수님께 조선의 력사와 지리, 조국을 빼앗긴 조선인민이 당하고있는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 하시면서 조선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조국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들으시면서 원수님은 조선에 가서 학교에도 다니고 조국의 형편을 직접 보고싶은 생각을 품어오셨던것이다.

원수님의 대답을 들으신 아버님께서서는 매우 만족해 하시였다.

어머님께서서는 원수님의 먼길떠날 차비를 해주시면서 어린 원수님을 혼자 떠대보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시였다.

그러나 아버님께서서는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떻게 가고 어디에서 자고, 어떻게 가는 길에 대하여 자세히 수첩에 적어주시고 나서 원수님을 혼자 떠나가라고 하시였다. 그날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1월 30일이였다.

이런 겨울 천리길에 아들을 혼자 떠대보래기가 괴로웠지만 어머님도 애처로운 생각을 누르고 혁명의 미해를 위하여 결단성있게 어서 떠나라고 하시였다. 이리하여 원수님께서서는 열두살 어린 나이에 혼자 천리가 넘는 먼길을 걸어 만경대에까지 오셨던것이다.

만경대로 오신 천리길, 그것은 어린 원수님에게 있어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배움의 천리길이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이 천리길을 걸어오시면서 일제에게 짓밟힌 조국과 억눌린 조선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게 되였다.

만경대로 오신 원수님께서서는 칠골 장덕학교에서 공부하시였다. 원수님은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원수님이



공부하시는 펜 윗방에는 밤늦게까지 항상 등불이 켜져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철골 외가에 찾아가면 그때 원수님이 공부하시며 했던 남포등을 볼수 있다.

원수님께서서는 장소를 가리시지 않고 그 어디를 가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셨다. 널리 알려진 만경봉 기슭의 《학슴터》, 창덕학교위의 《독서터》도 원수님께서 해저푸는줄도 모르시고 책을 읽으시던 곳이다.

원수님께서서는 학습과 모동, 운동과 휴식도 잘 배합하셨고 배운 지식을 꼭 실천에 옮기시면서 산지식으로 다져가셨다. 참으로 원수님의 학습은 혁명의 큰 뜻을 키워가시는 보람찬 과정이었다.

창덕학교는 김일성원수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원수님이 우리 나라 교육을 처음으로 받으신 뜻깊은 학교이다.

원수님께서 결으신 배움의 길, 그것은 단순히 지식 을 얻는 길로만 된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원수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애로 나서시는 길이였으며 혁명의 래일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길이였다.

원수님이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신지 2년이 지나고 있을 때 뜻하지 않은 불라운 소식이 전해왔다. 그것은 혁명의 임무로 압록강을 건너오셨던 아버지님께서 후창군 포평에서 일제경찰에게 또다시 체포되였다는 소식이였다.

이 놀라운 소식을 받으신 원수님께서서는 반드시 아버님의 원수를 갚고 아버님의 뒤를 이어 싸우리라는 굳은 결의를 다지시였다. 원수님이 그때 결의를 다지

신 그곳은 《결의터》로 알려져있다.

원수님께서서는 다시 천리길을 걸으시며 며칠후 압록 강가에 다달으셨다.

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의 피눈물에 젖은 조국의 산과 들을 몇번이나 돌아보시며 반드시 일제를 쳐부시고 조선을 해방하고자 말리라는 혁명의 큰 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너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그때를 회상하시며 해방후 이렇게 말 씀하시였다.

《나는 열네살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들 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 다. 그때 나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까, 대 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 올 날은 과연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니 어린 마음 에도 슬픔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원수님이 압록강을 건너가신 이듬해 1925년 6월 5일, 것처럼 열렬히 그리며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오 신 조국해방의 그날을 보시지 못하신채 아버지께서 32세를 일기로 해석하게도 세상을 떠나셨다.

원수님께서서는 아버님이 다 하시지 못하고 가신 조 국광복의 큰뜻을 빛나게 이어 일제를 쳐부시고 기어 이 조선을 해방하고자 말리라는 불같은 념원과 투지 를 한몸에 지니시고 벌써 열다섯살나이에 나라를 위 해 한몸을 바쳐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



대대로  
내려오다  
썩트다  
무지개  
아름드리  
틀레나무  
썰매  
바위  
군함  
씨름터  
센물터  
남시터  
학살터  
표부  
감회깊다  
나란히  
잔디밭  
우뚝  
두둥실  
떠가다  
군사놀이  
즐거하다  
확대  
발전  
군경  
경찰  
틀추다  
항거하다  
곧게  
강의하다  
모습

라번지다  
고향집  
피울다  
감우  
후득하다  
고문  
형색  
불간하다  
증오실  
사무치다  
빼여~  
뛰우다  
철창  
북받치다  
기어코  
갈다  
빌리다  
성차다  
정말  
행패질  
치털악호트다  
분  
고무총  
블이쓰다  
인민봉기  
시위  
대렬  
꺼우다  
계회  
추세우다  
거치다

손잡다  
런락  
수행하다  
만족해하다--만족하다  
수첩  
적다--쓰다  
피롭다  
해치롭다  
결단성  
등불  
담포  
알려지다--알다  
독서(--하다)  
저물다  
배합하다  
실견

과정  
회상  
단순히  
뜻하다  
전해오다--(전하다+오다)  
체포되다  
다다르다  
첫다  
선조  
무덤  
슬픔  
그리다  
일기  
해석하다  
조국광복  
투지

표 현

--마음이 썩트다  
--남다른 포부  
--백에 사무치도록 느끼다

--그대를 뛰다  
--학교를 마치다  
--큰 뜻을 품다

문 범

1) --리리(으리리)

동사 } + 리리  
형용사 }

--원수님께서는 반드시 일제를 쳐부시고 조선을 해방하고자 말  
리리는 혁명의 큰 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너시었다.  
--결일성원수님께서는 열대산 되실 때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  
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시고 압록강을 건너셨다.

2) -L(은)체

동사 } + L(은)체  
형용사 }

- 아버지님께서는 그렇게 열렬히 그리며 모든 것을 다 바쳐 짜워오신 조국해방의 그달을 보시지 못하십니까. 32세를 일기로 해석하게도 제상을 떠나셨다.
- 그는 추운 날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다.

3) 완전하지 않은 문장  
① 명명문

- 유서깊은 만경대는 참으로 아름답다. 푸르른 소나무 숲, 만경봉기슭을 저시며 블리호르는 데동강.
- 아버지님께서 워수님을 데리시고 삼촌들과 함께 심으신 집앞의 배양나무.
- 워수님께서 무지개를 잡으시려고 한단숨에 달려와 오르셨다는 소나무.

② 단어문장

- --학교에 갑니까?
- 예
- --오늘이 월요일입니까?
- 아닙니다. 화요일입니다.

③ 주어 없는 문장

- 흠뻑 젖을 그물남이었다.
- 행군도중의 어느 날이었다.
- 어두워졌다. 유격대원들은 전투준비를 갖추고 명령을 기다리다 고있었다.

④ 불완전문

- 《동무, 만경대에 가보았습니까?》
- 《가보았습니다.》
- 《언제?》
- 《지난 봄에》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 탄생하시었습니까?
- 2) 김일성원수님께서 남다른 포부와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신 사적 지대를 말해보시오.
- 3) 《군함파위》에 짓는 자연을 말해보시오.
- 4)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몇살 되실 때 강동군 공화리에 가셨습니까?
- 5)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몇살 되실 때 감옥에 갇힌 아버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 6)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그네티》에서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맹세를 다지셨습니까?
- 7)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일제놈들이 만경대 고향집에 달려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 8) 김일성원수님께서는 3. 1인민봉기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 9)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팔도구 소학교를 마치고 아버님의 물음 속에 어떻게 대답하시었습니까?
- 10) 김일성원수님께서 만경대로 오신 집리길은 어떤 길이였습니까?
- 11)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칠관 창덕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 12) 《결의타》에 짓는 자연을 말해보시오.
- 13) 김일성원수님께서 두빈짜로 압록강을 건너실 때 어떤 현실을 굳게 다지셨습니까?
- 14)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몇살 되실 때 나라를 위해 한문을 바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었습니까?

2. 다음의 단어, 표현, 토대로 문장을 지으시오.

- ① 스며있다
- 포부
- 씩트다
- 성찰지 않다
- 라면지다
- 웁다
- 사무치다
- 값다
- 북받치다
- 치밀어오르다



차미  
물갈다  
투지  
해석하다  
있다

네티 알퍼지다  
함몰에 지니다  
제상을 떠나다  
뜻을 잇다  
—과(와)도  
—를(을) 따라  
—것만으로는  
—리다  
—체

③

② 대대로 내려오다  
중요성이 라벨지다  
—살 잡히다  
품을 추체우다

### 포평니루터

1. 노을 비끼얹 압록강 포평니루터  
출렁이는 물결도 노래하는가  
어린 시절 수령께서 건너가시며  
강기슭에 남긴 맹제 가슴 울리네  
아 그날의 그 맹제  
사회주의 이 강산에 빛을 뿌리네
2. 동포들의 억울한 눈물에 젖은  
조국의 산과 들을 돌아보시며  
이 땅을 찾거진엔 돌아오지 않으리  
굳은 맹세 다치시며 건너가셨네  
아 그날의 그 맹제  
사회주의 이 강산에 빛을 뿌리네
3. 포평니루 건너신 수령님께서  
눈보라 헤치신 길 몇만리턴가  
섬오성상 항일의 기치 높이 드시며  
조국광복 크고큰 뜻 이룩하셨네  
아 그날의 그 맹제  
사회주의 이 강산에 빛을 뿌리네

## 제 19 과

### 만경대

만경대! 한민 불려만보아도 가슴 뜨거워지는 이름.  
만경대! 온민민의 마음이 달려오는 땅.  
여기 아름다운 만경봉기슭에 자그마한 초가집 한채  
가 있습니다.

이 집에서 1912년 4월 15일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  
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  
내시었습니다.

이 집은 나서 자란 고향집같이 언제나 마음속에 그  
리는 력사의 접이며 참된 조선의 력사가 시작되었고  
오늘의 조선이 태어난 집입니다.

처마밑에 들어서면 이마가 닿는 이 집은 해방전  
조선농촌의 어데서나 볼수 있었던 초가집입니다. 이  
집은 워낙 평양성안에 살고있던 지주놈의 산당집이었  
습니다. 100여년전에 원수님의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살림이 너무나 구차하여 평양중성리에서 사시다가 만  
경대로 이사하시었습니다. 이때 지주놈의 묘를 파주  
기로 하고 이 집을 겨우 얻어 초각살이를 하시었  
습니다.

대땅, 대집이 없었던 원수님의 가정은 참으로 구차  
하였습니다. 그때는 어두운 세상이라 함났없이 풀리가  
는 대동강물을 발아래에 두고서도 땅이 메말라서 농  
사가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지주놈

들이 사정없이 뜯어가고 일제놈들이 달려들어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렇게 되여 반년먹을 죽거리도 남지 못하여 타개죽으로도 제대로 끼니를 이룰수 없었습니다.

원수님의 삼촌 김형록선생은 그때의 생활형편을 회상하시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생활이란 농사를 하면서 늘 죽으로 끼니를 이었다. 나는 지금도 철모르던 때의 일이지만 손님이 올 때면 죽거정을 하시던 일이 생각된다. 어느 날 손님이 왔을 때 나는 부엌에서 일하시는 할머니에게 <오늘 또 나그네가 왔나오? 죽이 적지 않겠나오?>라고 물었다. 이때 할머니께서는 <그래 손님이 왔다. 나그네가 왔으면 어떻게 하겠니, 죽술에 풀한 사발 더 두어서 풀수 밖에 없지>라고 하시던 일이 어제일 같다.……》

원수님의 할아버지께서는 재별도 사라지기전에 들에 나가시여 저녁 어두울 때까지 하루종일 농사일을 하시고 밭에도 집안식구들의 진을 삼으셨습니다. 끝없는 가난은 밤낮으로 밀려들어 아무리 쉬지않고 일을 해도 그 가난에서 벗어나날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화포와 부시들, 허청간의 모지라진 호미차투를 비롯한 농장기들과 쪼그라진 뚝 등 모든것이 가난에 조들렸던 생활을 지금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억눌려있지만 앓았습니다. 무장한 증조할아버지께서는 대동강에 기여들었던 무장한 미제 승냥이들의 해적선 《사만호》를 불사른 용감한

인민들의 투쟁의 앞장에서 싸우신 애국자이시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나라 빼앗긴 백성에게는 항거의 길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일제와 지주놈들을 미워하시였을뿐만아니라 늘 자제분들을 애국주의 정신으로 교양하셨고 그들의 혁명활동을 적극 도와주셨습니다.

원수님의 아버지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대를 이어 가난했던 이 집에서 1894년 7월 10일에 탄생하시였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어려서부터 몹시 총명하셨습니다. 가정생활이 매우 어려웠지만 오직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불타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만경대에서 순화학교를 마치신 후 평양숭실중학교에 입학하여 고학을 하시였습니다.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열렬한 애국심을 키워오신 선생님은 숭실중학교를 다니실 때부터 독립운동에 나서시였으며 뜻을 같이하는 여러 동지들을 조직에 묶기 시작하시였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중학교를 학비난으로 부득이 중퇴하시고 순화학교에서 돈 없고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조선글과 조선력사를 가르치시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일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키워주시는 한편 독립운동을 계속하시였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1916년 초봄에 혁명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평안남도 강동군 봉화리에 자리를 옮기시였습니다. 선생님은 그곳 명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한편 농촌청장면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사상으로 교양하시었습니다.

마침내 선생님께서 1917년 3월 23일에 국내외에 있는 독립운동지사들을 중심으로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꾸으시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활동과 군사적활동을 결합하여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조선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시었습니다.

이 조직은 3.1운동이전의 가장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이었으며 반제적이며 민족적인 투쟁과업을 정확히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1917년 가을에 일제 앞잡이놈의 밀고로 《조선국민회》조직이 드러나, 김형직선생님을 비롯한 백여명의 성원들이 전국적범위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선생님은 1918년 가을까지 평양감옥에서 일제의 야수적인 악형과 갖은 기만술책에도 굴하지 않고 원수를 향거하여 용감히 싸우셨습니다.

1918년 가을에 감옥에서 나오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는 몸을 추세를 사이도 없이 일제를 반대하는 보다 큰 뜻을 품으시고 고향 만경대를 떠나 압록강연안 국경지대로로 옮기셨습니다. 이때 시 한구절을 남기셨습니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진만고 피롬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이 노래는 사나운 눈보라속에서도 푸르른 소나무처럼 곱힐줄 모르는 선생님의 굳센 뜻을 읊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조국이 침략자의 피눈은 밟아래에서 신음하지만 머지않아 해방의 새 봄을 맞고야 말 것이니 온갖 난관을 박차고 끝까지 싸워나가자는 굳은 절개를 노래한 것입니다.

허약한 몸을 넘려하여 부모님들은 병이 좀 나은 후에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내 몸이 썩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본놈들과 싸워이겨야 하겠다. 내가 싸우다가 실패하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가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독립시켜야 한다.»

비록 혁명활동의 무대를 옮기시였으나 선생님이 뿌리신 혁명의 씨앗은 만경대와 강동, 평양일대에서 싹트고 꽃을 피웠습니다.

3.1인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강동에서는 친여명의 군중이 《조선독립만세!》, 《일본놈들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고 만경대에서는 만경봉에 올라 현사졸동안이나 해블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실로 선생님께서 서거하실 때까지 국내와 필강, 관도구, 무송 등 동북지방의 넓은 지역에서 후대교육을 위해 전력을 다 바쳐 싸운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인물인 교육가이시였을뿐아니라 일편단심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였습니다.

원수님의 어머니 강만석여사께서는 1892년 4월 20일 만경대에서 얼마 멀지않는 절골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강만석여사의 아버님 강돈욱선생님은 열렬한 애국자이시였으며 30여년을 후대교육에 바친 참된 교육자이시였습니다.

강만석여사의 맏오빠인 강진석선생님 역시 일찌기 국대외의 독립운동자들과 함께 손에 무기를 잡고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싸우신 열렬한 반일투사이시였습니다.

이런 혁명가정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여사께서는 어려서부터 일제에 대한 증오심이 강하시었습니다.

여사께서는 식구가 많은 큰 가정의 장손며느리로서 알뜰하고 부지런하시였으며 그 성품과 자질이 또한 훌륭하시였습니다. 여사의 손길이 아침 저녁으로 놓아있던 율기도는 가마며 다듬이들, 배들이며 불레 등 생활도구들은 지금도 근면하고 고결한 여사의 품성과 알뜰한 일습씨를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강만석여사께서는 혁명가의 안해로서 혁명활동에 모든것을 기울이시는 김형직선생님을 힘껏 도우셨습니다. 선생님의 동지들이 찾아오면 재밌는 식량이 떨어졌을 때이든 몇번이고 밥을 지으셨고 그분들의 빨래를 하시였습니다. 자신은 자주 끼니를 건너시며 밤새워 일을 하시면서도 절골에 그늘 지으신적이 없으시었습니다.

비단결같이 곱고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지신 여사이

시였지만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는 견결하고 강의하시였습니다. 원수들의 박해와 위협이 그럴차치 못할 따라다니는 간고한 처지에서도 조국은 반드시 독립된다는 신념으로 살으셨습니다.

여사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도 이 신념을 굽히지 않으시었고 남편이 남긴 뜻을 직접 맡아나서시었습니다.

여사께서는 부녀회조직에서 사임하시면서 1928년부터는 백산지구 부녀회회장으로 무용을 중심으로 광범한 지역에서 활동하시었습니다. 여사께서는 조선여성들에게 조국광복과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정신을 키워 그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시였습니다. 원수님께서 지도하시던 《소년동맹》, 《반제청년동맹》 사임을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시였습니다.

이와 같이 강만석여사께서는 혁명가의 안해로서 혁명가의 어머니로서, 또한 열렬한 여성혁명투사로서 빛나는 생애를 남기시였습니다.

원수님의 동생이신 김철주동지도 김일성원수님과 아버님, 어머니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영향 밑에서 동생 김영주동지와 더불어 어린 시절부터 반일회와 아동단사임에 참가하시여 적극적인 혁명활동을 하시었습니다.

원수님께서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신 뒤에는 동생과 함께 산으로 오르내리시면서 그이를 만나 임무를 받고 활동하시었습니다. 김철주동지는 그후 김일성원수님을 따라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용감하게 싸우시다가 원수놈들에게 희생되었습니다.



원수님의 삼촌 김형권동지와 사촌동생 김일주동지도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녀사의 혁명적영향을 받아 일찌기 열렬한 혁명투사로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고귀한 생애를 바치시였습니다. 특히 김형권동지는 혁명동지들과 함께 구대에 들어와 손에 무장을 잡고 싸우시다가 놈들에게 잡혀 옥사하신 열렬한 혁명투사 이시였습니다.

유서깊은 혁명의 땅 만경대에 뿌리를 내린 김일성원수님의 일가는 이처럼 열렬한 애국투사의 가정이었고 대를 이어 모두가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몸을 바친 그야말로 세계에 류례없는 혁명가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렇듯 빛나는 혁명적가계에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탄생하였고 부모님들의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면서 혁명의 빛을 키우시며 어린시절을 보내신 유서깊은 만경대!

불러볼수록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온인민은 가장 친근하고 자랑스럽게 4천만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라 높이 부르고 있습니다.

단 어

- 초가집
- ~채
- 참되다
- 취마
- 이마
- 탕다
- 위낙
- 성
- 평양성
- 산당집
- 살림
- 구차하다
- 묘
- 소작살이

- 알았없이
- 사정없이
- 뜰어가다
- 죽
- 죽거리
- 타개죽
- 끼니
- 잡촌
- 촌님
- 나그네
- 촌
- 사말
- 새별
- 하루종일
- 식구
- 민러들다
- 벗어나다-벗다
- 화로
- 부시들
- 허청간
- 모지락지다
- 호미
- 자루
- 농쟁기
- 쫄라지다
- 독
- 쫄들리다
- 가난에~
- 차례분
- 총명하다
- 고학
- 학미난
- 경상년
- 지사
- 독립운동지사
- 조선국민회
- 붓다
- 진합하다
- 피어리다
- 진개하다
- 지하
- 지하혁명조직
- 내세우다
- 땀고
- 성원
- 범위
- 악형
- 기만
- 술책
- 굴하다
- 지대
- 구결
- 눈서리
- 파물히다-파물다
- 친신만교
- 괴롭말다
- 양춘
- 소생하다
- 사납다
- 파묻다
- 난관
- 박차다
- 철개
- 허약하다
- 범려하다

핏기다 가루 실패하다 손차 무대 짜앗 물러가다  
 열사불 교육가 불요불굴다 알뜰하다  
 성품 차질 탕다 윤기들다 다듬다  
 다듬이들 배를 물레 생활도구 근면하다  
 고결하다 품성 일습씨 기술이다  
 밤중 식량

마음이 달려오다  
 팔아때에 두다  
 ...는 낱밖에 없다

그늘 부드럽다 마음찌 견결하다  
 막해 위협 그림자 취지 말다  
 부녀회 회장 뚝다 묶어채우다  
 조격에~ 동맹 반제 생애  
 영향 더불어 만일회  
 고귀하다 국내 일가  
 -야말로 부 요람  
 친근하다

어제일 같다  
 가남에 쫓들리다  
 신벌에 물라다

표 현

몸을 추세우다 뜻을 품다  
 무대를 옮기다 혁명의 씨앗  
 제장을 떠나다

생애를 바치다 뿌리를 내리다  
 님을 키우다 희망을 안겨주다  
 혁명의 요람

문 범

1) --리(을) 지인정

동사 } + 리(을) 지인정  
 형용사 }

--김형적선생님께서 품이 찢기어 가루가 될지언정 일제놈들과  
 --짜위 이겨야 한다는 물타는 신념으로 싸우겠다.  
 --혁명은 가는 꺾이면 꺾일지언정 꺾히지는 않는다.

2) 는 한편 동사+는 한편

--김형적선생님께서 청소년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일제를 미  
 위하는 마음을 키워주시는 한편 독립운동을 계속하시였다.  
 --우리는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자는 한편 나라의 방위력  
 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3) ...밖에 없다

명사 } + 밖에 없다  
 수사 }  
 대명사 }

--나라 빼앗긴 인민들에게는 싸우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  
 --리수복영웅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을  
 바쳤다.  
 --교실에는 지금 우리밖에 없다.

4) --L(은)적이(있다)없다

동사 } + L(은)적이 (있다) 없다  
 형용사 }

--항일유격대원들은 어려운 투쟁속에서도 손에서 채운 **농은적**이  
 없었다.



- 7) 글하다
- 9) 증오심
- 8) 태어나다
- 10) 기율이다

4. 다음의 문장에서 괄호안에 있는 단어들의 형태를 바꾸어 문장을 만드시오.

- 1) 혁명가들은 몸이 썩기여 (가루가 되다) 곤난앞에서 (주저하다) 물러서서는 안된다.
- 2) 만경대에서 (시작되다) 조선혁명의 뿌리가 (자라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영광스럽다) 혁명전통이 이루어졌다.
- 3) 만경대에 (오르다+서다) 사방을 (바라보다) 눈앞에는 (아름답다) 경치가 펼쳐진다.
- 4) 봉화리는 만고에 길이 (빛나다) 혁명력사가 (깃들다) 영광의 땅이다.

5) 조선인민은 반드시 자기 손으로 조국을 (통일하다) 맡 것이다.

- 1) 앞던(엿던, 엿던)
- 2) - (이) 란
- 3) - 리 지얼성
- 4) - 라도
- 5) - (이) 른
- 6) - 는 합편
- 7) - 를 (-을) 증심으로

남산의 푸른 소나무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시리에 파묻혀서  
 친신만고 괴롭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활출을, 동무야 알겠느냐.  
 나라의 독립을 쫓알파에야  
 살아서 무잇하리  
 몸이 썩겨, 가루되여도, 광복의 한길에서  
 끝함없을 줄 동포야 믿어다오.

이 한품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 잠친리에 양춘을 찾아올제  
 독립만세를 조선아 불러다오.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만경대는 어떤 곳입니까?
- 2) 과거 원수님의 가정형편은 어떠하였습니까?
- 3) 원수님의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었습니까?
- 4) 김형직선생님은 어떤 분이시었습니까?
- 5) 김형직선생님께서 강동에 자리를 옮기시어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으로 혁명활동을 전개하시었습니까?
- 6) 김형직선생님께서 뿌리신 혁명의 씨앗은 어떻게 꽃을 피웠  
 습니까?
- 7) 김형직선생님의 굳센 혁명적의지를 어떻게 찾아볼수 있  
 습니까?
- 8) 강반석대사께서는 어떤 가정에서 탄생하시었습니까?
- 9) 강반석대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 10) 강반석대사는 김형직선생님께서 다하시지 못한 혁명의 뜻을  
 이어 어떻게 투쟁하시었습니까?
- 11) 김형권동지와 김철주동지는 어떻게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  
 셧습니까?

12)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적가계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2. 다음 문장의 빈자리에 알맞는 단어를 써넣으시오.

- 1) 만경대는 ... 조선혁명의 ... 요람지이다.
- 2) 만경대는 누구나 한번 보고나면 ... 나서 자란 ... 또다시 오고  
 싶은 우리 인민의 ... 고향이다.
- 3) 만경대는 우리 인민의 마음의 ... 우리 혁명의 ...
- 4) 그는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고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생  
 명도 ... 바치여 용감히 싸우는 것이 ... 기풍이라고 생각하였다.
- 5) 아무리 복잡한 환경이나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은  
 ... 지켜야 할 ... 입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3. 다음의 단어와 뜻이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시오.

- 1) 당다
- 2) 워낙
- 3) 밍끗없이
- 4) 사정없이
- 5) 사라지다
- 6) 못다

## 만경대의 노래

1. 대동강 푸른 물도 안기여블고  
달아가된 채들도 노래 드리는  
만경대 아름다운 산기슭에는  
혁명의 유서깊은 집이 있다네  
만경대 아름다운 산기슭에는  
혁명의 유서깊은 집이 있다네.
2. 대대로 물려받은 애국의 뜻을  
혁명의 불은 피로 이어짜우신  
김일성원수님의 요람의 고향  
그이의 사랑속에 재물이 왔네  
김일성원수님의 요람의 고향  
그이의 사랑속에 재물이 왔네.
3. 항일의 15성상 눈보라속에  
어느 한때 이 고장을 잊으셨으랴!  
나라의 재물 찾아 싸우신 보람  
오늘은 이 땅우에 꽃이 피었네  
나라의 재물 찾아 싸우신 보람  
오늘은 이 땅우에 꽃이 피었네.

## 제 20 과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상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  
구 기관지인 「뜨리핀머넌탈」 창간호에 발표하신 론설, 1967년  
8월 12일)

지금으로부터 2년전에 3대륙인민단결기구가 꾸마의  
수도 아바나에서 탄생하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

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이 기구가 추구하는 목적과  
리념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사  
람들의 공명을 불러일으켰으며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  
고 있는 위대한 변혁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세기동안 서방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의하여 억  
압당하고 약탈당하여온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  
리카 인민들이 용감히 일떠서 력사의 무대에 등장하  
였다. 민족해방의 세찬 조류가 막을 수 없는 힘으로 밀  
려오고 있다. 3대륙의 수억만사람들이 자기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고 있으며 이미 재취한 혁명의 성과를 고  
수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체계는  
급격히 무너져가고 있다.

제국주의는 자기의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며 이미  
잃어버린 진지를 도로 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  
고 있다. 제국주의가 죽음에 가까와감에 따라 투쟁은  
더욱 치렬하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민들은 반제국  
주의의 기발을 높이 들고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완  
전히 소멸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  
것이다.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한 나라들 앞  
에는 민족적독립을 수호하고 혁명을 전진시키며 아직  
도 제국주의의 예속하에 있는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원할 매우 어렵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독립  
을 쟁취한 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의  
악괴활동을 분쇄하고 그의 경제적지반을 소탕하며  
이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수립하며  
사회적민주적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



하여야 할것이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을 것이며 제국주의를 배장하기 위한 전제계인민들의 공동투쟁에 이바지할수 있을것이다.

아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지구록지면적의 71%를 차지하고있다. 거기에는 세계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살고있으며 무진장한 부원이 있다. 제국주의는 이 인민들의 고향을 빨아내고 그 부원을 굶어대면서 성장해왔으며 살져왔다. 오늘도 제국주의는 이 지역에서 해마다 수백억팔라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아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신구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된다면 제국주의적서구라파도, 제국주의적 북미주도 존재할수 없을것이다. 아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인민들의 성스러운 해방투쟁인 동시에 세계제국주의의 이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2대 혁명력량을 이루고있으며 그것들은 제국주의를 대장하는 하나의 흐름에 결합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인민들에게 독립을 선사할수 없다. 서방세계가 3대륙인민들의 독립과 진보를 도와줄수 있으며 자유롭고 독립된 아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공존할수 있다고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선언이 거짓말이라는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국주의의 본성은 변할수 없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이다. 제국주의는 죽을 때까지 인민들을 착취

하고 압박하고 략탈할것이다.

피압박인민들은 오직 투쟁에 의해서만 자기자신을 해방할수 있다. 이것은 력사에 의하여 입증된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기만선전을 폭로하며 그들이 식민지와 예속국들에서 자기의 지위를 스스로 대주리라는 환장을 칠저히 깨뜨려버리는것이 필요하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 피압박인민들이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하다. 제국주의가 폭력으로써 약소민족들을 략탈하고 압박하는 이상 피압박민족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침략자들에 항거하여 투쟁하는것은 빼앗을수 없는 그들의 권리이다.

독립도 좋고 혁명도 좋지만 평화가 더 귀중하다고 하면서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회피하려는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제국주의와의 무원칙한 타협을 추구하는로선이 그의 침략채동을 조장하며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킬뿐이라는것은 과연 사실이 아닌가? 노예적골중이 가져다주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평화의 파괴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노예의 평화를 반대하여 억압자들의 통치를 뒤집어엎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수 없다. 우리는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로선을 반대하는 동시에 제국주의를 반대한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실제행동에서는 제국주의와 싸우기를 두렵워하는것을 또한 용납할수 없다. 이것은 뒤집어놓은 다함로선이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진정한 반제투쟁과는 인연이 없으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도움을 줄뿐이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국주의에 공격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제국주의는 전 세계에 침략의 마수를 뻗침으로써 세계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원수로 되었다. 지구상에는 미제국주의에 의하여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있거나 미제국주의의 침략위협을 받지 않고 있는 나라가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다시금 예속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침략행위와 파괴활동을 감행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강도적본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사회주의나 라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벌여놓고 있으며 무력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전이 끝난후 이 20여년동안 미제가 일으킨 침략과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은 날이란 하루도 없다. 미제국주의야말로 력사장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략탈자이다.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이 평화와 독립과 진보를 요구하는 지구상의 모든 인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결합시키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공통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반제반미투쟁은 서로 지지하는 관계에 있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가 자유롭지 못하면 아세아가 자유로울수 없으며 아세아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유리하다. 미제를 반대하는 한 전선에서의 승리는 미제국주의의 힘을 그

만큼 약화시키게 되어 다른 전선에서의 승리를 촉진할것이다. 세계 어느곳에서 미제침략세력을 소멸하든지간에 그것은 세계의 모든 인민들에게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가장 광범한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미제를 철저히 고립시키며 그가 침략의 손길을 뻗치고있는 모든 곳에서 연합하여 미제국주의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미제의 힘을 최대한으로 분산약화시킬수 있으며 때 전선에서 인민들은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미제국주의를 때려눕힐수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20년이상 우리 나라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조선을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만들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조선을 정복하려는 침략기도를 의연히 버리지 않고 있으며 조선에서 재건생활도 발하려고 끊임없이 책동하고 있다. 조선인민의 당면한 최대의 과업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식민지제도를 청산하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조선인민이 민족해방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세계방면에서 력량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북조선에서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고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장성시키고 축적하여야 하며 국제혁명운동을 발전시키고 그와의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조선은 조선혁명의 기지이다. 북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고무하고 있으며 담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준비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발전시키는 동시에 국제혁명력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자신의 해방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이 단결하여 공동으로 미제를 반대하여 싸울것을 주장하며 그것을 위하여 시종일관 노력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연합된 힘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한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온갖 술책을 다하여 반미통일전선의 형성을 방해하며 약하고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전략으로 나오 고 있다. 미제국주의의 이 전략을 철저히 파탄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아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들은 사회제도를 탈리하며 또한 이 나라들에는 정치적견해를 달리하는 많은 당파들이 있다. 그러나 제국 주의의 앞잡이들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나라들과 당파들이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데서 일치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제 도의 차이와 정치적리념의 차이는 힘을 합쳐 미제국 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며 공동보조를 취하는데 결코 장애로 될수 없다. 자기의 특수한 국가적리익과 당파적 리익을 앞에 대세우면서 반미통일전선을 분렬시키거나 공동행동을 거부하는 일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이 리리한 행동은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에만 리롭고 혁명적인민들에게는 해로울뿐이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이비 승리한 혁명을 보위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바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구제주의적의무이다. 혁명적 구바는 라틴아메리카의 미래를 대표하고 있으며 그 존 재자체로써 이 대륙인민들의 해방운동을 고무하고 있다. 구바혁명의 승리는 우리 시대에 제국주의가 반드시 패망하고 민족해방혁명과 인민혁명이 반드시 승리 하리라는 뚜렷한 증거이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미제 국주의자들이 이 작은 섬나라를 것처럼 미워하고 무 서워하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구바공화국을 질 식시키려 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 전세계진 보적인민들은 구바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봉쇄정 책을 파탄시키며 구바에 대한 그들의 군사적침공기도 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 야 한다.

오늘 미국원정군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구국항진 은 반제투쟁의 초점으로 되고 있다. 미제국주의침략세 력과 세계반제평화해호력량이 웰남에서 대결하고 있 다. 웰남인민의 영웅적항쟁에 의하여 미국군대는 패 배를 거듭하고 있으며 헤어나올수 없는 구렁렁이에 빠 지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타산과는 반대로 웰남전 쟁은 침략자들의 무덤으로 되고 있다. 웰남인민의 구 국항진은 회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독립과 자 유를 지킬 결의를 가지고 있으며 전세계인민들의 지지 를 받고 있는 인민은 타승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웰남에서 자기의 군사  
력을 끊임없이 증강하며 추종국가군대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며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하여 대대적인 폭격  
과 포격을 감행하면서 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  
고 있다.

웰남인민은 자기의 영웅적투쟁으로써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흉악한 제국주의의 침략에 항거하여  
싸우는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고 있다. 웰남인민은 자  
기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할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전  
을 수호하여 투쟁하고 있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  
을 저지시키고 파란시키게 될때 미제국주의는 서산락  
일의 운명에 처하게 될것이며 평화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는 더욱더 유리  
한 정세가 조성될것이다.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웰  
남인민에게 온갖 형태의 원조를 출 의무가 있으며 웰  
남인민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주의국가들과  
신생독립국가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은 반미통일전선을 확대하고  
웰남인민의 구국항전을 지원하며 일치한 보조로 미 제  
의 침략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  
여야 할것이다. 그 누구도 웰남인민에게 그들의 내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미국침략  
군대는 웰남에서 물러가야 하며 웰남문제는 웰남인민  
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의 힘을 파소평가하여도 안되지  
만 파대평가하지도 말아야 한다. 미제국주의는 아직  
도 많은 죄행을 저지룰수 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는

내리락길을 걷고 있다. 미제국주의가 가장 침보하게  
행동하는 오늘 그의 취약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  
이 드러나고 있다.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가 어떤식인  
가를 알고 있다. 우리 인민은 미제의 저위보일으며 그  
의 침략으로부터 자기의 조국을 수호하였다. 조선전  
쟁은 미제가 결코 무적이 아니며 그와 능히 싸워이길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무바혁명외 승리는 우리  
와는 다른 조건에서 이 진리를 다시금 증명하였다.  
웰남인민의 구국항전도 역시 이 진리를 명백히 증명  
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의 완전한 패망은 불가피하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단결하여 미제를 두  
목으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독립  
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건설할것이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해방에 위대한 기여  
를 할것이다.

## 단 어

라틴아메리카	추구하다
단결기구	리념
기관	공명
~지	반혁
장간호	심각하다
발표	세기
논문	무대
의의	등장하다
태풍	조류
사면	쟁취하다



고수하다  
 식민지체제  
 급격하다  
 무너지다  
 종전  
 지위  
 유지하다  
 잃어버리다  
 진지  
 도로  
 필사적으로  
 말악하다  
 치렐하다  
 지구  
 소멸하다  
 기만  
 수호하다  
 진진하다  
 예속하다  
 지원하다  
 증대하다  
 외래—  
 파괴  
 반동세력  
 분쇄하다  
 지만  
 소탕하다  
 역량  
 진보적  
 수립하다  
 자립적민족경제  
 매장하다  
 공동투쟁

이바지하다  
 루지  
 면적  
 인구  
 무진장하다  
 부원  
 고향  
 빨아내다  
 성장하다  
 살찌다  
 지역  
 말라  
 리운  
 짜내다  
 신구식민주의  
 청산되다  
 존재하다  
 성스럽다  
 생명선  
 신사하다  
 공존하다  
 신인  
 거짓말  
 증명하다  
 확증하다  
 단순하다  
 명백하다  
 폭로하다  
 스스로  
 환상  
 질저히  
 반항  
 불가피하다

폭력(폭동)  
 약소민족  
 회피하다  
 무원칙하다  
 라첩  
 조장하다  
 증대시키다  
 과연  
 노예적굴종  
 뒤집어엎다  
 흉남하다  
 인연  
 두목  
 마수  
 뺨치다  
 가혹하다  
 로골적으로  
 드리내놓다  
 벌려놓다  
 내정  
 간섭하다  
 파렴치하다  
 공동질선  
 리해관계  
 유리하다  
 약화시키다  
 축진하다  
 소멸하다  
 고립시키다  
 형성하다  
 련합하다  
 분산시키다  
 쇠퇴함으로

결정적으로  
 우세하다  
 실시하다  
 수치스럽다  
 침략기도  
 의엄히  
 축적하다  
 련대성  
 반미구국투쟁  
 생산하다  
 이바지하다  
 인정하다  
 추상하다  
 시종일관  
 술책  
 정복하다  
 달리하다  
 견해  
 두루  
 일치하다  
 리념  
 보조  
 취하다  
 당파  
 앞잡이  
 투수하다  
 분렬시키다  
 거부하다  
 리튬다  
 해롭다  
 국제주의적의무  
 뚜렷하다  
 증거

까닭  
 질적 시키다  
 봉쇄 정책  
 좌절시키다  
 미구원정권  
 구국항전  
 초집  
 대결하다  
 구령령이  
 타산  
 타승하다  
 추종국가  
 증강하다  
 계단식  
 부담  
 결머지다  
 저지시키다  
 시산락일  
 파란시키다  
 파소평가  
 과대평가

저지프다  
 내리막길  
 취약성  
 무적  
 신생독립국가  
 형태  
 월조  
 반미통일전선  
 일치하다  
 저지시키다  
 취대한  
 해결책  
 강요하다  
 해결되다  
 좌행  
 횡포하다  
 수호하다  
 능히  
 능하다  
 인류  
 기여(∼하다)

단어만들기

△ 나서다, 나가다, 나다니다, 나오다.  
 △ 뒤집어엮다, 뒤집어놓다, 뒤집어임다, 뒤집어쓰다.

표 현

△ ...에 영향을 미치다.  
 △ 력사무대에 등장하다.  
 △ 세찬 조류가 밀려오다.  
 △ 파업이 나서다.

△ ...에 이바지하다.  
 △ 독립을 신사할수 없다.  
 △ 배앓을수 없는 설리.  
 △ 침략의 손길을 뻗치다.  
 △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다.  
 △ 헤어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다.  
 △ 무거운 부담을 짊어지다.  
 △ 서산막힐의 운명에 처하다.  
 △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다.  
 △ 내리막길을 걷다.

문 법

1) —는 동시어, —인동시에

동사+는 동시에  
 명사+인 동시에

—우리는 경제건설을 잘하는 동시에 국방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그는 최우등생인 동시에 축구선수이다.

2) —口(을)에도 불구하고, 동사+口(을)에도 불구하고

—(임)에도 불구하고,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새전쟁을 도발하려고 끊임없이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가장 야수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우고있다.

3) —는 이상. 동사+는 이상(—는 한)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이상 인민들은 자유로울수 없다.

—나의 심장이 뛰는 이상이 고지에서 물리칠수 없다.

4) —口(을)으로써 동사+口(을)으로써

—미제국주의는 전세계에 침략의 마수를 뻗침으로써 세계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원수로 되었다.

—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당의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 정신을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이 공고



히 되고 나라의 경제 적자 적성과 군사적위력이 더욱 강화  
되었다.

5) 전개된 문장성분

— 제국주의는 죽을때까지 인민들을 착취하고 압박하고 약탈할  
것이다.

— 조선인민의 당면한 최대의 과업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식민  
지제도를 청산하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나라의 통일을 실  
현하는 것이다.

— 항일빨찌산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간고하고도 영웅적인 투  
쟁을 전개하였다.

6) 부합문

① 병렬부합문

—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이 세차게 일어나고있으며  
제국주의의 식민지체제는 급격히 무너져가고 있다.

— 우리 나라에서는 노동자, 농민이 나라의 주인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몇몇 부르주아놈들이 <주인>행세를 하고있다.

② 종속부합문

—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

— 제국주의가 죽음에 가까와감에 따라 투쟁은 더욱 치열하여지  
고있다.

— 공산주의자들은 죽는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신념을 버려서는  
안된다.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과거 처지와 현재  
처지는 어떻습니까?
- 2) 새로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앞에 나서는 과업은 무엇입니까?
- 3) 피압박인민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4)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에 대하여 어떤 립장을 가져야  
합니까?

5) 미제국주의는 왜 세계제국주의의 부추입니까?

6) 조선인민이 민족해방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  
여야 합니까?

7)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8) 구바혁명의 승리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있으며 그것은 우리  
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있습니까?

9) 월남전쟁에서 미제는 어떤 처지에 빠져 있습니까?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월남전쟁에 대하여 어떤 대도  
를 가져  
야 합니까?

10)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립장  
과 그 정당성  
은 무엇  
입니까?

2. 본문을 읽으면서 <—내다>, <—놓다>와 결합  
되어 이루어진 동사  
를 찾고 그 뜻을 정확히 설명  
하십시오.

3. 본문에서 로 <—에>, <—로(으로)>를 찾고 이  
로가 어떤 단어  
와 결합  
되었  
으며 뜻이 서로 어떻게 다른  
가를 보  
십시오.

4. <발다>, <당하다>와 합할수 있는 동사  
들을 아는  
대로 쓰  
시오.

결사전기

1. 작취당코 압박  
받는 무산  
대중  
아  
혁명의 결전  
에 달려  
나오라.

다달  
았  
데 다달  
았  
데 은 진  
지에  
무산  
혁명  
시  
기가 다달  
았  
데.

어  
지  
없이 부  
서  
대  
자, 부  
르  
조  
아  
사  
회  
를  
날  
달  
이 박  
멸  
하  
자, 제  
국  
주  
의  
아  
성  
을

로  
동  
자  
는 망  
치  
를 물  
러  
페  
고

농  
민  
은 행  
이  
와 호  
미  
를 매  
고

부  
르  
조  
아 박  
멸  
하  
는 최  
후  
결  
전  
에

함  
가  
음 함  
뜻  
으로 달  
려  
나  
오  
라.

역  
지  
없이 부  
서  
대  
자, 부  
르  
조  
아  
사  
회  
를

날  
달  
이 박  
멸  
하  
자, 제  
국  
주  
의  
아  
성  
을

3. 상  
패  
하  
다, 시  
가  
질  
은 곳  
곳  
에 일  
고,

류  
산  
란  
은 적  
진  
우  
에 파  
멸  
되  
나  
나

- 부르조아 더럽피는 땅을 적시고,  
 무산이대시기에 다말았네  
 곱은기는 중천에서 쉼쉴 날리고  
 부르조아 닳은기는 빛을 잃고 쫓겼네.
4. 우리 맘과 우리 피로 배를 채우고  
 탐욕과 향락으로 진랑거리던  
 부르조아소굴인 궁전우에는  
 무산력명 정부기가 나뭇긴다.  
 곱은기는 중천에서 쉼쉴 날리고,  
 부르조아 닳은기는 빛을 잃고 쫓겼네.
5. 전세계 무산자는 서로 도움고  
 모두 다 단결하여 싸워나가지,  
 고초도 죽음도 두려움없이  
 광평에 싸어서 힘을 다낸다.  
 최후의 결승전에 승리할 때에  
 재사회의 주인공은 우리 모두다.
6. 서로 뜯는 부르조아와 군벌들은  
 단두대에 목을 잘라 복수하고  
 평화와 자유의 기말아래서  
 승전고를 울리는 우리의 제상  
 최후의 결승전에 승리할 때에  
 재사회의 주인공은 우리 모두다.

1. 조선어의 품사..... 214  
 2. 불완전명사 ..... 214  
 3. 단위명사 ..... 215  
 4. 인칭대명사 ..... 216  
 5. 지시대명사 ..... 216  
 6. 의문대명사 ..... 217  
 7. 자립적동사와 보조적동사..... 217  
 8. 동사의 사역형과 피동형 ..... 220  
 9. 격토 ..... 222  
 10. 도움토..... 223  
 11. 종결토..... 223  
 12. 접속토..... 224  
 13. 규정토..... 225  
 14. 능동문장, 사역문장, 피동문장..... 225  
 15. 문장에서의 단어들의 맞물림 ..... 227  
 16. 진탈법..... 229  
 17. 소리바꿈..... 232  
 18. 형태부의 적기 ..... 235



## 1. 조선어의 품사

조선어의 단어들은 다음과 같은 아홉개의 품사로 나누인다.

- 1) 명사—어떠한 사람, 물건,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들.  
예; 로동당, 농민, 학생, 학교, 비행기, 땅, 물, 파랑, 기차...
- 2) 수사—어떠한 사람, 물건, 현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들.  
예; 하나, 둘, 셋, 넷, 백, 천, 만, 칠째, 둘째, 셋째...
- 3) 대명사—이야기나 글가운데서 사람, 물건, 현상 등을 가리키 말할 때 쓰이는 단어들.  
예; 나, 너, 우리, 너희, 이, 그, 저, 누구, 무엇...
- 4) 동사—어떠한 사람, 물건, 현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들.  
예; 가다, 오다, 만나다, 읽다, 쓰다, 움직이다, 생산하다, 학습하다, 수행하다, 건설하다.
- 5) 형용사—어떠한 사람, 현상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  
예; 맑다, 희다, 바르다, 높다, 깊다, 가깝다, 멀다, 훌륭하다, 흉감하다.
- 6) 관형사—항상 어떠한 명사앞에서만 쓰이면서 그 명사가 가리키는 사람, 물건, 현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들.  
예; 어린, 모든, 새, 온갖.
- 7) 부사—어떠한 사람, 물건, 현상의 움직임, 성질, 상태를 특정지어 나타내는 단어들.  
예; 모두, 만가이, 빨리, 매우, 용감히, 천천히.
- 8) 상성사—어떠한 사람, 물건, 현상의 소리, 움직임, 성질, 상태를 특별한 말소리의 결합으로써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들.  
예; 반짝반짝, 펄펄떨떨, 무럭무럭, 출출, 출렁출렁.
- 9) 감동사—이야기하는 사람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태도를 직접 나타내는 단어들.  
예; 아!, 오!, 예!, ...

## 2. 불완전명사

조선어의 명사에는 완전명사와 불완전명사가 있다. 불완전명사란—그것만으로도 문장안에서 자립적으로 쓰일수 있는

명사다.

예; 조선은 천리마의 나라다.

불완전명사란—그것만으로는 문장안에서 자립적으로 쓰일수 없는 명사다.

예; <것>—새것은 승리하고 낡은것은 멸망한다.

<대>—청년건설자들이 일하는대로 갑시다.

동무가 공부하는애는 어딴니까?

<리>—그렇게 노력하면 안될리가 없습니다.

<분>—이분이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회의에 몇분이 오셨습니까?

<수>—그 문제는 저도 알수 없습니다.

<적>—공부할적에는 방안이 조용합니다.

<줄>—조국을 사랑할줄 알고 원수를 미워할줄 알아야 한다.

<쪽>—자동차는 길 오른쪽으로 달립니다.

글을 쓸때 불완전명사는 그앞에 오는 단어와 붙여쓴다.

흥감하다.

6) 관형사—항상 어떠한 명사앞에서만 쓰이면서 그 명사가 가리키는 사람, 물건, 현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들.

예; 어린, 모든, 새, 온갖.

7) 부사—어떠한 사람, 물건, 현상의 움직임, 성질, 상태를 특정지어 나타내는 단어들.

예; 모두, 만가이, 빨리, 매우, 용감히, 천천히.

8) 상성사—어떠한 사람, 물건, 현상의 소리, 움직임, 성질, 상태를 특별한 말소리의 결합으로써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들.

예; 반짝반짝, 펄펄떨떨, 무럭무럭, 출출, 출렁출렁.

9) 감동사—이야기하는 사람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태도를 직접 나타내는 단어들.

예; 아!, 오!, 예!, ...

## 3. 단위명사

불완전명사가운데 단위명사라고 하는 단어의 무류가 있다. 단위명사는 수량의 단위를 나타내면서 항상 수사의 다음에만 쓰인다.

예; <그루>—소나무 한그루가 서있다.

<개>—우리 고실에는 걸상 서른개가 있습니다.

<권>—나의 책장에는 <김일성선집>이 1권부터 6권까지 있다.

<대>—자동차 빅대가 서있다.

<마리>—소 열마리가 풀을 뜯고있다.

<별>—해마다 봄과 가을이 오면 당과 정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세교부 한벌씩 줍니다.

<자투>—어머니는 영유에게 <연필은 몇자투나 있느냐>라고 물어 시였습니다.

<장>—종이 여덟장.

<척>—배 두척.

<채>—집 열채.

《결례》—신 누컬레.

《튼》—서한 투후.

글을 쓸때 단위명사는 그 앞에 오는 수사와 붙여쓴다.

#### 4. 인칭 대명사

인칭	상대편		아래 사람에게	나 (네)	나 (네)	아래 사람에게
	우	너				
1인칭	단수	저 (제)	나 (네)	나 (네)	나 (네)	나 (네)
	복수	저희 저희들	우리 우리들	우리 우리들	우리 우리들	우리 우리들
2인칭	단수	※당신	자네 그대	너 (네)	너 (네)	너 (네)
	복수	※당신들	자네들 그대들	너희 너희들	너희 너희들	너희 너희들
3인칭	단수		그	그	그	그
	복수		그들	그들	그들	그들

※ 《저, 나, 너》는 《제, 네, 네》로 쓰일 때가 있다.

해; 저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입니다.

제가 《로동신문》사설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제 교과서입니다.

나는 중학교 학생입니다.

내가 신문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 책입니다.

너도 오를부터 소년단원이 되었다.

내가 《소년신문》을 읽어라.

이것은 네 책이다.

#### 5. 지시대명사

거리 대상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이야기 듣는 사람에게	거리
일반적	이	그	저
물건	이것	그것	저것
장소	여기	거기	저기
방향	이리	그리	저리

#### 6. 의문대명사

구분	의문대명사	예
사람	누구 (누) 아무	누구입니까? 누가 읽습니까? 아무도 읽습니까?
물건	무엇 (것) 어느 (것) 아무슨 무슨	무엇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아무것도 읽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수량	얼마 몇	얼마입니까? 몇입니까?
장소	어디	어디입니까?
시간	언제	언제입니까?

※ 의문대명사는 불확정한것을 나타낼때도 쓰인다.

- 예; {저기 누가 옵니까? (의문)}
- {저기 누가 옵니다. (불확정)}
-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의문)}
- {여기 무엇이 있습니다. (불확정)}
- {웬 사람이 옵니까? (의문)}
- {웬 사람이 옵니다. (불확정)}
- {얼마 있습니까? (의문)}
- {얼마 있습니까? (불확정)}
- {몇사람 있습니까? (의문)}
- {몇사람 있습니까? (불확정)}
- {어디 갑니까? (의문)}
- {어디 갑니다. (불확정)}

#### 7. 자립적동사와 보조적동사

동사는 자립적동사와 보조적동사로 나눌수 있다.

자립적동사란 그것만으로도 문장안에서 자립적으로 쓰일수 있는



2) 명사의 격투와 결핍하여 쓰이는 것

태: -대하여(대한)  
 ○그는 용감한 소년 유격대원들의 투쟁에 대하여 재미있게 이야기 했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한훤의 피서가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격동시킨다.

-말미암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목적으로 말미암아 평양시는 제 더미로 되었다.

-비롯하여

○평양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하여 많은 대학들이 있다.  
 ○우리 나라에는 금강산을 비롯한 명승지들이 많이 있다.

-비하여(비한)

○사회주의제도는 자본주의제도에 비하여 매우 우월하다.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다 말할수 없다.

-즈음하여

○항회극장건기범일에 즈음하여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만제반미투쟁월간》에 즈음하여 군중집회가 진해되었다.

-향하여

○두아동만원은 일제경찰놈의 총을 빼앗아가치고 유격군거지를 향하여 달려갔다.

○천리마기수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고 있다.

-인하여(인한)

○미제의 강점으로 인하여 남반부인민들은 커다란 불행속에서 신음하고있다.

○미제의 강점으로 인한 남반부인민들의 불행은 말할수 없이 크다.

-의하여(의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정령은 김일성동지에게 의하여 창조되었다.

-위하여(위한)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위수님의 령도밑에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동사다.

태; 우리 나라는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공부하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보조적동사란 그것밖으로는 문장안에서 쓰일수 없고 반드시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서만 쓰이는 동사다.

보조적동사에는 다음의 두가지가 있다.

1) 자립직동사와 결핍하여 쓰이는 것  
 태; 싫다

-유치원에 다니는 선영이는 빨리 커서 학교에 가고싶다고 말하였다.

일부 동사들은 자립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보조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동사	자립적으로 쓰일때	보조적으로 쓰일때
가다	나는 강의가 끝나면 도서관에 갑니다. 나는 서점에서 책을 사가지고 기숙사에 왔다.	해마다 9월이 되면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나는 새로운 기술을 많이 배워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장으로 떠난다.
보다	유화 《진격의 길에서》를 보았다.	나는 어제 실습공장에서 부속품을 검사보았다.
주다	나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1)를 김동무에게 주었다.	김동무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1)의 내용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주다	김동무는 나에게 국어책을 주었다.	김동무는 나에게 두아동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오다	나는 오늘도 일찌기 학교에 왔습니다.	나는 수행의 끝에서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여 15성상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다.

○ 무기회복을 위한 투쟁은 실로 피어린 싸움이였다.

### 8. 동사의 사역형과 피동형

1. 동사의 사역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등이 이용된다.

1) <—이>가 붙어가 이루어진것

- 모다—모이다
- 먹다—먹이다
- 누다—누이다
- 축다—축이다
- 썰다—썰이다

2) <—히>가 붙어가 이루어진것

- 쉽다—쉽히다
- 읽다—읽히다
- 놀다—놀히다
- 앉다—앉히다

3) <—리>가 붙어가 이루어진것

- 알다—알리다
- 날다—날리다
- 놀다—놀리다
- 마르다—말리다
- 오르다—올리다

4) <—기>가 붙어가 이루어진것

- 넘다—넘기다
- 말다—말기다
- 숨다—숨기다
- 웃다—웃기다

5) <—이우>가 붙어가 이루어진것

- 라다—래우다
- 차다—채우다
- 서다—세우다

피다—피우다,

2. 동사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된다.

1) <—게>하다, <—도록하다>를 만든다. 이 방법은 모든 동사에 다 가능하다.

예. 가다—가게 하다, 가도록 하다.

오다—오게 하다, 오도록 하다.

2) <하다>동사의 경우에는 <—시키다>로 만든다.

예. 해방하다—해방시키다

연구하다—연구시키다

공부하다—공부시키다

3. 동사의 피동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등이 이용된다.

1) <—이>가 붙어가 이루어진것

- 나누다—나누이다
- 놓다—놓이다
- 덮다—덮이다
- 뭉다—뭉이다
- 보다—보이다

바꾸다—바꿔다

2) <—히>가 붙어가 이루어진것

- 가두다—갈히다
- 뒤집다—뒤집히다
- 닫다—닫히다
- 막다—막히다
- 잠다—잠히다
- 뽀다—뽀히다

3) <—리>가 붙어가 이루어진것

- 갈다—갈리다
- 날다—날리다
- 열다—열리다(열매)
- 밀다—밀리다
- 떨다—떨리다

4) <—기>가 붙어가 이루어진것

- 감다—감기다
- 신다—신기다
- 빼앗다—빼앗기다
- 찾다—찾기다
- 안다—안기다



4. 동사의 피동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밖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리용된다.

1) <하디>동사의 경우에 <되디>로 만든다.

해; 이룩하다—이룩되다

창조하다—창조되다

건설하다—건설되다

2) <하디> 동사의 경우에 <말디> <말디> <말디>로 만든다.

해; 주의하다—주의받다

존경하다—존경받다

착취하다—착취당하다

략탈하다—략탈당하다

침략하다—침략당하다

3) <아디> (어지다, 어지다)로 만든다.

해; 열다—열어지다(문이~)

끊다—끊어지다

변하다—변하여지다

### 9. 격 토

조선어격토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격 토	말침이 없을 때	말침이 있을 때
주격토	—가	—이
대격토	—를	—을
속격토	—의	—의
어격토	—에게	—에게
위격토	—에서	—에서
조격토	—로	—으로
주격토	—와	—과
포격토	—야	—아
	—시여	—이여
	—시여	—이시여

※1 <리>말침일때

※2 <리>말침을 제외한 말침

말침이 없을 때

### 10. 도움토

도움토를 그 뜻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주체를 나타내는것	—란(이란)—께서
2	객체를 나타내는것	—께, —더러, —한테
3	지정 또는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것	—는(은)
4	열거하는 뜻을 나타내는것	—하고, —랑(이랑)
5	비교하는 뜻을 나타내는것	—처럼, —보다
6	시각의 뜻을 나타내는것	—무러
7	재판의 뜻을 나타내는것	—만
8	포합의 뜻을 나타내는것	—도, —마저, —까지, —조차
9	개별의 뜻을 나타내는것	—마다
10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것	—나(이나), —나마(이나마) —라도(이라도)
11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것	—야(이야), —라야(이라야) —야말로(이야말로), —나 (이나)—도

### 11. 종결토

종결토를 서술식, 의문식, 명령식, 명령식, 권유식, 감탄식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서술식	의문식	명령식	명령식	권유식	감탄식
—입니다 (습니다, 입니다)	—비니까 (습니까 입니까)?	십시오(으 시오)	십시오(으 시오)	하십시오(으 시오)	—구려(는구 려)(이구려)
—아요(어요, 어요)	—아요(어요, 어요)?	—아요(으 세요)	—아요(으 세요)	—아요(어요, 어요)	—군(는군, 이군)
—지요	—지요?	—오	—오	—오	—구나(는구나, 이구나)
—소	—소?				

서술식	의문식	평형식	원유식	감탄식
-나다(는다)	-는가, ㄴ가	-개	-자구	
-마(느냐)	-르가(을 가)?	-구려		
-아(어, 여)	-느냐? 냐?	-아라(어라, 여라)	-자구나	
-야(이야)	-아(어, 여)	-아(어, 여)		
-지	-지?	-지		

2) 종결로를 높임말, 보통말, 낮춤말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높인 말	보통 말	낮춤 말
-됩니다(입니다, 습니다)	-오,	-아(어, 여)
-됩니다(입니다, 습니까)	-소	-지
-십시오	-시오	-는다(는다) (이다)
-십시오(음시다)		-니
-아요, (어요, 여요)	-네, 이네	-느냐
-지요	-는가, 인가	-르가(을가, 일가)
-나요	-게	-아라(어라, 여라)
-는가요, ㄴ가요	-구려(이구려)	-려무나
르가요(을가요, 일가요)	-세, 세나	-자
-세요, (으세요)	-자구	-자구나
-군요(는군요, 이군요)	-군(는군, 이군)	-마(으마)
	-구려	-구나(는구나)

### 12. 접속도

접속로를 그 뜻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접속로의 접속도	주요 두개 사실을 단순 히 열거하는데 쓰인다	평형식	원유식	감탄식
1			-고, -며(으며), -는데, -기니와	
2	두개 사실중에 어느 하나 가 일어날수 있음을 나타낸다		-거나(이거나), -든지, -든가, -나(으나, 이나) -든	
3	두개 사실이 서로 대립 됨을 나타낸다		-나(으나), -지만, -아도(어도, 여도) -는데	

4	원인의 접속도	두개 사실중 첫째 사실 이 둘째 사실의 원인, 리유가 됨을 나타낸다	원유(으므로), -니 (으니), -니까(으니까), -기에
5	조건적 접속도	두개 사실중 첫째 사실 이 둘째 사실을 위한 조 건이 됨을 나타낸다	-면(으면), -거든, -아야(어야, 여야)
6	양보의 접속도	두개 사실중 첫째 사실을 양보하여 터블리하게 되 면서 둘째 사실을 받 드시 실현할것을 나타낸다	-더라도, -리지라도 (을지라도) -리망지 (을망지) (을지언정), -리지언정
7	시간적 접속도	두개 사실이 시간적으로 같이 또는 연이어 일어 남을 나타낸다	-더니, -다가, -자, -고서, -면서(으면서)
8	목적과 의도의 접속도	두개 사실중 첫째 사실이 둘째 사실의 목적이거나 도모로	-러(으러), -려(으려), -려고(으려고), -고지
9	반직과 정도의 접속도	두개 사실중 첫째 사실이 둘째 사실의 양적이거나 도모로	-아(어, 여), -아서, (어서, 여서) -게, -도 록, -리수록 (을수록), -리뵈터러 (을뵈터러)

### 13. 규정도

규정로는 《-는》, 《-ㄴ(은)》, 《-ㄴ(인)》, 《-던(이던)》, 《-르(을)》, 《-리(일)》이 있으며, 품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쓰인다.

동 사	형용 사	명 사	시간상의 의미
-는	-ㄴ(은)	-ㄴ(인)	형 제
-ㄴ(은)			과 거
-던	-던	-던(이던)	과거지속
-리(을)	-리(을)	-리(일)	미 래

### 14. 능동문장, 사역문장, 피동문장

1. 능동문장이란 주어가 제 힘으로 움직임을 일으키는 문장을 말한다. 능동문장의 기본형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주어 ————— 슬어

해; 천리마가 달린다.  
나는 공부한다.

2) 주어 ————— 직접보어 ————— 슬어

로동자들이 공장을 건설한다.

3) 주어 ————— 간접보어 ————— 직접보어 ————— 슬어

해; 나는 동생에게 책을 주었다.

2. 사역문장이란, 주어가 다른것으로 하여금 움직임을 일으키도록 시키는 문장을 말한다. 사역문장의 기본형식에는 다음과 같고 같은 부가지가 있다.

1) 주어 ————— 직접보어 ————— 슬어

해; 로동자들이 셔를 녹인다.  
선생님이 그림책을 보인다.

3) 주어 ————— 간접보어 ————— 직접보어 ————— 슬어

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본문을 읽힌다.  
이때 사역으로 된 슬어들을 <...게하다, ...도록 하다>의 형식으로 바꾸어놓을수도 있다.

해; 읽혔다 → 읽게 하였다 — 읽도록 하였다.  
읽구하게 하다, 건설하게 하다.

3. 피동문장이란 주어가 다른것에 의하여 움직임을 입는 문장을 말한다. 피동문장의 기본형식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있다.

1) 주어 ————— 슬어

해가 바뀐다.  
종소리가 들린다.

2) 주어 ————— 간접보어 ————— 슬어

공장은 로동자들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는 조선인민군 해군에게 사로잡혔다.

3) 주어 ————— 간접보어 ————— 직접보어 ————— 슬어

—미제침략자들은 영웅적조선인민에게 코대를 꺾이였다.  
—항일빨찌산대원들은 일제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4) 같은 사실을 능동문장으로 나타낼수도 있고 피동문장으로 나타낼수도 있다.

해; —원군이 온 별판을 덮었다. (능동문장)

주어 ————— 직접보어 ————— 슬어(타동사) ————— (능동문장)

(눈이) 별판을 덮었다

주어 ————— 직접보어 ————— 슬어(피동사) ————— (피동문장)

(별판이) (눈으로) (덮이였다)

5. 사역문장을 피동문장으로, 피동문장을 사역문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해; —한개 분대는 중기화점을 파괴하게 하였다. (사역문장)  
중기화점은 한개 분대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피동문장)  
—전후 우리 당은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켰다.  
—농촌경리는 전후 우리 당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었다.

### 15. 문장에서의 단어들의 맞물림

문장안에서 앞부분의 단어와 토의 성질에 따라 뒤부분의 단어와 토도 그것과 맞물려야 하는 일이 있다. 이제 단어들의 맞물림에서 중요한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어에 존경해야 할 단어가 올 경우에는 슬어도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해; —선생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어머님께 이 책을 드립니다.

2. 이야기 듣는 사람이 존경을 말아야 할 사람일 경우에는 슬어가 높임말로 되어야 한다.

해; —선생님, 제가 지은 문장을 좀 보아주시십시오.  
—형님, 저는 다음 학기에 꼭 최우등생이 되겠습니다.

3. 자기와 관련하여서는 겸손하게 말하여야 한다.

해; —이 본문은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달리기를 합니다.

4 《마땅히》, 《응당》 등이 앞에 오면 그 뒤에 《—아야(여야, 여야)한다》가 맞물려야 한다.

해; —학생들은 응당 공부를 잘 해야 합니다.  
—미제부장간첩선《푸에블로》호 선원들은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한다.

5) 《결코, 도저히, 조금도, 도무지, 전혀, 여간》 등이 앞에 오면 그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맞물려야 한다.

해; —우리앞에는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란 결코 있을수 없다.  
—적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을 도저히 막지 못한다.

6. —《만일》 《만약》 등이 앞에 오면 그뒤에 《—면》 《거든》 등 가정의 뜻을 나타내는 토가 맞물려야 한다.

해;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함부로 덤벼들다면 일격에 쳐부실 것이다.

—만약 래일 형님이 오시면 이 책을 주십시오.  
7. 《아마》 등이 앞에 오면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 맞물려야 한다.

해; —아마 래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발표포임이 있을것 같습니다.

8. 《가령, 혹시, 비록》 등이 앞에 오면 그 뒤에 《—더라도》, 《나》 등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토가 맞물려야 된다.

해; —가령 래일 당장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오늘까지는 전설을 제 속해야 한다.

—혹시 래일 비가 오더라도 실습지로 갑시다.  
—비록 날씨가 춥더라도 몸 단련(아침체조는)은 계속해야 한다.

9. 《아무리》 등이 앞에 오면 그뒤에 《—더라도》, 《—라도》, 《—아도》, 《—느들》, 《—리망정》, 《—지라도》 등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토가 맞물려야 한다.

해; —미제가 아무리 말악하더라도 그놈들은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무리 일야 힘들더라도 노력하면 꼭 해낼수 있다.

10. 《설마》 등이 앞에 오면 그뒤에 의문을 나타내는 토가 맞물려야 한다.

해; 설마 소년들이 미국놈을 잡았겠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설마 그 동무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11. 《부디, 아무쪼록, 제발》 등이 앞에 오면 그뒤에 요구나 희망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 맞물려야 한다.

해; 부디 몸건강하여 사회주의진실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몸건강하여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조선인민군의 용감한 행동앞에서 겁을 먹은 미국놈은 손을 들고 제발 무숨만 살려달라고 하면서 벌벌 떨고있었다.

12. 《비단》이 앞에 오면 그 뒤에 《—리(을)뿐만아니라》가 맞물려야 한다.

해; 수성님의 은덕아래 지난날의 머슴군이 대의원이 된 이야기는 비단 리게산아주머니뿐만이 아니다.

—그는 비단 공무만 잘할뿐 아니라 체육도 잘한다.  
13. 《어찌, 왜, 어찌서, 무엇, 누구, 이리, 언제, 무슨, 췌, 어떻게》 등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앞에 오면 그뒤에 의문을 나타내는 토가 맞물려야 한다.

해; 한 피출을 이은 우리가 어찌 남력형제들과 떨어져 살수 있으랴?

—어찌서 김동무가 찾아왔습니까?  
—어느놈들이 남덕평을 압록의 땅으로 만물어놓았습니까?

### 16. 전달법

#### 1. 전달법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의 말이나 글을 다시 옮겨서 누구에게 전하는 방법을 전달법이라고 한다.

《형님! 저는 김일성원수님께 무한히 존경한 혁명전사가 되겠습니다.》하고 영철이는 말하였다.

여기서 《》안의 말은 사실 성철이가 정님께 한 말이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은 형철이의 말을 다시 옮겨다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

전달법에는 직접전달법과 간접전달법이 있다.

### 2. 직접전달법

직접전달법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조금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정확히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 형님은 나에게 《더는 커서 훌륭한 기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우의 문장에서 보는바와 같이 직접전달법에는 반드시 인용표가 있어서 전하려는 말이나 글이 다른 말이나 글과 분명히 구분된다.

직접전달법에는 전달해야 할 내용을 리해서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누가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태도로 말하는가하는 설명을 할수 있다. 이를 전달자의 말이라고 한다.

우의 예문에서 《—하고 영철이는 말하였다》는 전달자의 말이다. 직접전달법에서 전달자의 말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들이 있다.

1) 직접전달의 뒤에 《하고 말하다, 라고 말하다, 고 하다》 등의 술어가 붙는다.

예; 강연자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학을 잘 해야 수령의 총지한 혁명전사가 된다》고 말하였다.

2) —하고, —라고, —라, —고 등이 생략되고 《말한다》, 《한다》 등의 동사만 붙는다.

예; 그는 《비록 재작은 약하지만 그것이 성장하면 큰 힘으로 된다.》하였다.

△ 전달자의 설명은 문장에서 다음과 같은 위치에 놓인다.

(1) 전달자의 설명이 전달의 뒤에 오는 경우  
예; 《나의 심장이 뛰는 한 월수 미제를 모조리 때려부시겠습니다.》

하고 그는 불같은 심정을 뽐였습니다.  
《미제는 조선인민의 절친지원수요.》하고 그는 웨쳤다.

(2) 전달자의 설명이 전달의 앞에 오는 경우  
예; 리계순동지는 힘있게 웨쳤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김일성장군유격대선전원인 내 말을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3) 전달자의 설명이 전달의 앞뒤에 오는 경우  
예, 김일성동지께서는 의루를 밟으시여 친히 무상당한 동무를 댓어주시고는 《추운 때에는 가만히 앉아서 휴식을 하는것보다 운동을 하는것이 더 좋거던...》하고 말씀하시면서 손수 도끼를 드시고 마당 한 가운데로 걸어나오셨다.

### 3) 간접전달법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그 내용만 가지고 자기의 말로서 전하는 방법이다.

예, 원수님께서 항일유격대는 인민을 위한 군대라고 하시옵니다. (간접전달) 《항일유격대는 인민을 위한 군대입니다》라고 원수님께서 말씀하시었다(직접전달).

—사람은 일을 해야 사는 재미가 있고 밭맛도 더 좋다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말씀하셨다. (간접전달)

(《사람은 일을 해야 사는 재미가 있고 밭맛도 더 좋습다.》라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말씀하시었다). (직접전달)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다. 인민들이 다 하는 일을 내라고 어찌 못하겠는가고 그이께서는 말씀하셨다. (간접전달)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랍니다. 인민들이 다 하는 일을 내라고 어찌 못하겠습니까!》라고 그이께서는 말씀하셨다). (직접전달)  
간접전달법에는 인용표가 없다. 그리고 원이어 《고 말한다》, 《고 물었다》, 《고 명령하셨다》... 등과 같은 설명어가 붙는다.

### 4. 직접전달을 간접전달로 고치는법

전달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따라 직접전달로 말할수도 있고 간접전달로 말할수도 있다.

직접전달을 간접전달로 고치기 위해서는  
1) 직접전달에 표현된 계정은 다 《해라》의 계정으로 바꾼다.

예; 그는 대원들에게 《끝까지 살아서 사령부를 찾아야 한다. 모두 나를 따르시오》하고 웨쳤다. (직접전달)

(그는 대원들에게 끝까지 살아서 사령부를 찾아야 한다. 모두 나를 따르라고 웨쳤다). (간접전달)

—《우리는 혁명과업을 끝까지 해낼 결심입니다》하고 그는 말했다. (직접전달).

(그는 혁명파임을 끝까지 해낼 결심이 있다고 하였다). (간접전달)  
 2) 직접전달에 있는 인용표를 풀고 <라고하다>, <고 말하다>를 붙인다.

예; <우리들은 사회주의청년진실자요>하고 청년들은 말했다. (직접전달)  
 —청년들은 자기들이 사회주의 청년진실자라고 말하였다.  
 (간접전달)

3) 직접전달에 있는 인용을 바꾼다.  
 <대대장동지! 이 전투과업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하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대대장동지에게 이 전투과업을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하였다.) (간접전달)

—<나는 매일 아침 신문을 꼭 읽습니다>하고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접전달)  
 (자기는 매일 아침 신문을 꼭 읽는다고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간접전달)

—<여기 강선이 첩리마의 고향입니다.>라고 수상님께서서는 말씀하시었습니다. (직접전달)  
 (여기 강선이 첩리마의 고향이라고 수상님께서서는 말씀하시었습니다.) (간접전달)

5) 호칭어, 감동어, 삽입어들은 전달하는 사람이 적당한 설명으로 바꾼다.  
 예. 원수님께서서는 환자들에게 <동무들! 우리들이 적과 싸우는 동안 병과 안 병과 싸워이키시오.>하고 적들의 말씀을 하시었습니다.(직접전달).  
 (원수님께서서는 환자들에게 대원들이 적과 싸우는 동안 병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적들의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간접전달)

### 17. 소리바꿈

1) <ㅅ>—<오(우)>의 바꿈

예; 콧다(꽃이 콧다), 굶다(고기를 굶다), 집다, 툴다, 밟다, 덩다, 랫다, 섯다, 출다, 자유롭다, 가뿔다, 가뿔다, 가잡다...

놓다	누우니
놓베	누우려고
놓고	누우며
놓습니다	누우시오
놓지	누워서, 누워라

두렵다	두리우니
두렵베	두리운
두렵고	두리우며
두렵습니다	두리우시오
두렵지	두리워서, 두리위지다

2) <ㅅ>—O의 바꿈

짓고	지으니, 지은	딛어 헤
짓베	지으려고	짓다(금을 짓다)
짓다	지으며	짓다(물을 짓다)
짓습니다	지으시오	짓다(글을 짓다)
짓지	지어서, 지어라,	짓다(노를 짓다)

3. <ㄹ>~O의 바꿈

예; 잘다, 길다, 길다, 길다, 날다, 날다, 놀다, 놀다, 불다, 불다 등 끝소리가 <ㄹ>로 끝나는 모든 동사와 형용사

살고	사는	틀고	드는
살며	삼시다	틀며	
살려고	사시오	틀려고	
살다	사오	틀다	
살았다		틀었다	

4. <ㄷ>~<ㄹ>의 바꿈

예; 깨닫다, 길다(길을 길다) 김미(꽃을 김다)



묻다(이름을 묻다), 질다(길을 질다).

듣고	들으니
듣데	들으려고
듣다	들으며
듣습니다	들으시오
듣지	들어서, 물어라

5. 《르》~《리르》의 바꿈

해; 가르다, 고르다, 기르다, 누르다, 다르다, 모르다, 빠르다, 부르다, 오르다, 자르다, 찌르다.

나르고	날라
나르니	날라서
나르다	날랐다
나르며	
나릅니다	

6. 《르》~《리르》의 바꿈

해; 부르다(빛이 부르다).

부르다	부르러
부르고	부르러서
부르니	부르렀다
부르며	
이르다	이르러
이르고	이르러서
이르니	이르렀다
이르며	

7. 《ㅎ》~《호》의 바꿈

해; 그렇다, 이렇다, 놀다랴다, 노랴다, 벌랴다, 누랴다, 길다랴다, 랴다.

키다랴다	키다라서
키다랴고	키다라랴
키다랴소	키다라랴면
키다랴지	키다라랴오
하랴다	하야니
하랴고	하야랴
하랴소	하야랴면
하랴지	하야니다, 하야오

18. 형태부의 적기

1) 받침일림표

말침	해
ㄱ	죽가, 학교, 막다, 푸.....
ㄴ	손, 눈, 문, 신다, 간다.....
ㄷ	갈다, 뜰다, 말다, 일다, 실다.....
ㄹ	길, 뜰, 물, 갈다, 밀다, 날다.....
ㅁ	땀, 꿈, 실다, 담다, 남다.....
ㅂ	밥, 집, 입, 잡다, 씹다.....
ㅅ	냇, 옷, 맛, 웃다, 짓다.....
ㅆ	냇, 맛다, 낫다.....
ㅈ	냇, 맛, 빛, 밋, 쫓다.....
ㅊ	남녘, 부엌.....
ㅋ	길, 밀, 말, 술, 갈다, 말다.....
ㆁ	늘, 숲, 앞, 깔다, 뿔다.....
ㅇ	놓다, 종다, 쌀다, 풍다.....
ㅅ	땀, 쥐다, 묶다, 꾸다, 깎다.....
ㅌ	꽃, 냇, 샅.....
ㅍ	앉다, 엎다.....
ㅎ	많다, 풀다.....

말뭉치	례
리	기슭, 탑, 흙, 굽다.....
리	삶, 삶다, 끓다, 삶다.....
리	어둠, 텅다, 밟다, 찢다.....
리	끓, 끓.....
리	활다, 활다.....
리	늪다.....
리	움다, 움다, 풀다.....
리	값, 없다.....
리	있다, 갖다, 찢다.....

2) 한 형태부안의 두 모음사이에서 나는 자음은 (설측)음이 아닌 조건에서 받침으로 적지 않는다.

- 례; (음음) (그림)
- 겨누다 견으다
  - 디디다 띵이다
  - 미치다 밋이다
  - 시키다 식히다
  - 지키다 적히다
  - 기쁘다 깃쁘다
  - 아끼다 앗기다

3) 한 형태부안의 두 모음사이에서 나는 <리>음은 <리리>로 적는다.

- 례; (음음) (그림)
- 놀라다 놀나다
  - 빌테 빌테
  - 빨래 빨래

4) 한 형태부안에서 받침 <ㄴ, ㄹ, ㅁ, ㅂ, ㅅ>다음의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아래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 례; (음음) (그림)
- 받침받작 받작받작
  - 말씀 말씀

※ 벌써 벌신 활작 활작  
 깔깔놀라다 깔깔놀라다  
 그러나 토에서는 <리>뒤에서 된소리가 나타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 례. (음음) (그림)
- 리가 리까
  - 리수룩 리쭈룩
  - 리지라도 리찌라도
  - 울시다 울찌다



조 신 어  
(류학생용)

저자 류학생조선어강좌 교열자 교열자 리숙자

1968년 11월 20일 인쇄

1968년 11월 25일 발행

편집권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발행소 인제대학교 인쇄공장

8-3814

50/95

1500부



ㅣ 기 니 더 러 미 비 시 이 지 치 키 티 피 히

ㅡ 그 느 드 르 므 브 스 으 즈 츠 크 트 프 호

ㅑ 규 슈 튜 류 무 부 슈 유 쥬 쉼 쥬 튜 쥬 쥬

ㅓ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추 쿠 투 푸 후

ㅕ 교 뇨 도 료 모 보 쇼 요 쥌 초 료 료 료 료

ㅗ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토 포 호

ㅋ 거 너 더 러 머 버 셔 여 제 처 커 티 피 히

ㆁ 거 너 더 러 머 버 셔 어 저 처 커 티 피 히

ㅑ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야 자 차 카 라 파 하

ㅓ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라 파 하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ㅓ ㅕ



